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8월 21일 수요일(주간) 제 383 호



법석 조대 **본환 스님** 중국 임제종 제44대 종정



"우리의 고통과 번뇌, 무명無明, 교만, 질시, 시비 등 일체의 그릇된 생각을 항복시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하는 자성을 찾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한 경을론 삼장三藏 12부部의 법문의 기저에는 '행行'자가 깔려있습니다.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교화시켜 국토를 장엄하도록 실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달라이 라마 10~11월 방한 추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조계종 공식초청으로 현 정부 임기 내인 10월 하순이나 11월초 방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7일 달라이 라마의 동북아 대사인 자툴린포체와 박광서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달라이 라마 방한을 위해 조계종 명의의 초청장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사진)



박광서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달라이 라마 방한을 추진할 경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방한시기를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10월말이나 11월초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대스님의 말이 현실화되면 방한 추진주체가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에 소속된 민간단체에서 조계종 총무원으로 바뀜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성사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불교계의 대표인 조계종 총무원장의 이같은 공식입장 표명은 그동안 한중불교 우호관계, 한중무역, 조선족 문제를 고려해 명확하게 나서지 못했던 어려움을 감내한 뒤 나온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또 공신력 있는 조계종이 적극 나섬으로 해서 달라이라마가 방한할 경우 한국사회 및 종교계의 전폭적인 환영분위기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조계종이 초청할 경우 달라이라마가 종교지도자로서 방한하는 것이 돼 정치지도자로서의 방한을 경계하는 중국정부를 우리정부가 설득할 수 있는 구실도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대스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이 라마의 초청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제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며 "정부에 달라이 라마 공식초청을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툴린포체는 "달라이 라마가 향후 3년 정도 일정이 짜여 있지만 한국의 최대 종단인 조계종에서 초청할 경우 한국에 가는 것이 '넘버원'이라 말씀하는 만큼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우(취재 1부 차장)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

1. 북한산 관통도로 관련 불교계와 건설업체 등이 공사일시 중단 등을 합의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잘 된 일이다 ②잘못된 일이다

2. 향후 북한산 관통도로와 관련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신중하고 합리적인 노선 재검토
②불교계와 환경단체의 계속적인 감시
③정부의 중립적인 가치판단 ④기타

설문 참여: 8월 22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84호 9면에 실습니다.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연말까지 잠정 중단

8월말 대안노선 조사위 구성

철마선원 자진철거, 민사·행정소송 취하

불교계·정부·시공사 14일 합의

불교계와 정부, 건설회사가 14일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를 12월말까지 중단키로 합의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과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 의정부사암연합회 회장 지섭스님 등 불교계 대표와 추병직 건설교통부 차관, 서울고속도로(주) 최병권 사장, LG건설 김갑열 사장 등은 14일 조계사 근처에서 만나 논의 끝에, 북한산 관통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4공구 사패산 구간)와 관련된 3개 현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4공구에 대한 공사 보류 △8월말까지 철마선원 자진 철거 △불교계, 건설회사, 환경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노선조사위원회' 8월말까지 구성, 12월 31일까지 합의 도출 △합의 결렬시 노선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수렴, 정부가 최종 결정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과 관련 각 민사 행정소송 취하 등이다. ☞관련기사 3면

이로써 북한산 관통도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불교계와 시공사의 9개월에 걸친 대립은 국민 여론 수렴과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불교계와 정부, 건설회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조계종 공동대책위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을 지키기 위해 불교계와 시민단체가 제시한 대안노선과 전문가들의 의견 모두를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노선이 채택되도록 하겠다"며 "노선조사위원회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도 차기정권에서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혔다.

서울고속도로(주)도 14일 "대타협을 통해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사업의 평화로운 해결을 모색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응스님은 "2월 18일 발생한 비구니스님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LG측이 'LG제품불매운동추진본부'를 통해 충분히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불교계는 그 동안 3월 5일과 6월 26일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하고 조계종 원로회의 유시 발표하는 등 북한산 관통도로를 반대하는 불심 알리기에 주력하는 한편 대통령, 건교부 장관,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서울고속도로와 LG건설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회노선 채택 등을 요구해왔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8·15민족통일대회 참석차 방한한 박태화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워커힐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스님들의 환영속에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정련스님(왼쪽 두번째)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있다. 워커힐호텔= 고영배 기자

박태화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분단후 첫 남한방문… 통일대회 참석

정대스님 만남·8·15법회 참석 성사안돼

박태화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이 14일 분단이후 57년만에 2002년 민족통일대회 참가차 남한을 첫 방문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은 정대스님 만남과 조계사 8·15법회 참가는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박태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정련 스님등과 16일 워커힐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상봉모임을 갖고 통일을 위해 남북불교계가 협력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태화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과 장재언 조선종교협회장은 "남측 대표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재해를 연속으로 당한 북녘 인민들에게 지원 물자를 보내준 남녘의 불교인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남측 불교계 대표인 정련스님은 "지속적인 화해, 친선, 답방, 문화 개방과 자유로운 왕래가 이뤄져 민족의 뜻한 바 전하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화해와 교류로 통일정토 이룩하자"

광복 57돌기념법회 16일 조계사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주관한 '조국광복 57돌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법회'가 16일 서울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정대스님은 원택스님이 대독한 봉행사를 통해 "광복 57돌을 맞아 우리 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정토의 그 날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기원하자"고 말했다.

8·15합동법회에 참가불자들은 민족화합 불자선언'을 통해 "지난 반세기에 걸친 반목과 갈등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교류,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자"며 이를 위해 △6·15공동선언의 실천에 노력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매진 △남북교류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김원우 기자

천은사 관람료 소송 대법원, 상고 기각

지리산 천은사가 2월 6일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관람자에게 관람료 일부를 돌려 주라'는 서울지법 민사항소 10부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13일 기각됐다.

천은사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단순도로 통과자라도 경내도로를 이용한 것은 관람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관람자에 대한 정의가 너무 좁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김원우 기자

직장불자들 환경살리기 9월 8일 북한산 걷기대회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전국금융단불교회 등 직장단체들은 17일 조계사 인근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9월 8일 북한산 일대에서 '환경살리기 걷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전국 직장직능 신행단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개발위주의 사업으로 훼손되는 자연환경을 살리는데 직장불자들의 '불심'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환경살리기 걷기대회는 입구 매표소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시작으로 산행에 나서며, 천축사에서 환경법회, 선언문 채택, 자연정화활동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玉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 추천서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 www korea buddha co 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8동 1653-6 세인빌딩 401호
TEL :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사 설

남북교류 활성화 하자

8·15 민족통일대회 기간 중 서울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는 분단 57년 만에 처음 남북 불교도가 서울에서 한자리에 모여 합동 법회를 연다는 의미에서 기대를 모았으나 정부의 북측대표 외부일정 불허방침으로 무산되고 말아 안타까운 여운을 남겼다.

광복절을 기해 남북불자들이 서울 조계사와 북한 묘향산 보현사에서 각각 동시에 법회를 열고 공동발원문을 내기 시작한 것은 3년 전부터였다.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 후 전개된 만만치 않은 정치 외교 군사적 격랑 속에서도 남측에서는 이제 '한자리 합동법회'를 이루어 낼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었다.

비록 북한의 종교가 정치이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해도 북한에는 60여 사찰에 3백여 명의 스님, 10만 여명의 신도들이 있다. 어떤 형태이든 남북 불교도들이 한 시간에 함께 같은 뜻의 법회를 올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

비록 서울에서의 합동법회가 무산되었다 해도 앞으로 거듭될 동시법회는 남북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인들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부터 정치적 이념을 떠나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기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느리나마 그 결실을 하나씩 거두어 왔다. 이는 통일을 위한 종교계 역할의 비중을 가늠케 한다.

특히 불교는 인도적 이념을 같이하는 자비 보시 상생의 종교다. 통일에 대한 접근으로 이만한 덕목이 어디 있을까. 통일을 향한 불자들의 불자다운 공덕을 기대한다.

노선조사위가 잊지말아야 할 것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 공사가 일시 중단된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북한산 관통터널을 반대해온 불교계와 공사강행을 주장해온 서울고속도와 한국도로공사 측이 12월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이 기간중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새 노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 같은 합의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스님들을 폭행하는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으로 보인다. 불교계는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 공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안노선의 채택을 주장해 왔다.

노선조사위원회는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노선조사위의 활동과 결정이 이후 개발과 환경보전의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으며, 소위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모호함을 털어내는 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의 주장은 도로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필요에 의해 개발은 하되 최소한의 지켜야 할 선이 없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무분별한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립공원마저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된다면, 가속도가 붙은 개발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 또 사찰의 역할과 특징에 대한 고려없이 마구잡이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자연환경의 파괴는 물론 정신의 피폐함까지 불러온다. 무분별한 개발이 문제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립공원은 개발로부터 최후까지 지켜야 할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문화유산이자 정신을 맑히는 도량인 사찰은 어떤 경우에도 보전이 우선이라는 점, 이 두 가지를 노선조사위원회는 잊지 말아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l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그림 · 김영민

역사기념관~수송동 시민공원 조성
완공후 소 음악회·연극 공연 장소로
'전통문화벨트' 잇는 '문화지구' 추진

조계사가 우정총국에서 수송공원까지 이어지는 시민공원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재가불자 전문수행원을 개원하는 등 수행과 포교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왔던 조계사가 전통과 현대미를 갖춘 시민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시민과 함께하는 조계사로

조계사는 이달말 대웅전 해체 복원불사에 착수하는데 이어 9월에는 현 출입구 자리에 일주문을 세우는 공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현재 총무원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문화기념관 건립공사가 끝나는 대로 덕왕전을 해체하고 조계사와 역사문화기념관 사이에 나무 등으로 울타리를 조성, 우정총국에서 수송공원까지 이어지는 시민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작업이 끝나는 내년 7~8월경에는 새로 조성된 시민공원에서 작은 음악회나 소공연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시민공원이 완성되는 대로 신도들이 이용할 신행공간인 만불전 건립에도 착수한다. 만불전은 5층 규모의 목탑 형식으로 지어 전통가람의 모습을 재현할 방침이다. 또한 현 포교원 건물을 시민문화센터로 만들고, 대웅전과 시민문화센터를 하나로 이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법당을 참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조계사는 특히 경복궁-조계사-인사동-북촌-창경궁으로 이어지는 전통문화벨트에 걸맞는 역사문화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찰 맞은편에 위치한 조계종 복지재단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불교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건물을 건립하는 한편, 일주문 앞 거리의 가로등도 전통등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조계사는 '외국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열린 조계사'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

조계사는 또 최근 인사동이 서울시 '문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조계사 일대도 '문화지구' 지정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사찰 내부 및 외부 환경 정비와 함께 주변 여론화 작업에 나서는 등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소들이 몰려있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비문화업종 일체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은 "조계사는 경복궁에서 창경궁으로 이어지는 전통문화벨트의 중요한 축이자, 불교역사의 중심지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시민공간으로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문화지구로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미주지역 개척포교 적극나서

LA포교사단 자문봉사팀 두고 이민수속등 각종 상담·지원

내년에 미주 포교 40주년을 맞는 불교계가 드디어 개척 포교에 나선다.

LA 포교사단(단장 김안수)은 최근 이민변호사 자문봉사팀을 두고, 조계종 포교사들의 포교도량 개척 지원을 위한 이민수속(영주권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등 상담활동에 나선다. 또한 미국내 90여개 조계종 사찰과 연계해 교포 불자들이 정착과정에서 청소년, 이민, 의료, 장의 문제 등 불교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유럽 청교도들의 초기 이민역사에서, 이제 동양의 불교도들에 의한 새로운 이민사가 전개되고 있다. 동남아 등 각국 불교가 미주 교세확장을 위한 교류의 장을 확장하고 있고 일본 불교, 중국(대만) 불교, 티베트 불교 등의 활약이 이제는 주류 미국인의 종교인식을 바꾸어 놓은 상태다. 특히 미국은 한국 불교 세계화의 전초기지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LA포교사단은 개척포교를 통해 교민불자 이민생활뿐만 아니라 전 미국인(다민족)에게 직접 다가가서 활기를 증진해주는 현장의 포교사로써, 현지인을 상대로 한 포교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비전을 수립중이다.

김안수 단장은 "전 미주 90여개 조계종 사찰과 연계해 개척포교에 활기를 불어넣어, 교포불교의 한계 극복과 한국 불교의 세계화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LA 포교사단 사무처=lapogyosa@pogyosadan.org

김재경 기자

무자격 승려 승적정리
조계종 각교구에 전달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명)는 12일 회의를 열고 산중총회 선거인 명부를 검토한 결과 무자격승려의 승적이 살아있는 만큼 각 교구본사에 승적정리를 하달키로 했다.

이어 16일 불국사 종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자격을 심사하고, 단독 출마한 정문스님의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23기행자교육원

조계종 제23기 행자교육원이 25일부터 9월16일까지 23일간 통도사에서 개원한다.

이번 행자교육원의 입교대상자는 2002년 3월25일 입산해 기초행자교육과정을 이수한 행자로, 남행자 144명, 여행자 91명이 입교신청을 했다.

행자교육원은 사미 사미율의, 부처님 생애, 초발심자경문, 기초교리, 42장경, 기본습의 등 10개 교과목에 대한 강의와 일보일배, 특강 등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교육이수자들은 마지막날 사미(니)계를 수계한다.

한명우 기자

태고종 승려 합동연수

태고종(총무원장 이운산스님)은 9월 3일부터 5일까지 2002년 하계 전국 승려 합동 연수교육을 경기도 광주군 곤지암에 있는 증부수련원에서 갖는다.

태고종 중진 간부스님들과의 합동연찬회 성격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종단의 현안들이 깊이 있게 논의된다.

이경숙 기자

본사포교국장 워크숍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오는 29~30일 공주 갑사 유스호스텔에서 본사 포교국장 워크숍을 개최한다.

포교국장협의회 회장 선출 및 군법당 자매결연사업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찰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김재경 기자

붓다의 땅 인도에 전법의 燈을

불교가 사라진 부처님 땅 인도에 다시 불교가 소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내에서 온갖 탄압속에 벌어지고 있는 불교로의 개종-신행-자활활동을 우리 한국 불자들이 도와야겠다는 원력으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방 스님들을 비롯한 재가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사무국:(02)745-7799
▲동참 계좌번호:(조흥)741-04-365950(예금주:인도 돕기)

▲주최 : 참여불교재가연대 우리는선우
▲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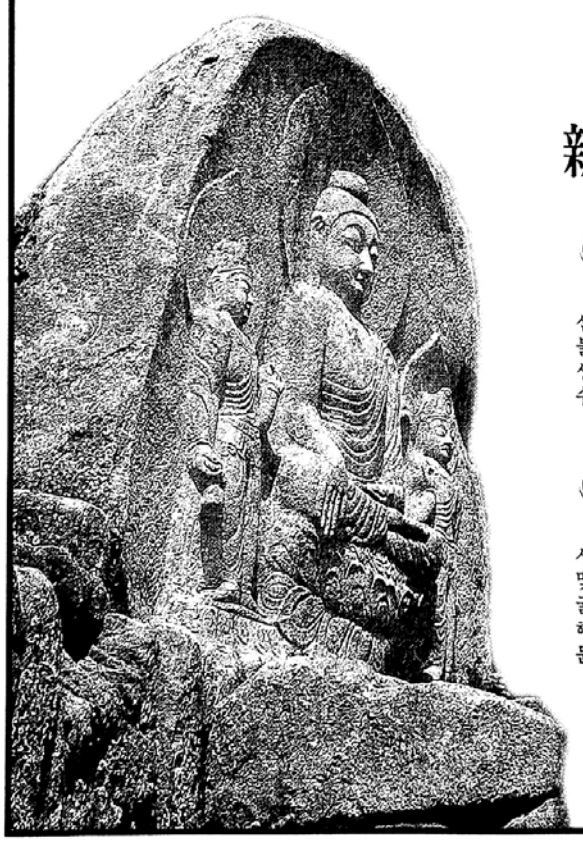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둘론 총괄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원류이자 조각과 유적의 보고, 세계문화 유산!



慶州南山
GYEONGJU NAMSAN
新羅精神과 藝術의 慶州南山의 총체적 報告書!

경주 남산의 문화유산과 민속자료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완전 올 컬러 사진!
5년간 2백여 차례의 현장정밀조사를 통해 사적 제311호인 경주 남산에 소재한 포석정 등 670여개소의 유물 유적과 140여곳의 절터, 석불 100여기, 등 불교유적 그리고 왕릉 13기등 선사유적과 4개소의 산성 등을 비롯해 경주 남산의 모든 문화유산과 민속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컬러사진 800여장에 담았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경주시의 적극적 협조와 권위있는 조사연구원과 필진으로 구성!
권위 있는 연구진과 필진, 그리고 해설 조사연구진의 빈틈없는 조사연구와 필진의 쉽고도 탁월한 해설이 중요문화재의 명칭은 물론 소재지와 시대, 규격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경주 남산의 진면목에 다시금 눈 뜨게 한다.
이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문화재청과 경주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권위 있는 조사연구원과 필진이 구성되어 가능하였다.

경주 남산 관련 방대한 자료를 총망라 했으며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경주 남산의 佛蹟'의 전문도 완역!
남산소재 문화재뿐 아니라 남산에서 옮겨져 박물관과 유관기관에 전시된 중요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비롯해 금석문 자료와 고대문헌 자료 및 연구논저목록 등을 총망라해 수록했으며 영문도 병기했다. 특히 발굴 복원도와 복원에 활용할 탁본과 실측자료를 3차원 IT기록물을 통해 마련했으며 1940년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경주 남산의 佛蹟'의 전문도 완역해 실었다.

총 7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특대판, 고급양장에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
특대판형 圖錄과 解說판 2권에 대중적 가격, 3억여원에 이르는 제작비와 총 700쪽이 넘는 방대한 특대판 고급양장에 도록편과 해설편으로 엮은 '경주 남산'은 전문연구가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사랑을 느낄수 있게 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산정하였다.

〈정가 : 2권 1세트 230,000원〉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民族文化 圖書出版
釜山廣域市 南區 大淵 1洞 1754-11號 전화 051)627-2366, 627-2367 / 핸드폰 018)516-2366 / 팩스 051)627-2368



'북한산관통도로' 합의 이후

14일 북한산 관통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4공구) 문제에 관해 불교계와 정부, 건설회사의 합의서가 도출됐다. 이에 따라 9개월 동안 진행됐던 물리적 대립이 끝나고 불교계가 자연과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국책사업을 저지한 첫 번째 사례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행과정에 수많은 암초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북한산 문제의 완전 해결을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합의문의 내용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짚어보고 불교계의 대응 방향을 진단해 본다.

합의내용

1. 시행사인 서울고속도로(주)와 시공사인 LG건설(주)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북한산 관통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4공구) 공사를 보류한다. 불교계는 북한산 터널공사 예정지역에 설치된 기도정진도량 철마선원 등을 자진 철거한다.
2. 8월말까지 불교계, 환경단체, 전문가,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는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입각한 진지한 조사활동을 하여 합의를 도출한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조사활동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최종 결정하고, 합의당사자는 이에 따른다.
3. 북한산 관통도로 관련해 제기된 각종 민사 및 행정소송은 8월 19일까지 취하한다.

불교계와 정부, 건설회사가 북한산 관통도로와 관련해 합의한 것은 3개안이다. 이중 2번째 안건으로 합의된 "8월말까지 불교계, 사업시행업자측, 환경단체, 전문가,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는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 구체적 자료에 입각한 진지한 조사활동을 하여 합의를 도출한다. 다만 합의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조사활동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최종결정을 하며, 합의 당사자는 이에 따른다"는 문제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만약 12월말까지 불교계와 건설업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건교부가 기존의 노선대로 공사를 진행시킨다면 북한산 국립공원 내 31개 사찰은 폐사와 이전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 노선을 채택하더라도 불교계는 이번 합의안에 묶여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연말까지 합의 안되면 '기존노선 강행' 우려
환경영향평가서 불교계·건설사 공유를
불암·수락산 구간 협의대상 포함시켜야

이에 대해 조계종 환경위원장 현응스님은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들이 대안노선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이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기간 내 정부, 건설업계와 함께 대안노선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박진석 국장도 "불교계가 무분별한 건설사업으로부터 자연과 국토를 지켜냈다"며 "불교계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친환경적 개발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8월말까지 발족할 조사위원회의 구성도 역시 문제다. 친환경적인 환경전문가를 발굴해 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해도 대규모 국책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앞으로 불교계와 정부, 건설회사는 별도의 모임을 갖고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단 시간에 최적의 노선을 찾기 위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기본조사 자료를 불교계와 건설회사가 공유하는 부분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합의가 결렬되고 건교부가 기존 노선을 고집한다면 결국 북한산 문제는 대통령 선거 등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야할 전망이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친환경적 개발공약이나 북한산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얻어내 차기 정권에서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8월 9일과 10일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한나라당·민주당 대통령 후보 면담에서 긍정적인 답변들이 제시됐다는 점은 북한산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합의문에서 빠졌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불암산·수락산 관통도로 구간(제5공구)과 관련 문제다. 북한산 관통도로는 불암산·수락산 관통도로와 연결돼 전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구성하고 있다. 때문에 불암산·수락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대안노선 채택이 쉽지 않다.

따라서 불교계와 환경·시민단체들은 남은 4개월 동안 북한산 관통도로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면서 불암산·수락산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다만 북한산의 경우와 달리 사찰 피해규모가 적기 때문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딜레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박태화 위원장은 누구인가



지현정사는 "박태화 위원장은 평소 말수가 없지만 남한 인사들을 항상 정갑있게 대해주신다"며 "종교대표로서 위엄을 갖춘 분이기도 하지만 북한사회의 비중있는 인사"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919년생으로, 본명은 박태호이다. 35년 보현사 강원 학인으로 입학하여 출가했다. 법명은 학림. 41년 백운사와 52년 보현사에서 수행했다.

박 위원장은 58년 인민경제대학 국가건설대학부 졸업하고 59년 불교도연맹 함경북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어 70년 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79년 5월 5일 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현재까지 맡고 있다.

북한불교 최고지도자 … 보현사서 출가

8·15민족통일대회 참가 차 방한한 박태화(사진)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불교계 최고 지도자이다. 이 뿐 아니라 조선종교인협의회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으로 북한 사회에서 빠지지 않고 항상 주석단에 앉는 원로로 대접받고 있다.

북한을 몇 차례 방문한 진각종

8·15합동법회 왜 반쪽행사 됐나

정부, 외부행사 자제요청 … 北대표 참석 안해

16일 조계사에서 열린 8·15 남북합동법회가 북측인사는 한 명도 참가하지 않고 남쪽인사만 참가한 반쪽행사로 봉행됐다.

이는 2002민족통일대회 참석차 분단이후 57년 만에 방한한 박태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이 남한에서 최초로 개최한 조계사 법회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북대표단 외부행사 자제입김이 강한데다 경호상 보안상 이유로 주최 측은 불교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종단협과 조계종은 이번 합동법회에 박 위원장등 조불련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민족통일대회 주최 측인 민화협 등 단체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합동법회 계획은 없었다"고 밝혀 불교계와 상충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박 위원장의 불참에 대해 민족통일대회에 불교계 대표로 참가한 한 스님은 "이번 2002민족통일대회가 '만남' 이외에는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행사였다"며 "7대 종단이 단체위주의 민화협 통일연대 등과 행사를 같이하다보니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조계사 합동법회가 반쪽행사로 열린 것은 결국 당국이 경호상의 이유로 행사를 지나치게 통제하면서 정치적 색깔이 나오지 않는 법회에 까지 참석 못하게 하면서 벌어진 일로 분석된다. 또 7대 종단, 민화협, 통일연대 등의 불협화음도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위덕대 군종사관후보대학 지정 문제

이견

7월말 진각종이 위덕대의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학 지정을 청원하는 공문을 조계종과 국방부에 발송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위덕대학 법인설립 주체인 진각종과 조계종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본지 382호 2면 기사 참조>. 양 측의 입장과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해본다.

진각종 법률적인 문제없고 군포교 위해 필요

조계종 승적·교리 다를 경우 혼란초래 소지

●진각종 추진 배경= 개신교와 천주교에 비해 뒤지고 있는 군포교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종단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따라서 위덕대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학교법인 설립 종단으로서 불교학과 학생들에게 진로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작용하고 있다. 또 하나는 위덕대와 종단의 군승 지정을 통해 종단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조계종 왜 반대하나= 조계종이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조계종 승려 외에 다른 종단이 군승을 파송할 경우 교리나 의식 등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30년 넘게 가꿔놓은 군포교 현장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진각종이 들어오겠다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군인사법상 '정사'(조계종 비구 개념의 진각종 스승)는 군종장교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계 일각에서는 군 포교 기득권의 일부분을 진각종에 넘겨줄 수 없다는 인식이 실질적인 이유가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논점은 무엇인가= 두 종단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이 문제는 승적문제, 서로 다른 교리와 의식, 진각종의 군포교 기여 여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이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승적 문제다.

진각종이 요구하는 것은 위덕대의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학 지정과 진각종의 군승 파송 종단 지정 두 가지다.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위덕대의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학 지정은 불교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조계종 승적을 가지고 군승으로 파견되는 것이고, 진각종을 군승 파송 종단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진각종 승적으로 군승활동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진각종 승적을 가진 위덕대 졸업생의 군승임용이 가능해지며, 진각종이 바라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조계종은 위덕대 지정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96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군승 자격요건을 조계종 승려로 못 박고 있다. 이는 위덕대 지정은 검토 가능하나, 진각종을 군승지정종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뜻한다. 따라서 승적문제 외에 진각종이 군승에 한해 조계종의 의식과 교리를 따르겠다는 것이나 최근 몇 년 새 군포교 발전에 기여한 측면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법률적 문제는 없는가= 현행 군인사법 제12조에는 군종장교의 대상을 목사·신부·승려로 명시하고 있고 병역법 제58조에서도 군종장교의 지원 자격을 이와 똑같이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진각종 '정사'가 승려에 포함되는가이다.

조계종은 '정사'를 일반적 개념의 승려로 볼 수 없으며, 원불교의 교무가 군승으로 파송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각종은 종단협의회에 가입해 있는 이상 '정사'도 승려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종단협 일원이 아닌 원불교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망= 진각종은 교계 여론이 유리한 만큼 조계종과 최대한 협의를 하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이 문제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군승 지정 승인은 국방부 소관이지만 국방부가 조계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상 독자적으로라도 군승 파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조계종과 진각종의 입장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없다. 금명간 조계종이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종전의 방침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종단간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바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_?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요!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쉽지만 강력한 마음스킨 여행 – 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요
해산아바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바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정아출판사
www.chungabook.co.kr 전화 337-3485(대) FAX 336-2381

외로운 가을, 당신의 마음에 달라이 라마의 행복이 밀려옵니다



달라이 라마의
아주 특별한 선물

달라이 라마 지음 | 강주헌 옮김 | 산국판 변형 | 값 8,500원

"사랑하는 마음과 연민의 정을 키웁시다!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친구처럼 대하십시오.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충고가 무척이나 간단한 것이지만 이 충고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한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존재, 심지어 우리에게 악의를 품은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두려워하며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에게도 행복해지고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만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실로 걱정해주십시오. 우리 친구를 걱정해주듯이 우리 적을 걱정해주십시오. 이때서야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달라이 라마가 조금의 가식도 없는 순수한 연민으로 삶의 연륜, 상황, 역할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팔만한 조언들을 담았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호탕한 웃음까지 터트리면서 달라이 라마의 진심어린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살아 있는 부처, 달라이 라마가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전하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일주문



백혈병환자에 치료비

법장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은 13일 백혈병을 앓고 있는 간종대 씨의 아내 연경옥 씨에게 치료비 4백 30만원을 전달했다.



금하효행상 시상식 거행

송암 안성 도피안사 주지는 18일 도피안사 대웅전에서 제2회 금하효행상 시상식을 가졌다.



동방불교대 교학처장에

법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은 14일자로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에 임명됐다.



'종교의 폭력성 · 평화' 강연

현각 영주 현등사 주지는 29일 서울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종교의 폭력성과 평화'를 주제로 강연한다.



나가자불자회장에 추대

김정길 나가자불자회 고문은 11일 분당 원명사에서 열린 '제7차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됐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에 한 보현행보살 5억원 기탁



◇사진 오른쪽부터 학교법인 보문학원 이사장 덕해 스님, 목정배 총장, 한 보현행 보살.

70대 노보살이 불교학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거액의 장학금을 내놔 화제다.

그 주인공은 한보현행 보살(본명 한명숙 · 74)로 지난 16일 폐암투병 중인 서울 원자력병원 병실에서 5억원을 서울불교대학원대학(총장 목정배)에 기부했다.

보현행 보살은 "20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 온 목정배 교수가 이 대학의 초대 총장으로 부임해 기쁘다"며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이 불교계를 이끌어 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하는데 이 돈이 잘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은 불교전문 대학원으로 다음달 2일 개교식을 개최한다. (02)808-3321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불교복지 새 전형 보여줄 것"

천수천안 봉사단 사단법인화 홍선 스님



"단순히 포교차원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불교복지의 새로운 전형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지역 사찰과 불자들의 자원봉사 연합단체인 '천수천안 자원봉사단'(이하 천수천안)을 창립했던 고양시 불교사회연합회장 홍선스님(사진)이 천수천안의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천수천안은 20여 고양시 사찰들이 지역사회 포교 및 보살행 실천

빠르면 내달 법인등록 마칠 계획

의 뜻을 모아 발족한 불교자원봉사단체로, 일산병원과 국립암센터, 지체장애 특수학교인 한국경진학교에서 간병, 행정업무, 특기분야 등의 봉사활동을 벌여왔다. 천수천안은 특히 창립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회원수가 300여명으로 늘었고, 전문자원봉사자 교육과정까지 마련하는 등 질과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홍선스님은 빠르면 9월에 법인등록을 마칠 생각이며, 사단법인화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될 경우 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의 복지프로그램 공모에도 나설 수 있고, 업무협조도 손쉬워지는 등 대외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월 개원예정인 동국대 일산병원을 포함해 활동처를 더 늘리고, 봉사분야도 더 넓혀 불자들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통해 생활불교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봉사활동과 신행, 그리고 생활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불교복지모델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한명우 기자

"고속철문제 종교인 힘 결집"

'생태사회 위한 종교인 밤' 개최한 정여 스님



"모든 생명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종교를 초월, 모든 종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고민과 논의가

가을께 화합 위한 체육대회 등 준비

이루어진 뜻깊은 밤이었습니다.""

14~15일 삼랑진 여여정사에서 열린 '생태사회를 위한 종교인의 밤'을 개최한 종교인대화아카데미 공동대표 정여스님(여여선원장 · 사진)이 밝힌 행사 소감이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기독교 대표 김상훈 목사를 비롯 허성신부, 지율스님 등 불교, 천주교, 원불교 성직자들과 회원 20여명이 참여했다.

정여스님은 "이제는 종교화합이라는 말조차 필요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성직자들이 모여 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환경이나 생태를 위한 종교인의 역할 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행사의 의미를 정리했다. 또한 "고속철 금정산, 천성산 관통반대를 위해 힘을 결집키로 하고 지식인 1천명 서명 받기, 각 종교계 최고 지도자들의 공동 대응 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종교대화운동의 실천과제,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각 종교 명상법 체험 등으로 진행됐고 오순절 평화의 마을 방문으로 회향됐다.

가을쯤 종교인 체육대회와 열린 음악회를 준비중인 정여스님은 "부산종교인대화아카데미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종교간 공감과 화해를 이끌어 내는 주역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부산= 천미희 기자



불교TV 부산방송사장 취임법회

불교TV 부산방송은 14일 초량동 해봉빌딩 6층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신임 사장 정암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 이수덕 불교TV 사장 등 2백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정암스님은 "일심으로 불교TV의 발전에 힘을 쏟아 정법을 온 누리에 전하는 매체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위안부역사관 개관 4돌 기념식

나눔의 집(원장 능광)은 14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개관 4주년 기념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순덕 할머니 등 위안부할머니들과 나눔의 집 상임이사 원행스님,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을 비롯해 한명숙 여성부장관,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장,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2백여 명이 동참했다.



세계최대 108염주 봉안법회

남북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제작된 세계최대 108염주 세벌 중 한 벌을 남한에 봉안하는 법회가 봉행됐다. 12일 태고종 원주 치악산 관음사(주지 정오)에서 열린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염주제작자 재일교포 임관지 거사를 비롯 최무애 스님(재일본 조불련 대표)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동산불교대 제21기 입학식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스님)은 10일 수송동 교육회관에서 최봉수 교수(동국대) 김재일 이사장(동산반야회) 등과 150명의 신입생이 참석한 가운데 제21기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학장 무진장스님은 "오늘의 한국불교를 바르게 공부하여 열심히 포교하는 역군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임기중 유소년 포교에 역점"

한국불교교화원 신임이사장 구관 스님



"대중 포교 중 어린이 · 청소년 포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불교적인 분위기에 익숙한

독서실 활성화 · 유아원 설립 계획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불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기 중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사)한국불교교화원 신임 이사장 구관스님(사진)은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유소년 포교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신월7동 양천 구립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유아원 설립 볼사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4층으로 이루어진 교화원 1,2층에 유아원을, 3층에 요사채, 4층에 법당, 지하에 교화원 사무실과 회의실을 준비할 예정이라는 구관 스님은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독서실 지하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무료 급식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지난 7월 16일에 있었던 이사장 선출에서 1표 차이로 신승해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해서도 "원로 스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부 화합과 단결을 위해 각 부처 운영진 임명에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구관스님의 이사장 취임식은 8월 18일 북악파크호텔에서 前 이사장인 성도스님 이임식과 함께 열렸다.(02)964-8044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불교공부 열심히 해 전법 나설 터"

동국대 수시모집 최고령 합격자 성 현 씨



예순을 훨씬 넘긴 노 보살이 2003학년도 동국대 대학입시 1학기 수시 모집에서 합격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불교계 추천 전형으로 불교대학에 입학한 성현(67 · 사진)씨다. 성씨는 "불교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후 포교당을 지어 전법도량으로 키워나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충북 괴산 태생인 성 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한국전쟁이 일어나 진학을 포기했다. 하지만 독학으로 98년 고등학교 검정고

포교당 지어 보시하는 것이 꿈

시에 합격했고, 다섯 번 도전 끝에 올해 대입 검정고시에도 붙었다. "불교 공부를 하는 게 꿈이어서 다른 대학은 생각도 안했다"는 성 씨는 "여러 번 떨어진 것도 '인연'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70년도인가, 우연히 조계사 일요법회에 참석한 게 계기가 돼 법회마다 찾아다니며 큰스님들 법문을 듣기 시작했다"는 성 씨는 "'삼독을 멸하면 부처가 되느니라'는 가르침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제 자신을 돌아보려 애쓴다"고 말했다.

성 씨의 꿈은 "불자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묻고 배우며, 실천할 수 있게끔 이끄는 포교당을 지어 보시하는 것"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성 씨는 마음이 급하다. "당장 컴퓨터도 배워야 하고, 졸업하려면 3급 한자능력 검정시험, 토익 공부도 해야 한다"는 성 씨는 "남들이 한 번 할 때 두번, 세번 …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법사과정(3년)

능엄경 대강좌



송찬우교수

⊙출가수행자 뿐아니라 재가수행자들도 한번쯤은 꼭 독파해야할 경전 능엄경!
지행합일의 실천수행의 경전, 선학, 교학,밀교를 융합시킨 경전을 송찬우교수께서 시작합니다.

- 楞嚴十義 -

① 色 { (일곱군데에서 마음이 있다고 진술함) (어덤 가지 듣려보내는 예를 통하여 견을 밝힘)
② 受 { (근원으로 돌아가 한가지로 쉬) (세계와 인간을 분석하여 설명함)
③ 相 { (여섯 가지가 섞리면 곧 하나마저도 없어짐) (25명이 그들의 원통을 저마다 선택하여 피력함)
④ 行 { (능엄주의 持誦 과 묘용을 설함) (보살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단계들을 설함)
⑤ 識 { (수행하는 데에서 오는 장애는 모두 오음에 의한 망상임) (그망상을 세밀하게 50가지로 나누어 설함)

1. 개강일시 2002년 9월 10일(화)오후 2시
2. 과 정 정규반 · 통신반
3. 원서교부및 접 02) 732-1206~8

동산불교대학 부설 어학강좌(1)

영어로배우는 불교



조길문교수

21세기 세계 공용어는 영어로 불교인들도 국제화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영어불교를 알아야 합니다

◎ 일 시 2002년 9월 11일(수) 오후 7시 개강
◎ 과 목 부처님 생애 · 교리 · 깨달음의 길
◎ 교 수 조길문교수(승가대)

동산불교대학 부설 어학강좌(2)

산스크리트문법및 강독



최종남교수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의 원전을 공부하기 위한 산스크리트 강좌

◎ 일 시 2002년 9월 13일(금) 오후 2, 7시 개강
◎ 과 목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벳어
◎ 교 수 최종남교수(승가대)

불교한문학과 (9월12일 (목)오후 7시개강

명심보감 · 논어 대강좌



김병조교수

▣정규반 · 통신반

과 목	· 한문법(1), 한문법(2) · 명심보감, 장자, 주역, 논어 · 발심수행장,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육조단경
교수진	· 심재동 교수(동국대), 한정섭 법사 · 송찬우 교수(승가대), 무진장 스님, 김병조 교수

불교미술학과 (9월11일 (수)오후 2 시개강

과 목	· 단청, 사천왕, 8부중, 팔상성도, 보살상, 부처상 · 영산변상도, 정토변상도, 화엄변상도
교수진	· 윤열수 교수(동국대) · 김익홍 교수(전동국대)

우리춤학과 (9월11일 (수)오후 4시개강

과 목	· 우리춤기본, 승무기본 · 작법기본, 북과장단기본
교수진	· 이애주 교수(서울대교수) (중요 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예능보유자)

원서접수 및 접수문의 02)732-1206~8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1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가을반)
2.교육장소	동산 법당 (동산불교회관)
3.개강일시	2002년 9월 4일(수요일) 오후 7시
4.교 과 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 학 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 2매)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전문연구원**

불교 교육 전문 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732-1207
인터넷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전국교사불자련 하계수련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10~12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1백여 교사불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하계수련회를 가졌다. '불교의 사회참여'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현각스님(소찍새마을 원장)의 '불교와 사회복지', 주경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의 '교사불자의 신행생활', 임완숙 회장의 '불교와 환경' 특강이 마련돼 교사불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했다.



부산경찰청 법당개원 1돌법회

부산지방경찰청 불교회(회장 고행섭)는 4일 무궁화법당 개원 1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는 경승 정여(여여선원) 성각 스님(망운암)을 비롯 50여 경찰불자들이 동참했다. 무궁화법당은 지난해 8월 개원 이래 하루 평균 50여 불자들이 참배, 기도하는 등 부산경찰청 불자들의 신행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석불회 마천마애여래입상 친견

한국석불선양회(회장 이귀인)는 10~11일 실상사 새벽예불과 함양 마천마애여래입상(보물 제375호)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50여 동참자들은 "자연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삼라만상이 함께 어울리는 불국토 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어 벽송사와 서암정사를 찾아 불설아미타경을 독송하며 신심을 다졌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이젠 공부·수행하는 불자로"

직장직능단체들 '내실있는 신행회' 조성 주력

성지순례등 기존행사 변형 참여유도

"함께하는 수행프로그램 개발 시급"

'이젠 공부하고 수행하는 불자가 되자.'

직장직능 단체내에 공부·수행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직장불교 활성화와 내실있는 신행단체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국에 400여 단체가 활동할 정도로 직장직능 단체들의 수는 1999년 이후 급격히 늘었다. 올 한해만 20여 단체가 새롭게 창립, 직장직능 단체 증가 붐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직장직능 단체들은 회원들의 참석율 저조와 낮은 호응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직능 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강한 반면 식상한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교육 부재, 재적사찰 활동 등으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직장불자들의 법회를 지원하는 지도법사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추대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여법한 신행활동 지도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조계종 포교원에서는 지도법사 추천, 법요집 발간, 임원 교육 등 간접적으로 직장직능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들의 신행활동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직장직능 단체들도 각 단체별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해결책 모색에 나서고 있다.

철도청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의 환경법회, 한전본사 반야회의 야간을 이용한 성지순례, 대전·경북 공무원불자들의 템플스테이 체험 등 기존 프로그램을 변화시켜 직장불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경찰청 불교회, 서울은행 불교행우회, 경산조폐창 금강회 등은 기초교리와 경전을 공부하거나 정기적으로 철야정진 등 수행을 통해 신심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직장직능 단체들의 변화 시도는 일부 단체에 머물러 있다.

직장 신행단체 관계자들은 교리학습 체계 수립과 신행프로그램의 다양화, 관심있는 지도법사 임명 등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이를 바탕으로 사내게시판을 이용한 정기적인 학습, 매주 한차례 이상 교리 또는 경전강독, 수행 및 경전강독 모임 결성, 매주 참회문 또는 발원문 작성 등을 실천함으로써 공부·수행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스스로 공부·수행하고자 하는 직장직능 불자들의 강한 의지는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한다.

경찰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진홍 포교사는 "직장직능 단체들은 일회성 법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계획성 있는 교육과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수행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직장단체임원 의식집전교육

조계종 포교원, 27일부터 서울 법련사서 4차례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서울·경기지역 직장직능 신행단체 포교부장 등 임원들을 대상으로 의식 집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집전교육은 직장직능 신행단체의 법회 활성화와 안정적인 법회 진행, 법회의식의 통일화 등을 위해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 사간동 법련사에서 열린다. 강사로는 포교원 신도국장 주경스님이 나서, 불교의식에 대한 이해와 목탁치는 법, 예불·정근·각종 법회 집전방법 등을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 교육한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의식 집전교육은 직장법회 진행에 큰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조계종 포교원 조양희 신도주임은 "회원만으로 자체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직장직능단체의 원만한 법회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할 계획"이라며 "여법한 법회의식이 될 수 있도록 집전교육에 참가해달라"고 말했다. (02)720-7060

영호남 산악인불자들

화해·화합의 합동산행

영·호남 산악인불자들이 오랜 지역감정의 벽을 넘어 화해와 화합을 다짐하는 합동산행을 가졌다.

광주불교산악회와 부산불교산악회, 영남불교대학산악회는 11일 경남 남해도 망운산을 찾아 합동법회와 등반 행사를 개최했다. 산행에 동참한 200여 산악인 불자들은 화해의 악수, 화합의 포옹을 통해 '이웃임과 동시에 같은 길을 가는 도반'임을 확인했다. 이들은 화방사 참배와 상주해수욕장에서 한마당 잔치를 열기도 했다.

이날 합동산행은 광주불교산악회와 부산불교산악회가 98년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교류를 가져온 데다가 지난해 영남불교대학 산악회가 이에 동참해 성사됐다.

광주불교산악회 박종원 사무국장은 "영·호남 산악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눈 의미있는 자리였다"면서 "합동산행을 정례화해 영·호남 불자들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대구·부산·광주불교산악회 불자들이 화방사에서 합동법회를 열고 기념촬영한 모습.

불교기초교리서 발간

전남도청·경찰 불자들

전남지방경찰청을 비롯한 광주 5개 경찰서와 전남도청 불자들이 직장불자를 위한 〈불교 기초교리〉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 일대기, 불자예절 및 상식, 신행방법과 절차, 근본불교 등 160쪽 분량에 다양한 내용이 실렸다. 향림사의 후원과 전남공무원, 경찰불자들의 성금을 모아 초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 책자는 29일부터 매주 목요일 도청회의실에서 혜향스님(향림사)의 강의로 열리는 기초교리 강좌 교재로 활용된다.

어려운 이웃 돌보는 '불자회'로

경남도청불자회 신임 송호룡 회장



"직장생활이 바쁘더라도 주변의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불자회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다보니,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밀양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홍삼식 前 회장의 바톤을 이어받은 송호룡(55·건설도시국 지적과장·사진) 경남도청불자회장 불자의 기본적인 도리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데 있다고 강조하는 송 회장은 "매일 만나고 부딪치는 직장동료들에게 환한 웃음을 보시하는 일은 작은 일이지만 큰 마음을 나누기 위한 전제가 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불교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의 회원 가입과 초발심을 낸 회원들의 가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9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지만, 창립 1돌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800여명에 달하는 도청 직원에 비하면 너무 작은 인원이기 때문. 도청불자회의 활동이 경남지역 시·군 공무원 불자회 활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도 회원확대에 나선 한 이유다.

평소 남해도 불교연구에 관심을 가져온 송 회장은 남해도에는 특별히 미륵불과 연관된 성지가 많다고 귀띔한다. 퇴직 후에는 팔만대장경 판각성지로 부각되고 있는 남해도 불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대장경 판각성지 남해도 입증 계획

우리 모임에선

부산시청불자회 적멸보궁 참배

부산시청과 7개구청 불자들은 8월 24~25일 오대산 상원사, 사자산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 등 3곳의 적멸보궁을 참배한다. 속박지인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특별정진법회를 열 예정이다. 사하구청 법우회는 13일 오후 7시 당리동 관음사에서 8월법회를 갖는다.

경산조폐창 금강회 해인사서 수련회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회장 윤종우)는 24~25일 해인사 문수암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이번 수련회는 108참회, 1080배, 참선 등 참회와 정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수련회를 회향하는 25일에는 해인사 성보박물관을 둘러볼 예정이다.

유니텔 불교동호회 수계법회

유니텔불교동호회 부처님나라는 24~25일 경북 봉화 축서사에서 수계법회를 갖는다. 축서사 주지 무여스님이 계사로 나서는 이번 수계법회에는 회원 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참석할 수 있다. s1bud1@unitel.co.kr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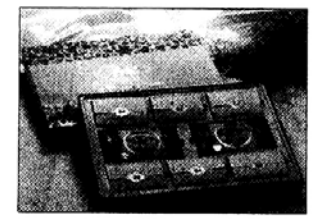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매당되는 증상에 (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8월-용맹정진의 달
· 헤태심의 극복
· 날마다 발심하기
· 정진의 방편
· 쉼없는 수행

정진의 방편



◇지난 6월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법화경 사경대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한 자 한 자에 마음을 모아 정진하고 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다. 깨닫는다는 것은 이 우주의 실상을 바로 알아차려 마음에 낀 때를 벗겨내고, 본래의 마음자리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본래의 마음자리를 찾기 위해 많은 이들이 세속의 욕망을 끊고 출가수행을 하고, 또 많은 이들이 생활 속에서 가행정진을 하고 있다.

하안거 기간 동안 서울 도봉동 광륜사 시민선원에서 매일 참선 수행을 해 온 정혜승씨(서울 도봉구 방학동). 정진의 방법이다. 회사까지 40여분 가는 동안 〈금강경〉 일독은 자연스레 이뤄진다.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금강경〉 독송은 계속된다. "하루 종일 회사일로 어지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불자로서의 본분을 자각하는 방법으로 금강경 읽기가 적당한 방법인것 같다"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생활과 정진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만 명심한다면 굳이 선방이나 절을 찾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정진할 수 있다. 참선, 염불, 사경, 주력, 참

'생활과 정진' 둘 아니게 실천해야

참선·염불·사경·봉사 등 방편 다양

편으로 참선수행을 택해 지난 3개월간 자신의 마음자리 찾기에 매달렸다. 남편 아이들 뒷바라지에 짬을 내기가 쉽지 않지만, 하루 2시간, 잠시나마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불자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일상을 지탱해가는 힘을 얻었다. 정씨는 하안거가 끝난 후에도 계속 참선 정진할 생각이다.

회사원 김경진씨(인천 남구 주안동)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금강경〉을 읽는다. 타종교 신자들이 지하철에서 성경책을 읽는 것을 보며, 나는 왜 불경을 저렇게 당당하게 읽지 못하는 걸까 자책하다가 결심을 하고 시작한 정진의 회, 지계, 간경, 봉사 등 현재 생활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결연한 의지와 적극적인 실천으로 정진의 힘을 몸소 느껴보자.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방일을 스스로 금하고 능히 물리쳐 여질게 된 이는 이미 지혜의 누각에 올랐으니 위태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다"고 하였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적합한 수행 방편을 택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본래 마음자리를 찾아가는 깨달음의 길에 나서자.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정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불자의 삶이다.

이은자 기자

신행 캘린더

8월 21일 (수)

■'관조스님 사진전' = 청주박물관 기획전시실은 '관조스님(범어사) 사진전시회'를 31일까지 마련한다.

사찰 주변의 아름다운 산하를 자연스러운 시선으로 포착한 작품 25점을 전시하는 이번 행사는 도시인들에게 시원한 청량제가 될 것이다. 관람료는 무료 (043)255-1632

8월 23일 (금)

■용진신행회 '성지순례' = 용진신행회가 한국 불교 선맥의 고향인 문경 봉암사를 찾아가 참배하는 성지순례를 마련한다.

신라 헌강왕 때 지증대사가 창건한 봉암사는 신라 말기 9산 선문 희양산파(曦陽山派)의 중심지. 수많은 보물급 불교문화재를 간직한 봉암사로 떠나는 이번 성지순례의 출발은 오전 6시 30분 을지로 5가. 참가비는 2만5천원 (02)2279-1191

8월 25일 (일)

■연화복지원 '위빠사나 명상교육' = 한국 유일의 미얀마 사찰인 '미얀마 선원' 주지 산디마 스님이 지도하는 '위빠사나' 강좌.

산디마 스님은 위빠사나 수행에 관심많은 한국 불자들을 위해 매달 마지막 일요일 오전 11시 광림사 법당에서 강좌를 진행 중이다. 무료.(02)2202-5831

■두레생태기행 '문화답사' = 산깊은 마을의 절집을 찾아서….

두레생태기행이 경북 김천 직지사와 수도사, 청암사 등을 둘러보는 문화답사를 마련했다. 직지사는 보물 319호 석조약사여래좌상, 보물 606호 3층석탑, 보물 607호 비로전 앞 3층석탑 등 수많은 불교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출발은 오전 7시 지하철 양재역. 참가비는 3만5천원 등(02)712-5813

8월 26일 (월)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불교의식 전수' 과정=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

범음·범패·작법 등 불교의식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통해 직접 배우는 기회가 마련됐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은 인천지정무형문화재 제10호 범패와 나비춤 기능 보유자 일초스님이 지도하는 1년 과정과 2년 과정의 불교의식 전수 과정을 마련했다. 접수 마감은 24일. 개강은 26일 오후 3시 서울 화곡동 다원빌딩 내 불교종합예술대학.(02)3665-8067

■대구 동화사 '백고좌법회' = 동화사가 파계사 영산율원장 철우스님을 초청해 '관세음보살의 수행법' 주제의 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백고좌법회는 철우스님에 이어 혜능(해인사 율원장) 성열(강남포교원 주지) 호진(전 동국대 교수) 지관(가산불교문화원장)스님 등을 법사로 모시고 10월 27일까지 계속된다.(053)982-0101

8월 27일 (화)

■부산불교신협 '고산스님 초청법회' = 부산불교신용협동조합이 개점 10주년을 맞아 하동 쌍계사 조실 고산스님 초청 법회를 오후 2시 불교신협 건축사회관 12층 강당에서 봉행한다.

'양심 따라 행동하면 지계, 마음의 벽 허물면 저절로 평화…' 라고 강조하는 고산스님을 통해 불자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알아보자.(051)633-9120

■수원포교당 '금강경 이야기' = 모양으로 부처를 보지말고 진리로서 존경하며, 모든 모습은 모양이 없으며 이렇게 본다면 곧 진리인 여래를 보게 된다.'

수원포교당 거사회가 오후 7시 30분 수원포교당 관음전으로 묘주스님을 초청해, 금강경에 담겨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무료.(031)245-9670

"합창단은 음성공양·신행 밑거름"

우리 절 우리 신도

선학원 중앙선원 유정혜성 합창단장



◇30년을 한결같이 선학원 중앙선원에 다니고 있는 유정혜성 보살(맨 왼쪽)은 요즘도 법회 때마다 음성공양에 앞장선다.

30년 신도…절 살림 내집일 같이 챙겨

"법당 청소년 불자들로 가득 찼으면…"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에 자리잡은 선학원 중앙선원(주지 성중)은 근현대 한국 불교사에서 남다른 위치를 갖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도심 사찰과 다름없어 보이는 중앙선원에는, 멀게는 만해 한용운 스님을 비롯해 가까이는 석주 스님에 이르기까지 많은 큰스님들이 주석하며 수행했다. 1921년 조선불교 선학원 설립 후 3년 뒤 생긴 부인회관은 도심 속 재가불자들의 수행도량인 시민선방의 모태가 됐고, 지금도 면면이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일까. 선학원 중앙선원에는 유난히 몇 십 년씩 중앙선원만 고집하고 다니는 불자들이 많다. 합창단장을 맡고 있는 유 정혜성(63) 보살 역시 마찬가지다. 결혼 후인 30대 초반부터니까 30년이 넘었다.

"그때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었는데, 시댁 어른들을 따라왔다 큰스님들 법문이 너무 좋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괴롭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큰스님들 법문이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내 탓이다' '내가 더 좋은 일을 해야겠다' 고 나를 다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흥에서 선학원을 오가던 버스 노선이 없어지면서, 같이 다니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다른 절로 옮길 때에도 유 보살은 중앙선원을 떠나지 못했다. "흘륭한 스님들이 많이 거쳐간 곳이기도 했지만 내 집같이 편안하고 포근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다니기 쉬운 다른 절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끼다 보니 자연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사중의 크고 작은일까지 챙기게 됐다. 그러다 보니 봉사활동도 빠뜨릴 수 없다. 군부대나 고아원 위문 공연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도 공연은 아니지만 부모 없는 아이들이 모여 사는 강릉 자비원을 다녀왔다. 합창단은 일년에 두번씩 생활 형편이 좋지 않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무엇보다 정혜성 보살은 '합창단은 단순히 음성 공양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신행의 밑거름' 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법회 마치고 한 시간씩 찬불가를 부르다 보면 신도들 간에 단합도 잘 된다"는 정혜성 보살은 "합창단 활동을 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절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공양주 일을 비롯해 절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혜성 보살에게도 요즘 말못할 고민이 있다. 60대 불자들도 '신심' 하나로 합창단 일에 적극적이지만 지금 합창단원 25명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라는 점 때문이다. '실버 합창단' 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제일 속상하다는 정혜성 보살은 "40대 이하 젊은 불자들이 많이 참여해야 합창단뿐 아니라 신도회 활동이 활성화될 텐데…. 젊은 분들이 많이 좀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때까지는 합창단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예순이 넘은 요즘도 법회 때마다 음성 공양을 빠뜨리지 않는 유보살은 선학원 중앙선원이 시민선방의 명성 못지 않게 신도회 활동도 더 활성화됐으면 한다. 유보살은 "불교가 활성화되는 길은 청년이나 어린이들이 절을 많이 찾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요즘은 절에 올 때마다 법당 안에 어린이나 젊은 불자들이 넘쳐 나기를 부처님께 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추천의 말

성중스님 선학원 중앙선원 주지



일제 침략기인 1920년대 문을 연 선학원 중앙선원은 시민선방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 도심 속 수행 공간으로, 지금도 50여 명의 재가불자들이 참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선방이 도심 속 수행도량으로서의 중앙선원을 보여준다면 합창단은 신행의 가장 든든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혜성 보살은 30년을 한결같이 선학원에 다니고 있는 대표적 불자입니다. 합창단을 직접 창립했고 10년 넘게 단장을 맡아 꾸려오고 있습니다. 비단 법회 때의 음성 공양뿐 아니라 사중의 크고 작은 일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다른 불자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표나지 않는 작은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허드렛일까지 마다 않는 정혜성 보살 같은, 신심있는 불자들이야 말로 중앙선원을 이끌어 가는 힘입니다.

구담사 양력 9월 8일

봉태아 〈낙태, 유산〉 영아 영가 49일 천도재 행

증명 : 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저희 구담사에서는 태아 영가 천도 도량으로써 매년 49일 천도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태아 영가 천도재는 잃어버린 태아(낙태, 유산)영가를 천도하는 것이다. 천도하는 의미는 그 영혼이 남은 가족에게 악연을 맺지 않기 위함이요, 참회하는 마음이다. 태아 영가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참회 기도로 경전을 독송하고 사경기도로 업장소멸과 함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낙태가 얼마나 무서운 악연을 쌓고 있음을 깨우쳐 주는 의미에서 낙태아 천도재를 동참합시다.

기도영험

■태아영가 기도 방법
· 스님하고 49일간 영가 천도재 동참하여 기도한다.
· 사경 및 주력으로 기도한다.
· 부부가 함께 참회기도 하는것이 좋다.
· 태아영가는 조상영가와 같이 천도재는 하지 않는다.
· 기도할때는 아기야 미안하다고 하고 참회기도 한다.
· 최소한 7회이상 태아영가 천도재를 하는것이 좋다.
· 기도할때에는 아이가 살아있는 생명처럼 생각하면서 지극히 기도한다.
· 준비물 : 분유(우유), 사탕, 과자, 쵸코렛, 쵸코파이, 장난감, 신발, 양말 등등

◉ 입제일 : 양력 9월 8일(음력 8월 2일 일요일)
◉ 회향일 : 양력 10월 27일(음력 9월 22일 일요일)
◉ 태아영가제사 : 입재(9월 8일) 3재(9월29일) 5재(10월13일) 7재(10월27일) 지냄
◉ 대중교통안내 : 동서울 터미널 → 일동 상봉터미널 → 연곡4리 하차 수유리(4호선) → 일동 → 구담사
◉ 구담사 버스 운행 : 입재, 3재, 5재, 7재만 운행
· 장소 : 오전 8시까지 - 강변역 테크노마트 주차장 입구(정일관광)
◉ 기도금 : 49재 기도 동참금 (10만원)
◉ 위패비 : 태아영가 1위당 (5천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 217-01-0339-914 농 협 : 225050-56-033370
※ 금년 대학 입시생, 취업, 사업자는 기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태아영가 기도 접수만 받습니다.
※ 지방신청도 가능하오니 위패 관계로 미리 접수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 : 031)533-2855 팩스 : 031)532-2441
총무보살 마하심 : 02)446-6101, H.P 011-391-6101

대한불교 조계종 구 담 사
◆ 주소 :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 4리 595번지

이혼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가 교육생 모집

현대사회의 변화속도 만큼이나 한 가정의 해체, 즉 부부간의 이혼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해체는 부부간의 문제를 넘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은 작은 견해차부터 심각한 갈등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지만, 그 주된 원인은 평등한 부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이뤄지는 그릇된 대화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긍정적 언어표현을 통해 부부간에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해주고 부부정체성을 확인한다면, '이혼'이라는 심각한 폐해를 예방하고 또한 가족관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이혼예방을 위한 전문상담원' 교육을 통해 한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체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더불어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상담원이 될 수 있는 전문상담원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 상 : 가정폭력관련 상담가 및 사회복지사 포교사, 전문상담원 교육 이수자
◆일 시 : 2002년 9월 2일, 3일 - 9월 9일, 10일(4회 20시간)
◆장 소 : 만해교육장 ◆인 원 : 30명(선착순)
◆수강료 : 5만원 (한빛은행 : 098-088769-01-501 /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문 의 : 02)738-5586, 5568 / 팩 스 : 02)738-7576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1. Basic course(기본과정)

시간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9월 2일(월)	강 사	9월 3일(화)	강 사
10:00~12:30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박정애변호사 (여성합동 변호사법인)	가부장 제도와 여성인권	이영애교수
	1.성 가정폭력법 해설		1.가족구도와 가치의 변화	
12:00~13:00	9월 2일(월)	이동원교수 (이화여대)	점 심 시 간	이영애교수 (건국대법학부)
13:00~15:30	1.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2.가족보다는 나의생활, 결혼시기도 내마음대로	

2. Advanced course(심화과정)

시간	아내학대 발생과 원인 치료 상담			
	9월 9일(월)	강 사	9월 10일(화)	강 사
10:00~12:00	가정폭력 배경과 원인	이자헝교수 (이대간호학과)	분노조절 다루기	안귀여부교수 (고대심리센터)
	1.아내학대 발생과 원인 2.폭력의 조기 발생성		1.부정적 감정 다루기	
12:00~13:00	점심시간	황경숙선생 (여성의전화 전문상담원)	점 심 시 간	이영진교수 (김영애가족치료 연구소)
13:00~16:00	1.폭력의 유형 - 폭력 후 강제성관계		2.부부의 갈등 및 외도 - 인지행동적 접근	



불교대학을 찾아서

⑨ 익산불교대학



◇익산불교대학장 지장스님(사진 왼쪽)이 2000년 9기 졸업생들에게 졸업장을 주고 있다.

초등학교교장 경험 불교대학운영 회향

6기졸업생 김한철 포교사



"평생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얻은 경험을 불교대학 운영에 바치고 싶습니다."

42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종사한 김한철(사진) 포교사는 96년 익산불교대학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불교공부하는 한편 97년 제3회 포교사 고시에 합격해 활동 중이다.

정년퇴임을 한 99년부터 지장스님을 도와 익산불교대 사무처장과 천천마한클럽 사무총장, 108사찰 순례단 단장등을 겸임하며 익산불교대학 불자들을 이끌고 있다.

"익산불교 되살리자"발원, 91년에 대학설립

후원이사제 도입 지역공동체와 함께 운영

졸업생중심 '천천마한 클럽' …실천불교 모색

미륵사지 등 찬란한 불교 문화가 살아 숨쉬는 백제의 고도 익산. 익산은 백제불교의 역사와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해 왔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백제 불교의 찬란한 전통도 빛이 바랜 상태다. 전국 도시 중 2~3번째로 높은 개신교인 비율, 익산을 중심으로 한 원불교의 발전 등에 가려 익산 불교의 모습은 밝은 편이 아니다.

타종교의 기세에 눌려 침체된 전북 불교를 안타깝게 여긴 지역 불자들이 익산 불교를 되살리자며 발원한 것이 익산불교대학(학장 지장, 관음사 주지) 태동의 계기다. 91년 당시 도심포교당인 관음사 주지를 맡고 있던 일화스님(전 조계종 사회부장)은 이러한 불자들의 뜻을 모아, 관음사 내에 익산불교대학을 개설했다. 현재 불교대학이 사용 중인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은 98년에 완공된 것.

91년 익산불교대는 150여명 불자의 신청을 받아 불교 교육을 시작, 92년에 첫 졸업생인 91명을 배출했다. 93년부터 불교과와 법사과로 학제를 확대 개편했고 현재는 12기생들이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다.

40여 명인 익산불교대 12기생들은 지난 1학기동안 〈불자의 자세와 행동〉 〈사찰과 성보문화〉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적인 삶〉 〈반야심경〉의 다양한 영역을 금산사 총무국장 일화스님, 동학사 강주 일초스님과 지역 포교사인 이원일, 이택회 포교사 등을 통해 배웠다.

익산불교대학은 3년전부터 독특한 운영 방법을 시험하고 있다. 당시 관음사 주지로 갓 부임한 지장스님은 익산불교대학을 지역 공동체가 함께 운영하는 불교대학으로 바꿔놓았다. 이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후원이사제도'다.

익산 지역 사찰, 불자들에게 익산불교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후원이사를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후원이사제도의 골자. 재정 마련을 물론,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후원이사회가 수행하도록 해, 불교대학은 재정 안정화를 달성하고 투명성을 재고하게 됐다. 또한 익산불교대학이 지역 사찰의 신도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함으로써 익산 불자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익산불교대학만의 또다른 특징은 천천마한클럽. 천천마한클럽은 올해 초부터 익산불교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원봉사 모임이다. 1천명이 매일 1천원씩 모아 익산 지역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을 돕자는 취지로 간든 모임으로, 현재 회원은 600여 명 정도다.

천천마한클럽이 발족하게 된 것은 단순히 불교공부를 하는 것보다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낫다는 지장스님의 생각 때문. 스님은 불교대학 졸업생들에게 노인정, 고아원,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할 것을 권하고 있다.

현재 천천마한클럽 회원들이 모여 매달 첫째 월요일 법회를 봉행하고, 산행, 108사찰 탐방을 전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r-mok@buddhapia.com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지하단칸방 생활 14년 앉은뱅이 할아버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한쪽다리 절단 · 침수피해 3번 죽을고비

아내는 심장병, 두아들 집나가 소식끊겨

감옥살이, 벌써 2년째다. 창살과 간수만 없지, 감방이나 다름없다. 발밑에는 요강, 그 옆엔 휴지….

김태억 할아버지(70), 한 쪽 다리가 없다. 두 팔이 다리 역할을 대신한다. 시쳇말로 '앉은뱅이', 이것이 김 할아버지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이다.

재작년 6월, 김 할아버지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다. 멀쩡하기만 했던 다리였다. 가끔 저렸던 것을 관절염 때문일 거라고 막연히 믿었다. 하지만, 다리는 새카맣게 타들어갔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찾아갔던 병원, 급히 절단해야만 살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만을 들었다.

"어이없이 다리를 잘라냈어. 그때 생각만 하면 기가 막혀. 마취가 풀리자 잘린 다리를 보며 '이제 병신이 됐구나!' 하고 한탄만 했지. 잘린 다리를 의사가 보여줄 땐 억장이 무너지더군."



◇잘린 다리의 허벅지를 매만지며, 수해현장을 보도하는 텔레비젼을 보고있다.

기막힌 사연은 또 있다. 보증금 6백만원에 월 10만원의 사글세 지하 단칸방, 이곳에서 14년을 살면서 침수피해만 세 번을 당했다. 지난해에도 방안은 온통 물난리였다. 하수관이 역류해 갑자기 물이 들어 닥친 채, 목까지 차올랐다. 물위에 동동 뜬 채로 손이 발이 되어 가까스로 헤엄쳐 빠져나왔다. 아내는 식당일하러 나간 바람에 도와주는 이도 없었다. 죽음, 눈앞을 스쳐지나가는 듯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길가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 차라리 왜 그 때 살았나 싶어. 그저 다리 잘리고 즉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사실, 김 할아버지는 아내도 있고 아들도 둘이나 있다. 젊었을 땐, 자동차 공장 경비일을 하면서, 남들 먹고 사는 만큼은 살았다. 그러나 30년 전부터 아내 이삼분씨(66)가 앓고 있는 심장병과 척추병은 집안 살림을 언제나 쪼들게 했다. 동네 사람들은 아내의 '송장'을 치를 준비를 하라며 난리들이었다. 그래도 일을 제쳐 두고 아내의 간병에 매달렸다. 지금은 아내가 조금 나아져 병원에 힘겹게 약 타러 다닐 정도는 된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아내의 수발을 기대조차 못한다. 이러다보니 마흔 다 돼서 얻은 아들 둘은 초등학교 졸업으로 만족해야 했고, 쪼들리는 가정 형편은 아들들을 가출케 했다. 지금은 연락도 없는 아들들. 김할아버지는 오히려 '속 편하게' 산다며 쓴 미소로 고개를 내저었다.

매달 정부지원금 30만원으로 이들 노부부가 한달 생계를 꾸려간다. 하지만 공과금이며 솔솔치 않게 들어가는 생활필수품 구입에는 항상 빠듯하다. 더더욱 끼니며 빨래며 살림살이는 아내 이씨가 힘겹게 하고는 있지만, 김 할아버지의 목욕, 수발에는 힘이 부치다보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리모콘을 집어든 김태억 할아버지, 바깥세상과 유일하게 통하는 통로인 텔레비전을 켠다. 틀자마자 수해속보가 생뚱맞게 방안을 울려댄다. 전국이 온통 물난리라는 소식, 눈을 못 뗀다. 지난해 여름일이 생각난 걸까? 김태억 할아버지의 마음은 또다시 심란해진다.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307-65 지층

전화번호 : (02)912-1526

후원계좌 : 주택은행 436325-95-105176(예금주 : 김태억)

김철우 기자

시인 김홍성의 네팔사는 이야기



〈9〉 룽다

산촌에 펄럭이는 마음 파고드는 '깃발'

빛바래고 해졌지만 기다림 · 희망 담겨

히말라야 산골의 불교도 마을에는 '룽다'라고 부르는 깃발이 나부낀다. 산자락이 워낙 넓고 깊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래 전에 잊었던 그리운 손짓처럼 룽다는 우리의 마음을 파고든다.

푸르르르… 푸르르르… 문풍지 우는 소리를 내며 하늘 높이 펄럭이는 룽다, 비에 젖은 채 깃대에 감겨 침묵하고 있는 룽다, 부드러운 바람과 햇살 속에서 파초 잎처럼 느린 춤을 추는 룽다, 오랜 세월 풍상에 시달린 끝에 하얗게 색이 바래고 귀퉁이가 닳아져 나간 룽다….

사바 세계에 살면서 피안을 꿈꾸는 자들에게 룽다는 어쩔 수 없는 그리움의 표상이다. 기다림이며, 인고와 체념인 동시에 희망이다. 저마다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행복이 역겨워서, 행복 같은 것 없이 맘 편하게 사는 길을 찾아 나선 자들의 담담한 희망이다.

지금도 히말라야 산골에서는 얼마나 많은 룽다가 일몰을 만나고, 밤을 보내고, 다시 아침을 맞이하는지 모른다. 잔스칼에서, 라홀 스피디에서, 칸첸중가 남쪽 산록에서, 랑탕 히말과 가네시 히말에서, 그리고 히말라야 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티베탄 난민촌에서, 저마다 다른 수많은 룽다들이 슬프고도 아름답게 펄럭인다.

룽다가 맨 처음 내 눈에 들어온 때는 10여 년 전 겨울 아침, 네팔의 랑탕 히말과 가네시 히말 사이에 있는 티베탄 난민촌이었다. 밤중에 내린 폭설이 판잣집 지붕을 하얗게 덮었는데, 그 눈이 낙수가 되어 방울방울 주렴처럼 빛나는 처마 밑에 마을 사람들이 쪼그리고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어른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다.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다. 티벳에서 설산을 넘어왔다는 노인들도 있었다. 모두가 한결같이 여위었고, 헐벗었으며, 더러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들의 미소는 슬프도록 맑았다. 그런 사람들과 풍경을 싸안고 원경을 이룬 언덕 위의 낡은 사원에서는 젖은 룽다들이 문풍지 우는 소리를 내며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룽다가 펄럭이던 그 마을 티베탄 난민들처럼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것만으로 족했던 시절이 있었다. 피붙이들끼리 붙어 앉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나는 히말라야를 방랑한 것이 아니라 그립고 간절한 무엇이 뒤죽박죽 파묻혀 버린 추억 속을 방랑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방랑이었기에 룽다는 내가 가는 길 어디서나 펄럭였던 것이리라.

불가의 비법과 선인의 비전을 합방한 기적의 신물질!

"화림한방화장품"은 자연의 순수 한방약재를 주원료로 하여 고대 동양 미인들이 애용하던 주안술을 이용하여 당사 연구진이 개발한 특허출원 준비중인 제품이다.
생약성분에서 추출한 기적의 신물질 "전단물질"이 미백효과, 피부 노화방지, 기미 및 각질제거, 주름제거 등 각종 피부고민으로 부터 여성을 해방시켜주며 모든 여성들을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 부드럽고 보송보송한 피부, 항상 촉촉히 젖어 있고 윤기있는 피부로 가꾸어 준다.

출시 품목 (화장품)

◆ 한방에센스 크림 ◆ 한방베이스 크림 ◆ 한방미백크림
◆ 한방 아이크림 ◆ 한방 영양크림 ◆ 한방 밀크, 스킨 로션

출시 품목 (비누)

◆ 서시한방비누(여드름 제거용) ◆ 옥용한방비누(피지 제거용)
◆ 수다라한방비누(미백용/클린싱 크림효과)

세계 각국 특허 출원 준비 중

불자로써 화장품 및 비누 사업에 참여하실 분 (소자본 가능 / 재택 근무 가능)

HR herbal medicine Cosmetics (주) 화림한방화장품
www.hrcos.com

전국지사◆대리점모집

"화림한방바이오"의 제품들은 불가 선사의 문중으로부터 전수받은 "법제와 구증구폭"의 비법을 현대의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생산하였다. 다이어트 식품은 식사를 즐기면서도 살을 줄일 수 있고 요요현상이 전혀없으며 다이어트 최대 난제인 복부비만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장을 청소하여 인체의 체지방을 제거함으로써 비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 또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게 하며 몸의 가뿐함을 만끽할 수 있다. 선식은 성인을 위한 건강식, 청소년을 위한 영양식, 유아를 위한 이유식으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효능도 있어 일석이조의 새로운 개념의 선식이다.
향은 천연향으로 제조되어 악취제거, 공기정화 기능이 탁월하여 제사용으로 뿐 만 아니라 가정, 사무실, 고시원 등 일상 생활에 널리 이용할 수 있다.

출시 품목 (식품 / 향)

◆ POINT24 – 최상의 다이어트 식품(식사를 즐기면서...)
◆ 달마선식 – 다이어트 식품 겸용 건강선식
◆ 화림비향 – 새로운 개념의 향, 먹을 수 있으면서 피우는 향

세계 각국 특허 출원 준비 중

불자로써 다이어트 및 건강식품 사업에 참여하실 분 (소자본 가능 / 재택 근무 가능)

HR herbal medicine Bio (주) 화림한방바이오
www.hrbio.com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254-16 Tel : 053)313-2711~15 Fax : 053)313-2716

박영재 교수의

첨단 과학과 불교 ⑩



그림 · 문병성

분석학(糞石學)과 간시궐(幹屎橛)

현대인들은 대부분 '똥'하면 '더럽다'느니 '구리다'느니 하는 분별을 일으키며 가까이 하기를 꺼려한다. 하지만 첨단과학 분야 가운데 '분석학(Coprology)', 쉽게 풀이해 인간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각양각색의 똥을 대상으로 그 속에 담긴 진실을 밝히는 학문 분야가 있다. 현대인들은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배변의 중요한 요소인 '대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다루기로 하겠다. 대변(大便: 배변 후 크게 편안함을 느낀 데서 유래한 중국식 용어라 판단됨)은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 식도, 위장, 대장 등 우리 몸의 장기를 거쳐 다시 몸 밖으로 배출되어 나오는 것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 몸 안의 상태를 낱낱이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다. 배변의 횟수와 굵기, 굳기, 끈기가 정상적이라면 우리 몸이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나, 배변 시 불편함을 느끼고 대변이 평소와 다르다면 우리 몸 어디에선가 비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체로 성인병은 인류가 농경사회, 산업화 사회를 거쳐 지식화 사회가 되면서 사냥과 같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서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평균적인 50대 회사원의 하루 생활을 살펴보면, 칼로리 소모량이 1,500Kcal에 불과하나 섭취량은 3,000Kcal에 이른다. 반면 대변으로 나가는 열량은 500Kcal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1,000Kcal가 고스란히 몸속에 쌓여간다. 이런 하루하루의 생활이 5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비만증, 고혈압, 심장병 등 성인병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소식다동(小食多動)'이 성인병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한편 '무문관' 제21칙에 똥과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공안이 있다. 운문(雲門) 스님에게 한 스님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운문 스님이 "간시궐(乾屎橛: 일자로 곧게 뻗은 마른 똥덩어리)"이라고 답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물음은 교학적이고 철학적인 성스러운 '부처'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다. 수행자의 경우는 자각체험으로서의 '부처'를 물어 이것을 체득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운문 스님의 답변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하다. 단지 '간시궐!'이었다. 사실 이때 운문 스님에게 있어서 그 자신이 '간시궐'이었던 것이다. 이 자리에는 깨끗하다느니 더럽다느니 하는 분별이 들어갈 틈이 없다. 그 후 간화선 수행 체계를 확립한 대혜(大慧) 선사는 그의 저서 〈서장(書狀)〉에서 '조주무자' 다음으로 '간시궐'을 크게 활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여랑중(呂郎中)에게 답하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제자를 이끌어 주고 있다. "운문 스님께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란 물음에 '간시궐!'이라 하신 화두를 자세히 살필지니 다만, 이 화두를 들어 홀연히 기량이 다할 때에 문득 깨달으리라. 하지만 문자를 찾아 인증하고 어지러이 헤아려 주해함을 간절히 꺼릴지어다. 비록 그렇게 주해하기를 분명히 하며, 완벽하게 설명했다 하더라도 모두가 귀신의 살림살이니라." 즉 머리로 헤아려 '성스럽다'느니 '더럽다'느니 하는 이원적 분별심이 끊어져 버린 때에 이르지 않으면, 깨달음에 이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편 무문 선사는 이 화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짧은 게송을 통해 간발의 차이를 두지 않고 '간시궐!'이라 답변하며, 성스럽다는 '부처'란 분별을 송두리째 뽑아버린 운문 스님의 역량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

대변은 48시간전에 먹은 음식물 찌끼
상태통해 식탐 등 공양수행 점검 가능

번갯불의 번쩍임이나 부싯돌의 불꽃은 (閃電光 擊石火)
(순간을 놓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볼 수 없게 되네. (目乏得眼 已蹉過)

참고로 비록 직접 부처를 체득케 하는 운문 스님의 '간시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현대인들에게 '똥'의 진가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신간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의 세계적인 해양생물학자이자 인문학자인 랠프 레윈이 저술한 〈똥〉(이소, 2002)은 누구나 궁금해 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몰랐던 '똥'을 아주 별난 에세이 형식으로 기술했는데 전설, 모양, 냄새, 변기, 인공 대변, 건축 재료로서의 쓰임새, 심지어 영양가까지 똥을 둘러싼 매우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고대 멕시코인들은 진짜 황금을 '신의 똥'이라고 불렀다는 내용은 운문 스님의 '간시궐'과 비교해 음미해 볼만한 대목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필자의 경우, 이른 아침에 향 한 대 타는 시간 동안 좌선을 한 후, 어김없이 상쾌한 배변을 한다. 이때 필자의 화두는 30초 이내에 배출된 필자의 '습시궐(濕屎橛)'이다. 대개 대변은 48시간 전에 먹은 음식의 산물이므로 이를 통해 이틀 전에 식탐은 없었는지 등 음식 관련 수행 상태를 잘 점검할 수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시궐'의 점검과 더불어 '날마다 좋은 날'을 체득해보시지 않겠는가!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yjpark@ccs.sogang.ac.kr

이렇게 들었다

"화목할수록 장수한다"

부부의 수명

"능히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저절로 오기 마련이다."(아난무사불기 흉경)

남편이 가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부인은 온순하며 남편에게 의지하는 화목한 부부가 상대적으로 장수한다고 12일 독일 일간지 빌트 차이퉁이 보도했다.

미국 예일대학 의학자들이 6년 동안 305쌍의 노년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부간 상호관계와 기대수명'을 조사한 결과, 온화한 전통적 부부가 가장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남편이 가정 내외의 문제에 관해 부인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남성 우월적 사고로 가득찬 이른바 '마초'일 경우 다른 유형의 부부에 비해 남편의 수명이 가장 길었다. 또 남편이 생활의 지주이자 조력자이며, 주요 결정권을 행사할 경우 부인 역시 평균치보다 약간 더 오래 살았다.

반면 공처가와 강인한 부인이 결합한 경우 남자의 기대수명이 가장 짧으며, 남녀 모두 강인할 경우 전통적 커플에 비해 부부 모두 상대적으로 일찍 죽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부부 장수의 비결은 '가정의 화목'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잡아함경〉은 가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하느니라."

부부간은 서로의 거울이며, 자신을 이루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 때 의지할 곳은 여전히 따뜻한 가정, 특히 반려자의 품이다. 늘 부부간에 서로 뜻을 모아 말과 안색을 화평하게 한다면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회사일로 지친 남편에게, 빠듯한 살림살이로 고생하는 아내에게 오늘 저녁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부터 건네보자. 장수하고 싶다면.

禪과 21세기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㉒

지금 법문을 듣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름과 말에 집착하므로, 저 범(凡)이니 성(聖)이니 하는 이름이 장벽이 되어 도안(道眼)을 가로막게 됨으로써 분명하지 못한 것이다. 12분교는 모두 도를 드러내는 말일 뿐인데, 배우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도를 드러내는 말 위에서 알음알이를 내니, 이는 모두가 의지하는 짓이라서 인과에 떨어져 삼계의 생사를 면하지 못한다. 그대가 살고,죽고,가고,머물고,집착하고,벗어남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바로 지금 법을 듣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모양도 없고 뿌리도 없고 머무는 곳도 없이 활발하게 인연에 응하여서 수만 가지 경계를 펼치지만, 작용하는 곳은 없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구할수록 더욱 어긋나니, 이름 하여 비밀이라고 한다.

승찬은 "도는 어렵지 않으니 취하고 버리고 헤아리고 선택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였고, 마조는 "평소의 마음이 그대로 도이니 더럽혀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였다. 마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생각'과 '말'이다. 말은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은 말은 낳는다. 말을 통하여 생각하고 생각을 통하여 말을 한다. 그러나 말과 생각은 마치 풍경화나 정물화같이 그 내용이 실재가 아니라 허구이다. 즉 우리는 실재의 겉모습을 그린 허구를 통하여 실재를 알려고 하는 나쁜 버릇을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 왔다. 이렇게 길들인 습성 때문에 마음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道란 모양·뿌리·머뭄 없이 작용

마음공부는 말과 생각에 의지해서는 결코 올바른 효과를 맛볼 수 없다. 도리어 말과 생각이야말로 마음공부에 가장 큰 장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말과 생각에 의지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마음공부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순간을 살아라'하고 말한다. 말과 생각이라는 그림이 의식 속에서 완성되는 데에는 짧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그림을 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림을 그려내는 손놀림에는 그림이 없듯이, 지금 말하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는 말과 생각이 아직 허구의 그림이 아니다. 그림의 살아 있는 지점은 바로 그림을 그려내는 손놀림이듯이, 말과 생각의 살아 있는 지점은 바로 말하고 생각하는 행동이다.

이처럼 마음은 말과 생각이 아닌 행동을 통하여 체험함으로써 확인되는 것이다. 그 행동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아직 말과 생각으로 파악되고 통제되기 이전에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바로 지금! 마음은 생각과 말에 포장되어 가리워지기 이전의 바로 지금 행동에서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의 움직임 위에서 모든 느낌 · 관념 · 욕망 · 말 · 의식 등이 나타나고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의 움직임이야말로 이 세계와 삼라만상의 근거요 원천이다. 그러므로 오직 이 움직임만이 진실이고, 이 움직임 위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느낌 · 관념 · 욕망 · 말 · 의식 등은 허구이다. 이 진실한 움직임을 가리켜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들어낼 뿐이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이 움직임이란 사물의 이동을 염두에 둔 말이 아니다. 이동하여도 이 움직임이고 이동하지 않아도 이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이 움직임은 억지로 움직임이라고 말할 뿐, 움직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옳지 않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박사 선어록 강좌 안내
부산무심선원·매주 토요일 오후(2~5시). 수원 경기불교문화원·매달 1.3주 일요일 오후(1~4시) 문의 011-9520-0054(이정화)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오계 Five Precepts

After the Buddha Sakyamuni attainted enlightenment, at first men and later women, attracted by his teaching, decided to follow him. They left their homes and joined the order that thus grew up around the Buddha. The men and women who chose this way of life accepted to try to live according to five precepts.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남자와 여자들이 그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를 것을 결심한다. 따라서 자신의 집에 머물며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부처님 주위에서 생겨나게 되었다. 재가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다섯 가지 계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Not to kill life 불살생
Not to take anything that is not given 불투도
Not to commit adultery 불사음
Not to lie 불망어
Not to take intoxicants 불음주

전국 육임(六壬)강의 안내

오행하는 사람이라면 **을·기·임(乙·奇·壬)**이란 말은 다 알고 있습니다. 天文(천문)은 太乙, 지리(地理)는 奇門, 인사(人事)는 六壬이라는 것이지요.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五術之中帝王**」이요, 「**神示**」라고도 합니다.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하락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한 육임가의 판단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도(道)를 이룬다고 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활인천역(活人天役)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방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 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입시·선거·구재·취직·승진·매매·임신·가출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육임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것입니다.
한국 육임학회에서는 이 좋은 육임을 전국적으로 개강(開講)시켜 방방곡곡에 계시는 **현인·기사·이인** 여러분에게 육임의 진수를 알려드리고자 전국 주요도시에 「**육임학당**」을 개설합니다.
아래 장소를 보시고 편리한 곳을 택하여 육임에 입문하십시오. **법력과 신명과 도력에 있어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육임학당 「**효사숙**」 제3기 02-998-8683
육임학당 「**일경숙**」 제1기 02-2203-4805
육임학당 「**복경숙**」 제1기 02-3446-4118
육임학당 「**부산숙**」 제1기 011-883-8347
육임학당 「**대구숙**」 제1기 016-580-6654
육임학당 「**전주숙**」 제1기 011-650-8835
육임학당 「**수원숙**」 제1기 011-9189-9399
육임학당 「**인천숙**」 제1기 011-729-6011
육임학당 「**청주숙**」 제1기 011-492-2376
육임학당 「**광주숙**」 제1기 011-9606-7090
육임학당 「**원주숙**」 제1기 017-377-7005
육임학당 「**대전숙**」 제1기 016-445-4580
육임학당 「**시흥숙**」 제1기 011-326-8374
육임학당 「**제주숙**」 제1기 064-743-3703

■ 개강 : 2002년 9월 6일 금요일(효사숙 기준)
■ 시간 : 매주 1회 4시간(각 학당별로 일시가 정해짐) 13주 52시간
■ 교재 : 효사육임강의록
■ 비용 : 일백오십만원(효사육임강의록 포함) ■카드결제 됨.

한 국 육 임 학 회
육임학당 **효 사 숙**

■활인전문천역자용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W1,500,000(휴대용)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W1,300,000(좌정용)
●효사 육임강의록 W300,000
●효사 육임비디오 강의수강(총28개) W900,000
■각종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주문전화:02-993-8680 ▶부산지사:051-851-2349 ▶서울강남지사:02-2203-4805 ▶입금계좌: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목어

부끄러운 불교인



그날은 청계산 등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차장 출구로 향하던 때였다.

출입구에서 관리인들과 어느 운전자가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그 운전자가 끄는 차는 신형 그랜저에 왕방울 염주를 보기 좋게 걸고 있었다. 운전석 위 백미러에.

결국 그 사람은 관리인들의 저지로 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갔다. 출구를 나오기 전에 관리인에게 사연을 물어 보았다. 호기심이 반 정도였고, 어느 높은 사람이 와서 호통을 치며 싸운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출입을 위해 줄 서 있는 많은 차들을 무시하고 새치기로 입장하려던 차였다. 관리인들이 제지하자 감히 누굴 제지하느냐고 호통도 치고 욕설도 서슴지 않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주차관리인들에게 잘했다고 격려를 해주고 나왔다.

그러나 화끈거리는 얼굴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랜저 백미러에 걸려있던 왕방울 염주가 눈에 선했기 때문이다. 생각하건대, 어느 졸부가 와서 주차관리인들을 아랫것들이라 생각하고,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많은 등산객들을 무시하고 새치기 주차를 시도했으리라.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좋은 고급 차종을 몰고 다니고, 특히 염주를 보아하니 부처님의 복을 제법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절에서는 십중팔구 기복 이외에는 배운 것이 없었을 것이다. 불자임을 표시하는 큰 염주를 달고 다닌다고 해도, 그렇게 후안무치한 행동을 한다면 결코 제대로 된 불자라고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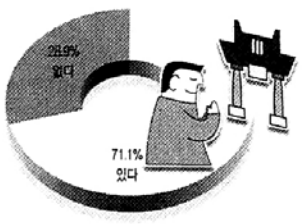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의식을 성숙시키고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시키는 것이 사찰과 불교도의 사명이리라. 만일 나에게 배운 불교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복과 혼백을 파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전하고 당당한 불제자를 키우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

그날 주차장에서의 일은 나에게 부끄러운 부처님의 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타산지석이 되었다.

차차석(동국대 역경위원 · 본지 논설위원)

불자의 생각

원찰



대부분의 불자들은 신도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법회에 나가는 원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5명이 동참한 붓다

"신도등록 · 법회 정기적 참여" 71.1%

뉴스 네티즌 설문조사에서 32명(71.1%)이 이같이 응답을 했다. 그러나 13명(28.9%)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찰이 있다면 몇 곳인가 라는 질문에는 21명(56.8%)이 1곳, 14명(37.8%)이 2곳, 2명(5.4%)이 4곳 이상이라고 답변해 대부분의 네티즌 불자들이 평균 1곳 정도의 원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식 기자

불자 세상보기

청정국토 유지 불교가 앞장서야



이병인
밀양대 교수
환경공학과

녹색연합이 최근 발표한 한국 환경질 10년 변화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환경질이 더욱 나빠져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거나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녹색신호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등 9개 지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적인 변화추이를 보이는 적색신호는 도시화율, 폐암 사망율 등 13개 지표,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는 노랑신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6개 지표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정부의 정책결정에서 늘 경제와 정치적인 논리가 환경보다 우선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결국에는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직도 지속가능한 개발이 구호로만 그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개발계획의 수립시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나 환경친화적 개발을 목표나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설계나 시행단계에서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유로 실제적으로는 무시되고 있다.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가 지금 불교계 최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문제와 경부고속철도의 금정산 · 천성산 통과 문제이다. 이 두 문제는 몇가지 면에서 공통적인 특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두 문제 모두 불교계가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21세기 한국불교계의 최대 불교환경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마지막 자연의 보고인 산을 관통하고 파괴하는 공사라는 점이다.

1600여년간 한국불교가 지켜온 산과 절은 이제 사찰의 산문에 쓰인 것처럼 하나가 되어 산을 지켜 왔다. 그러기에 개발로 인한 산의 파괴는 단순한 산의 파괴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교계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번의 문제들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한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마지막 자연유산인 산을 지키는 일이고, 불교라는 종교의 명맥을 되살리는 일이다.

그동안 불교가 지키고 가꿔온 우리의 유산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고, 국보 ·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에서 국립공원지역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해 놓고, 이를 파괴하는 개발행위를 정부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금의 환경은 불교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의식수준은 이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지켜가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을 간직한 불교계가 앞장서서 지켜가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어찌보면 사회에서 포기되고 끝난 사안이라 하더라도 무모한 사업추진과 정치적 흥정의 산물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불교계도 자연 · 문화유산을 지키겠다는 명분과 실리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산과 금정산 · 천성산의 문제는 이제 한국사회에 있어서 한국불교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도를 판별할 수 있는 상징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후 한국불교계의 수행가풍을 점검할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이제부터라도 한국불교계가 한국의 환경을 지키고, 가꾸어가는 시대적 역할을 통하여 삼세의 청정한 국토와 수행가풍을 유지해가기를 고대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 다람살라 탐방기 (上)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은 7월 25일~8월 2일,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인도 다람살라를 다녀왔다. 스님은 달라이 라마와 깜툴 린포체, 요기 독땐 암틴 등을 만나 법담을 나눴으며, 왕궁 사찰, 도서관, 티베트 난민수용소 등을 방문했다. 스님의 다람살라 탐방기를 2회에 걸쳐 싣는다.

"끝없는 思惟 · 수행통해 성불에 이르는게 불교"

첫 대면 달라이라마와 진지한 대화

"학문 · 수행엔 논장이 더 중요 한국방문하게 되면 기증할것"

"텐찐깜초 따시델레(달라이 라마 안녕하세요)"

7월 29일 오후 2시,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산맥의 기슭에 위치한 인도 다람살라 왕궁 사찰. 정확한 시간에 맞춰 나온 달라이 라마는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도반(道伴)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합장을 하며 나와 바로 손을 굳게 잡으며 반갑게 맞아 주었다. 환한 얼굴과 빛나는 눈동자, 우렁찬 음성, 격의 없는 대화로 이내 편안해졌다.

달라이 라마는 필자의 가사 장삼을 만지면서 한국의 현이 아주 시원하겠다며 부드럽게 대화의 서두를 열고 동국대의 역사와 현황을 물었다. 그리고 불교대학에서는 어떤 과목을 주로 공부하며 어학은 어떠한 것을 수업하는가를 물었다. 불교학, 인도철학, 선학과에서 공부하는 과목들과 범어, 빨리어, 티베트어를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달라이 라마가 65년에 티베트 대장경 한 질을 동국대에 보냈다고 하기에, 현재 도서관에 잘 보관하여 모시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자 그것은 대장경 정장이고 실은 학문이나 수행에는 논장이 더 중요한데 다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논장을 기증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불교는 신심만으로 되는 종교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분석 사유하며 자신의 번뇌망상을 뽑아내는 수행을 통하여 성불에 이르는 종교"라며 교학체계와 수행체계를 통해 마음이 완전한 반야(般若), 즉 공(空)의 상태를 체득하여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무릇 부처님을 믿는 돈독한 신앙이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반야사상을 철저히 공부하여 부처님의 근본이념을 체득하고 용수의 중관사상으로 이론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마음 속 깊이 잠재해 있는 집착과 분별 등 번뇌망상을 토론과 분석과 깊은 사유를 통하여 완전히 비워버려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비나야(戒律)를 항시 마음에 굳게 새겨 몸소 실천 수행함으로써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해야 된다는 것이다.

현재 다람살라의 티베트 불교수도원에서는 반야부 경전을 7년, 중관사상을 3년, 비나야를 2년 공부하여 도합 12년 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제도는 완전한 이론과 수행을 함께 실천하는 철저한 교육체제라고 생각된다. 마침 필자가 학부에서 인도철학을 하고 대학원 석 · 박사과정에서 용수의 중론(中論)을 연구하였기에 중관사상에 관한 토론을 많이 나누었다.

달라이 라마는 현세를 사는 사람 중 세계 각국의 권력자와 지식인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으로 티베트의 독립과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는 정신적 지도자이다. 지난 봄 정치적인 업무는 대부분 총리에게 이관하고 법왕으로서 관정과 수계법회 등 종교의식만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법산스님이 7월29일 다람살라 티베트망명정부 왕궁사찰 접견실에서 달라이 라마(왼쪽)와 법담을 나누고 있다.

편안하기 그지없는 얼굴은, 비록 나라를 잃은 망명정부를 이끌고 있지만 국가의 통치자인데도 14대로 인간의 몸을 받아 출가 수행자로 다듬어진 과정인지 모든 고뇌가 다 끊어진 것 같은 인자하고 밝은 기운이 가득했다.

2시간이 어떻게 가버렸는지 모를 정도로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갔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방한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자, 달라이 라마는 49년을 기다렸는데 다시 49년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한국에 꼭 오고 싶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접견실을 나와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었던 링 린포체의 전생상을 친견했다. 금생에 22번째 환생한 링 린포체의 전생인 21번째 모습이었다. 신기하게도 많이 닮아 보였다. 링 린포체는 한국과 많은 인연을 갖고 있다. 7살 때 한국에 방문해 서울 구룡사에 머물면서 여러 곳을 참관하였고, 지난 봄에도 일산 여래사에 머물며 동국대를 방문해 정각원에서 법회를 열기도 했다. 지금은 남인도 수행처에 머물고 있어 만날 수 없었지만, 직접 전생의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고 환생이 사뭇 신기하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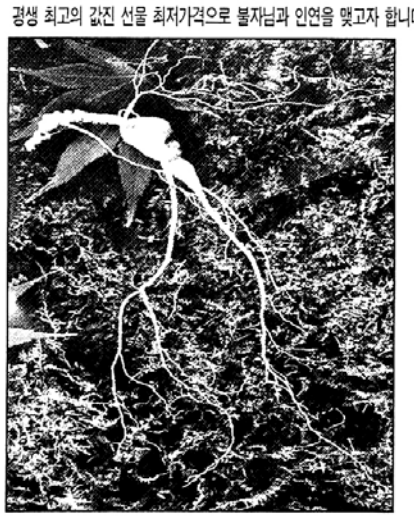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의 편안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그 모습은 정말 관세음보살의 화현을 대하는 것 같은 자비가 넘치는 분위기였다. 친견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문과 수행에 전념해 온 필자의 입장으로는 참으로 거룩한 만남이었다. 하지만 망명정부의 왕궁사찰 계단을 내려오는 필자의 발은 왜 그리 무거웠는지….

법 산(동국대 정각원장)

元 · 氣 · 回 · 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敬賀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최근 중국산오가피를 북한산이나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적발된 업체들이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는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오직 국내에서 재배한 국산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국내최대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칠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며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 입니다.

사진 확인하셨습니까?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문의전화 (02)454-3733

"他카스트 불자끼리 결혼 추진"

印 대규모 개종식 준비 수레스 보드 YBS회장

지난 5월과 6월, 인도 북부 우따르 쁘라데스, 비하르, 자르칸드 3개주(州)의 여러 마을에서는 조용한 개종의 물결이 일었다. 9개 군(郡)에서 12차례에 걸쳐 열린 개종식 행사에서 모두 120000여명이 불자로 거듭났으며, 요즈음도 포교활동과 개종식 준비가 계속되고 있다. 개종식을 주관한 단체는 인도청년불자회(Youth Buddhist Society of India: YBS). 석가족을 중심으로 뜻있는 불자청년들이 의욕을 가지고 포교활동과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에는 다음 개종식을 준비중이던 YBS 지도자가 브라만들의 충격으로 희생당함으로써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 최근에는 수도 델리에 지부 설립을 진행중이며, 오는 10월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어머니 마야부인과 천인들에게 법문을 하고 하강하셨다는 상카시아에서 대규모 개종식(10만여명 참석 예정)과 불교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델리지부 설립 관계로 델리를 방문한 YBS 회장 수레스 보드(Suresh Boudh)씨를 만나 YBS의 활동 및 석가족 개종운동에 대해 들어보았다.

◆YBS의 활동에 대한 본인의 평가는.

"올 해 내가 한국에서 귀국한 이후 보다 체계적으로 각 마을 단위로 조직을 만들고, 개종식을 준비했다. 5계 수계를 계기로 힌두교도들이 부처님께 귀의하게 돼 기쁘다. 기존의 '이름뿐인 불자'들도 불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YBS는 대다수가 석가족 출신들로 이루어졌다. 타 카스트에 대한 편견은 없는가.

"우리는 다른 카스트 출신들을 환영한다. 이번 개종식에서도 개종자들 중 약 20%는 타 카스트 출신이었다. 그 중에는 브라만도 있고, 이슬람교도였던 사람들도 있다. 카스트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다른 카스트 출신 불자들끼리의 결혼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미 4쌍의 부부가 탄생했다."

◆총격사건으로 포교활동과 개종식에 나쁜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YBS 지도자를 공격함으로써 불교도들과 불교로 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겁을줘 개종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 사건을 저지른 자들의 의도였다. 사실, 우리 YBS도 그 사건으로 개종 운동이 후퇴를 하게 될까봐 많은 걱정을 했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사건 직후의 칸노즈 개종식은 대성공이었다. 원래 2000명의 개종자를 예상했었지만, 실제로는 5000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우리를 방해하려는 일부 힌두교도들은 그런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는 불법의 전파를 막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의 공격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가?

"사실 속수무책이다. 마을마다 불교 청년들을 중심으로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부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한 공격에 대해 똑같이 총칼로 맞서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인도 불교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1956년 인도에 불교를 부흥시켰던 암베드까르 박사는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큰 뜻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후계자들은 맹목적으로 그를 따를 뿐 불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불교를 믿어야 할 때라고 본다. YBS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불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고 싶다. 그리고 석가족의 불교 귀의를 계기로 인도의 불교를 달리트만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인도인들의 종교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도 델리= 이지은 통신원

"이름뿐인 신자들 불법공부로 거듭나야 불교가 全인도인의 종교로 발전했으면"



◇최근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법륜스님(JTS이사장)과 함께 인도 보드가야 인근 수지타아카데미에서 학생들과 대화중인 수레스 회장. 그는 수자타아카데미 교장을 역임했다.

초기불교용어 '범어' 사멸위기

인도 10억인구중 자유롭게 구사 2~3천명뿐

옛 왕족끼리 쓰던 언어로 활용분야 극소수

초기불교 용어인 산스크리트(梵語)가 본고장 인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BBC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언어중의 하나인 산스크리트는 고대 인도의 엘리트 층에서 사용되던 언어이지만 지금은 옛날처럼 고귀한 대접을 받기는커녕,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죽은 언어가 돼 가고 있는 것. 수많은 인도의 언어중 대부분은 산스크리트의 기본 문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10억이 넘는 인구중 산스크리트를 자유롭게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2천~3천명이 고작이다.

뭄바이에서 가장 오래 된 교육기관인 '바라티야 비드야 바반'에서는 학생들이 산스크리트로 된 문장을 낭송한다. 그러나 학생 수는 단 150명 뿐. 이 도시의 각급 학교에 다니는 수십만명의 학생 수에 비하면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산스크리트를 배우려는 학생이 거의 없는 데 대해 이 학교의 나렌드라 쿠마르 싱 교장은 '산스크리트를 배워봐야 봉급이 적은 교수나 교사 외에는 써먹을 수 있는 직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밖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자들을 위해 종교 의식을 집전하는 사제가 되는 정도이다. 그러나 산스크리트가 이처럼 푸대접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언어가 일반 대중의 언어로 사용되지 않고 왕족간에 오가는 편지나 고전적인 산문, 시 등을 짓는데 사용된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반면, 3세기부터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등 남방불교의 팔리삼장을 형성한 팔리어는 서민층에서 쓰는 구어체로 현재까지도 생명력을 갖고 있다.

산스크리트는 BC 5세기~BC 4세기경의 문법학자 파니니(Pini)가 당시 서북인도 지식계급의 언어를 기초로 한 문법서 〈아시타디야이이 : Adhyy〉를 써, 체계를 완성했다.

불교경전은 처음 그 경전이 사용된 각 지방의 속어에 의해 전해졌지만, 부파(部派)불교시대의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서 경전을 산스크리트로 쓰기 시작했다.

산스크리트와 불경

BC5~4세기경 문법완성 부파불교시대부터 사용

또한, 인도 전역에 산스크리트가 사용되는 경향에 따라 속어로 쓰여졌던 것도 산스크리트화되었다. 한역(漢譯)된 불전의 원본에는 팔리어(pli) 등의 속어로 된 것, 후기의 혼효(混淆)된 산스크리트(Hybrid Sanskrit), 순수한 산스크리트, 서북 인도에서 중앙아시아에 걸쳐 사용된 간다라어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비달마(阿毘達磨)로서, 초기대승불교경전은 고전 산스크리트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등의 후기대승불교경전은 혼효산스크리트로 기록돼 있다.



日 스님들, 인도-파키스탄 평화기원 순례

일본 스님들이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날을 기념해 파키스탄 택실라에 소재한 다르마라지카 물탑을 삼엄한 경찰 호위속에 참배하고 있다. 10여명의 일본 스님들은 핵 분쟁국인 파키스탄과 인도에 이르는 3개월간의 평화행진을 진행중이다.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35. 계승되고 있는 '화엄사기' 전통

달포전 역경원의 월운스님께서 힘써 그 내용을 연찬하라는 전화말씀과 함께 〈삼가본사기(三家本私記)〉 전2권을 보내주셨다. 모두 〈화엄경 청량소초십지품〉을 주석한 사기(私記)이다. 금년 3월 봉선사 능엄학림의 여러 스님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펴낸 〈삼가본사기〉는 조선후기불교의 대종사들인 설파(雪坡), 연담(蓮潭), 인악(仁嶽) 세 분 스님들이 〈화엄경〉을 연찬하면서 작성한 연구자료를 현대화시킨 것이다.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화엄사상가로서 일생동안 〈화엄경〉을 공부하고 강의함으로서 화엄사상을 선양하신 화엄의 종장(宗匠), 연담유일(1720~1799)에 의해 완성된 〈화엄사기〉의 전통이 후대에 끼친 보다 광범위한 영향은 조선후기 이래 화엄강학의 중요 교재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 있다. 때문에 이능화는 〈조선불교통사〉 하편에서 이렇게 썼다. "호암체정(虎巖體淨)의 고제(高弟), 연담유일과 설파상언의 후학 인악의첨은 모두 근고의 대강사이다. 두 스님 모두 교문의 석덕(碩德)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여러 경론의 강설을 전수하였다. 또한 스스로 그 의미를 참구하여 각자 저술을 이루었으니 이름하여 사기(私記)라고 하고 혹은 사집(私集)이라고하여 훈고의 참고가 된다. 경에는 소(疏)가 있고 소에는 초(鈔)가 있으니 사기(私記)는 소초의 소초이며 주석(註釋)의 주석이다…." 이능화는 이처럼 사기(私記)의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학참구에서도 역시 사기란 단순히 경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정도가 아니라 경전에 대한 철저한 탐구를 통해서 확립된 견처(見處)를 체계적으로 집성한 연구논문이다. 그러므로 연담유일의 〈화엄사기〉를 비롯한 여러 사기들은 자신이 수학한 스승들과 동료들의 견해를 종합하고 각 소초의 오자(誤字)와 탈자(脫字)를 교정하고 문단의 동이(同異)는 물론 자신의 견처를 밝히고 있다. 예를들어 연담의 〈화엄경〉 세주묘엄품 안에서만 약50여 개소의 오자(誤字), 연자(衍字), 탈자(脫字)를 교정하고 있다. 연담의 〈화엄사기〉가 보여주는 특징중의 하나는 〈화엄경〉을 축자적으로만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엄경 전체의 근본대의를 선교융섭(禪敎融攝)의 차원에서 천명하고 화엄경의 구성과 내용을 교의적면과 본분적면으로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조선 중기이래 우리나라 불교계의 화엄학 연구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게 된다. 청허휴정(1520~1604) 문하의 4대 문파를 확립한 송운유정, 편양언기, 소요태능, 정관일선과 같은 고승들은 모두 화엄의 종장들이었으며 이후 청허휴정의 문파에서 계속 배출된 월저도안(1638~1715), 환성지안(1664~1729), 회암정혜(1685~1741), 인악의첨(1746~1796), 묵암최눌(1717~1790), 연담유일 스님 등은 모두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엄의 대종사들이었다. 그들은 〈화엄경〉을 강의하고 토론하는 화엄법회를 자주 개설해 화엄교학이 조선시대불교를 대표하는 사상으로 자리잡게 된다. 특히 조선중기 이후 억불숭유의 고난속에서도 수행과 학문의 겸비를 특징으로하는 호남불교의 전통을 이어간 해남 대흥사의 13대 종사와 13대 강사는 모두 화엄경에 정통한 학승들이었다. 연담유일의 화엄사기는 이상과 같은 화엄교학의 전성시대를 집대성한 총괄적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화엄경〉뿐만 아니라 강원의 여러 사기들이 조선후기 이래 제방의 강원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지금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그렇게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일본의 불교학계는 조선불교의 사기를 이용한 연구성과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우리 불교의 종학(宗學)에 대한 소홀함을 반영해주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화엄학 전공자들이 우리 선철의 업적을 등한시함으로서 잃는 것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선철의 업적을 참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틀린 오자와 탈자가 섞인 텍스트를 읽는 오류를 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불교의 전통적인 강학의 큰 틀을 몸에 익힐 배움의 기회마저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 대표적 불교사상 억불숭유의 고난에도 맥이어 옛 석학 업적 등한시 말아야

경학회 회주

불자님들이 꼭 읽어야 할 불교 신행의 지침서

신간

불행을 행복으로, 장애를 향상의 기회로, 고난을 해탈의 원동력으로 바꾸어 주는



보왕삼매론 강의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김현준 著

신국판 / 240쪽 / 값 5,000원

불자들이 즐겨 독송하는 「보왕삼매론」은 병고해탈, 고난퇴치, 마음공부와 마장극복, 일의 성취, 참사랑의 원리, 인연 다스리기, 공덕 쌓는 법, 이익과 부귀, 억울함의 승화 등 누구나 인생살이에서 겪게 되는 장애들을 속시원하게 뚫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삶의 장애 요인들을 원리에 입각하여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불행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절한 일화들을 많이 삽입하여 누구나 편안하고 감동있게 읽을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이제 『보왕삼매론 강의』를 통하여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지혜를 터득하시고, 복덕과 향상의 길로 한발 한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성
1 장 : 병고를 양약으로 삼아
2 장 : 고난은 해탈의 원동력
3 장 : 마음공부와 장애
4 장 : 수행인의 서원과 마(魔)
5 장 : 일은 업 따라 이룬다
6 장 : 서로를 살리는 정을 나누며
7 장 : 인간관계 속의 수행
8 장 : 베풀되 보답을 바람이 없이
9 장 : 참된 자기 이익의 길
10장 : 억울함을 향상의 기회로
11장 : 막힌 데서 통한다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엮은 오분향 예불문의 해설서.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사물(事物), 석등, 탑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7,000원

육바라밀 수행법

특별한 수행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의 성불을 보장하는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반야의 여섯 가지 바라밀에 대해 그 정신과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쉽고도 재미있게 서술하였습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 주는 관세음보살! 이 책은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관음기도법, 관음관법 등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관음신앙의 길잡이요, 관세음보살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바라는 분들의 필독서 입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천수경 천수신앙



불자라면 누구나 독송하는 천수경에 대한 강설집. 경에 숨겨져 있는 참뜻, '천수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준제진언, 여래 십대발원문까지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혜국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하는가?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우룡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

시작하는 마음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 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 누구나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7,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해 놓았다. 이 책을 읽다보면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자경문(自警文)》은 야운스님이 자기를 돌아보고 깨우쳐 가는 속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발현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것이다. 구구절절 게으름과 방종을 막는 따끔한 말씀으로 빛을 돋이켜 스스로를 비춰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의 마지막 법문집. 불자의 근본 마음가짐에서부터 불교의 4대수행법인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에 대해 자세히 설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의 대표법문집. 고된 삶 속에서 혼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맑고 주옥 같은 법문으로 행복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서울 남산타워 하제 무한 21이 함께하겠습니다
불교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주)무한 21.
143-823 서울 광진구 구의 1동 223-65호 동명빌딩 3층
전화 : 02)447-8847~8 팩스 : 02)447-7071 www.muhan21.com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남은 삶 '찬불의 노래'에 바치오리다"

산문밖의 풍경

작곡가 김동환 교수



◇찬불가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만인이 사랑하는 우리 찬불가 창작으로 음악 인생을 회향할 것이라 말하는 김동환 교수.



◇오선지에 곡을 그려넣는 일은 그의 평생 기쁨이다.

대행스님 게송 '빈손' '임의 소식' 작곡 첫인연
명상 통해 작품 구상…환희심 선율로 표현
BBS 찬불가 발전 5개년 계획에 주도적 참여

"불교음악, 일반음악이라 하는 이분법적 경계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음악은 어디까지나 음악일 뿐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나누었을 뿐이지요. 찬불가 또한 음악적 완성도가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그 다음이 가사. 그리고 마지막이 신심을 일으킬 수 있는 감흥입니다. 찬불가의 음악적 수준이 높아지면, 불자들만이 찾는 한정된 불교음악으로서의 찬불가가 아닌 모든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음악이 될 것입니다."

중앙대 음대 김동환 명예교수(65세·삼보불교음악협회 수석 부이사장)는 찬불가의 궁극을 이렇게 얘기했다.

김 교수가 작곡가로서 '찬불가'를 접한 것은 10년 남짓이다. 중앙대 음대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인 1990년부터이니 다른 찬불가 작곡가들에 비해 늦게 찬불가 창작에 뛰어든 셈이다.

하지만 찬불가 창작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예순을 훌쩍 뛰어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대중에게 들려줄 찬불가 창작에 몇날 며칠을 오선지와 씨름한다.

올해만 해도 지난 4월 니르바나 실내악단 공연에서 선보인 '룸비니에서'를 비롯 '내 한 생각 법이 되어' '천지만물 모든 생명' 등 10곡의 찬불가를 만들어냈다. "음악은 나의 전공이자, 취미"라 말하는 그는 음악을 벗 삼아 평생을 살아왔다.

김 교수는 지난해 말 서울 종로구 계동 자신의 자택이 있는 현대아이빌라 1층에 '소천음악연구소-지봉 위의 소'라는 특별한 공간을 열었다. '지봉 위의 소'란 이름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곡인 프랑스 작곡가 바리우스 미오가 지은 관현악곡의 제목을 따서 지었다. 김 교수가 사재를 털어 마련한 이곳은 찬불가와 우리 가곡을 사랑하는 이들의 사랑방으로, 이미 음악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자자하다.

김 교수는 지난 2월 정년 퇴임이후 그의 작업실이자, 음악 감상실인 소천음악연구소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낸다.

오전 8시 30분경 연구소에 내려와 잠자리에 드는 밤 12시 30분까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음악을 떠나서는 이뤄지지 않는다. 찬불가 작곡에, 그의 주특기인 가곡도 작곡하고, 또 틈틈이 음악관련 책도 읽고, 좋아하는 연주자들의 음악(연구소 한쪽 방에 그가 평생 수집해 온 클래식 앨범 8천여장이 소장돼 있다)도 감상하노라면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다.

김 교수는 일주일에 한번 후학들을 위해 중앙대에 작곡지도 강의를 나가거나, 가끔은 회현동 지하 레코드 상가로 희귀 음반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그가 수석 부이사장으로 몸담고 있는 삼보불교음악협회 회의도 이곳에서 열린다. 종종 찾아오는 후배나 제자들의 방문도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김 교수가 처음 작곡한 찬불가는 대행스님의 게송에 곡을 붙인 선법가 '빈손'과 '임의 소식'이다. 이후 김 교수는 본격적인 찬불가 창작에 매진하게 된다.

"대행 스님을 통해 찬불가와 인연 맺으면서, 제2의 음악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무늬만 불자였지요"라고 말하는 그는 당시 일반 법회 등에서 불려지던 찬불가를 듣고 너무 놀랐다고 한다. 수준 높은 찬불가들도 있었지만, 찬송가를 본뜬 수준 미달의 곡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자신의 음악 인생에 '찬불가 창작'이라는 화두를 든 그는 91년부터 불교방송이 추진한 '찬불가 발전을 위한 5개년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동안 발표됐던 찬불가들을 합창곡으로 새롭게 편곡 정리하고, 새 찬불가를 만들어내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그 당시 김교수가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찬불가가 100여곡이 넘는다. 그 많은 곡들을 전문가들이 연주할 만한 곡으로 다시 다듬어 냈고, 이 가운데 87곡을 선별해 찬불가 악보집<불교방송 찬불합창곡집1·2>로 출판하기도 했다. 또 '한마음 있음이여' '길을 갑니다' 등 다수의 찬불가도 새로 선보였다.

김 교수의 작곡 방법은 좀 특이하다. 일단 시(김교수는 가사를 철저하게 시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를 받아보고, 그 시를 음미하며 명상에 잠긴다.

명상은 짧게는 한 두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씩 이어진다. 이렇게 명상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 떠오르는 악상을 오선지에 그려내어 곡을 완성한다. 작곡의 과정에서 김 교수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가사 전달이다. 가사의 리듬을 잡아 가사 전달을 잘되게 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선율로 환희심을 표현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곡이 다 완성된 후에도 김 교수는 그것이 자신이 창작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미 자신이 생각하기 이전부터 그 노래는 있어왔던 것이라 믿는다. 자신은 그 노래를 명상을 통해 전달받아 오선지에 그려내는 작업을 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가 세상에 내놓은 찬불가는 총 70여곡.

김교수는 "한국 찬불가의 역사는 짧고, 아직 내공이 부족합니다. 찬송가의 그늘을 벗어나야 하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에서부터 전문가들을 위한 것까지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찬불가는 양적 · 질적으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기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많은 작품이 만들어져야 그 중에서 좋은 곡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불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들어도 '아, 이 음악 정말 좋구나!' 하는 감동을 줄 수 있어야 찬불가를 통한 포교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10년 20년 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제가 미력하나마 삼보불교음악협회에서 찬불가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교수가 문을 연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의 사랑방 '소천음악연구소-지봉위의 소'.



◇김교수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모아온 8천여장의 클래식 앨범을 소장하고 있다.

글=이은자 기자 eee@buddhap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a.com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㉘ 여래수량품 제16

영원한 생명

"그대들은 여래의 진실한 깨달음의 말을 똑똑히 듣고 이해하여 굳게 믿으라"고 말씀하신 석존께서는 이제서야 비로소 설법을 시작한다.

사람만이 아니라 천신과 아수라도 모두 '지금의 석가모니불이 출가 후에 가야성 부근에서 성도(成道)하여 정각(正覺)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지금의 붓다('覺者')인 석가모니불은 아득한 구원(久遠)의 옛날에 성도하여 이미 한량없고 끝간데 없는('無量無邊') 백천만억(百千萬億) 나유타(那由陀) 겁(劫)이라고 하는 한없이 길고 긴 시간이 경과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성불하여 지금까지에 이른 시간을 5백진점겁(五百塵點劫)이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즉 "어떤 사람이 5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의 3천 대천세계를 부수어 아주 작은 가루로 만들었다고 하자. 그 분말을 가지고 동쪽으로 날아가 5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번째의 별을 지날 때마다 한 미립자(微粒子)씩을 떨어뜨리면서 계속 날아가 마침내 그 미립자를 모두 떨어뜨렸다고 하자. 그대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천체(天體)를 거쳐왔는지 머리로 생각할 수 있겠으며 헤아려서 그 수를 알 수 있겠는가? 그 미립자를 떨어뜨린 세계와 그저 스쳐지나 갔을 뿐 그 미립자를 떨어뜨리지 않은 세계를 합해서 다시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미립자 한 개를 1겁이라고 가정한다면, 내가 성불하고서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은 그 미립자 수와 같은 겁에다가 다시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겁을 더한 세월이 지난 것이다"라고 한다.

우리들은 흔히 아득한 옛날을 이야기 할 때 '호랑이 담배 먹든 시절에' 또는 '옛날 옛적에'라고 표현하지만 인도사람들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즉 나유타(那由陀)는 10의 11제곱이고 아승지는 무앙수(無央數)를 말한다. 그리하여 불교에서는 무시(無始)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부처님의 이 설법을 듣기 이전까지의 모든 사람은 물론 천신들이나 아수라(이 셋을 삼선도(三善道)라고 함) 등도 눈앞의 석가모니불은 우리들과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나이 들어갔으며 이윽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 갈 뿐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실은 아득한 옛날에 이미 성불해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기나긴 시간동안 석가모니불은 항상 이 사바세계에 계시면서 설법교화를 계속해 왔다고 한다. 이것이 종래의 부처님의 몸('佛身')에 대한 인식의 일대 변혁(一大變革)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수량품'의 설법에 의해서 80세 입멸하는 현실의 석가모니불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다시 말해 한량없는 생명을 가진 부처님임을 밝힌 것이다. 이 '수량품'의 설법에서 밝혀진 영원한 부처님을 '구원(久遠)의 본불(本佛)'이라 하며 본불이란 적불(迹佛)에 상대한 말이다. 우리들과 똑같이 태어나 멸해 가는 부처님의 근본적인 뿌리('本源')에 영원 불멸의 부처님이 계시고, 이 불멸하는 부처님의 응현(應現)이 현실의 석가모니불이라고 하는 생각 끝에 생겨난 것이 본불이다. 구원에서부터 불멸의 부처님은 중생교화를 위해 여러 가지로 몸을 나타내어 "만일 어떤 중생이 나에게 찾아오면 나는 부처님의 눈('佛眼')으로 그 사람의 신근(信根) 등이 날카로운가 둔한가를 관찰하고 어떻게 가르치면 깨달음을 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수단을 생각한 후, 그들에게 알맞도록 가지가지의 다른 부처님의 이름을 들어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부처님들의 이름이 같지 않고) 또 그 부처님의 연대가 크고 작아 같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 가르침을 설하고 나면 또다시 이 세상에서 떠나('涅槃')리라는 것도 말한다"라고 설한다. 그러므로 영원 불멸의 부처님을 본불이라 하고 거기에서 응현하여 현실에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는 부처님을 적불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본불이나 적불이라고 하는 본적(本迹)의 두 부처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영원 불멸한 부처님인 본불이 수승한 것이 아니며 그 응현인 생멸의 모습을 취하는 적불은 보다 한 단계 가치가 낮은 것이라고 하는 우열론(優劣論) 등은 〈법화경〉의 참뜻에서 벗어난 것이다. 〈법화경〉에는 원래 '본'이나 '적'이라는 말은 전혀 설해 있지 않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의 구체적인 석가모니불이 그대로 영원 불멸의 부처님, 즉 수명이 한량없는 부처님인 무량수불('阿彌陀佛')이라고 설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아직껏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화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없다.

▩무설정사 조실

현실의 모든 부처님은 무량수불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도 한 부처



"불제자들 중생



본환스님 (중국 임제종 제44대 종정)

중국불교협회 자문위원회 부주석이자 심천 홍법사 주지 겸 방장인 본환(本煥) 스님. 스님은 근대 선종 고승인 허운(虛雲) 화상의 입실(入室)제자로 임제종 44대 종정(傳人)이다. 95세의 고령에도 의연한 정신력을 갖고 있어 지금도 홍콩, 마카오, 대만 등지에서 법문을 하거나 참선(禪七)을 지도한다.

본환 스님의 불문 입문 후 70여년은 기이한 일화와 고난의 연속이었다. 91일간의 철야 '생사 선칠(生死 禪七)', 3보1배로 오대산 다섯 봉우리 참배, 혈서로 20여만자 사경, 문화혁명 당시 22년간의 옥살이, 중국 7대 선종대찰 중창 등 신화적인 수행이력은 중국 최고의 고승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점유면적 3만7460평방미터, 건축면적 1만4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거찰인 홍법사는 본환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홍법기금회'를 설립, 국제교류에 앞장서는 한편 불교연구소를 세워 불교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 심천(深圳) 최대의 산인 오동산(梧桐山) 자락의 선호(仙湖)식물원내에 위치한 홍법사(弘法寺). 수려한 경치와 맑은 물, 청아한 환경에서 1985년 중창된 홍법사는 작고한 중국불교협회 회장 조박초 거사의 관심아래 1990년 심천시정부의 비준을 거쳐 불교활동의 장소로 개방된 중국불교협회의 직할 사찰이다. '홍콩, 마카오, 대만 불교계와의 공식적인 대외협력 창구'인 홍법사에는 중국불교협회 자문위원회 부주석이자 홍법사 주지 겸 방장인 본환(本煥)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

본환 스님은 9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문과 참선 지도에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의연한 정신력을 갖고 있다. 스님은 평상시 새벽 4시15분에 기상, 세수를 한후 예불과 독경을 한다. 아침에 〈보현보살행원품〉을 6번 외운 후 종무를 처리하며, 매일 많은 내방객과 신도들을 맞이하고 저녁 10시 이후에야 휴식을 취한다. 정월 초하루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4만여 참방객들이 스님을 친견(親見)할 정도로 신도들에 대한 자비심이 깊다.

본환 스님은 1930년 7월 양주 고민사(高旻寺)에서 래과(來果) 노화상을 찾아 뵙고 은사로 모셨는데, 7년 뒤 의발(衣鉢)을 전수받았다.

래과 노화상은 허운 노화상과 함께 당대 선종을 대표하는 대종사로서 이미 명심견성(明心見性)한 상태였다. 래과 노화상은 금산(金山)에서 개오(開悟)했으며, 허운 노화상은 고명사(高明寺)에서 깨달았다. 본환 스님은 '출가이후', 양대 선지식을 차례로 친견하고 가르침을 얻는 행운을 얻게 됐다. 내가 재주가 없음에도, 부지런히 수행해 십여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된 것도 두 분 은사님들의 지도 때문이었다' 고 회고하고 있다.

본환 스님은 두 고승 이후 견성한 이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늘 안타까워했다.

"우리 종문(宗門)에는 대오(大悟)한 이가 18인이 있었지만, 소오(小悟)한 이는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명백히 알게 되는 것은 '소오'에 해당합니다. '대오'는 철저히 마음을 밝혀 참 본성을 보는 것(明心見性)으로, 양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본환 스님은 깨달음에도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당조로부터 청조 때까지는 사람들의 선근(善根)이 깊었지만, 후대에 올수록 중생의 업장이 더욱 두터워져 선근과 복덕이 점점 엷어진 까닭에 대오한 선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공부할땐 몸·마음의 집착 벗어야

갈수록 쇠미해지는 선종가풍에 대한 우려는 본환 스님으로 하여금, 선종의 중흥을 위한 서원과 용맹정진을 낳는 계기가 됐다.

본환 스님은 1934년 연속 여덟 번의 선칠(禪七, 일간의 용맹정진)에 나서, 원만히 이를 마쳤다. 이후 생사를 건 다섯 번의 선칠(35일간)을 연이어 실시, 총 91일간 스님 홀로 잠을 자지 않고 좌선했다. 잠을 이겨내기 위해 본환 스님은 고인들이 줄로 머리카락을 들보에 매단 채 공부하는 '두현량(頭懸梁)의 방법을 사용했을 정도다.

이 같은 고행과도 같은 비범한 수선(修禪)으로 스님의 선정력은 더욱 깊어져, 뒷날 중국 최고의 선사

희소식
梵 鍾
범종이 스스로 운다(自鳴梵鍾)!!
아직도 잠자는 범종은 없습니까?
아직도 울리지 못하는 범종은 없습니까?
범종은 있으나
칠 사람이 없는 범종은 없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 던지십시오.
울어라! 한번만 命 하시면
봄·여름·가을·겨울,
원 하시는 시간에!
원 하시는 횟수대로!
영원히 크고 크게
울려 메아리 칠 것입니다.
離苦得樂을 이루고!
破邪顯正으로 맑고 밝은 氣運이!
부처님 眞理를 宣揚할 것입니다.
*年內로 하시는 寺刹은 염가로 해 드립니다.
시스템 시설은 선착순 입니다.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부영공업사 특수기계제작부
대표 신 현 직 부처님 품에서 發願祈禱!!!
☎ : 033-562-1535
H·P : 011-369-2732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기치유와 기공수련 가림출판사 윤한흥 지음
'기치유와 기공수련'은 명상수련과 기치유를 통하여 현대인에게 가장 위협적인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과 암 등의 난치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치유'란 사람의 몸에 존재하는 기를 이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질병을 치유하는 요법으로서 마사지, 척추교정 등 물리적 요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에너지 요법입니다.
■ 명상수련과 체계적 기치료 교육을 통해 내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
■ 일주일 2시간씩 35시간의 수련으로 당신도 기치료능력자가 될 수 있다!
■ 기존에 알려진 기치료와는 다르다! 상처나 화상부위에 손을 대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다!
■ 전문적으로 기치료만을 연구하고 수련을 지도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 기치유연구수련단체 임.
■ 기치료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수련생 모집
2002년 8월 22일 오후 7:00 ~ 9:10 개강(16주 과정)
※ 수련원 위치 : 서울 종로구 인사동 9번지 남양빌딩 4층
한국氣치유연구회
02)725-5032, 5065 http://gi-clinic.pe.kr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지전류·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 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사무실·조상묘소의 수맥·지자기·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화로 국토 장엄해야"



◇본환스님은 95세의 고령에도 홍콩, 대만, 마카오 등지를 오가며 법문과 선칠을 지도하고 있다. 홍콩 정치인들의 영접을 받는 장면(사진위). 중국 임제선사의 선당(禪堂) 건립불사에 참석 휘호를 쓰고 있는 본환스님(오른쪽).



본환 스님은

1907년 9월 21일 호북성(湖北省) 신주현(新洲縣)에서 출생한 본환 스님은 1930년 1월 보은사(報恩寺) 전성(傳聖)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같은 해 4월 초파일 보통사(寶通寺)에서 지송(持松) 대화상을 계사로 수계했다. 이 해 7월 양주 고민사(高旻寺)에서 대과(來果) 노화상을 찾아 뵙고 은사로 모셨는데, 얼마 뒤 의발(衣鉢)을 전수받았다.

본환 스님은 1934년 생사를 건 13회의 선칠(禪七)을 연속으로 일시, 91일간 잠을 자지 않은 채 용맹정진했다. 48 년 11월 남화사에서, 본환 스님은 당대 최고의 고승인 허운 노화상의 법을 이어 임제종 제 44대 전인(傳人)이 됐다.

1980년부터 별전선사, 광효사, 보은사, 정각선사, 연개사, 대웅사 등 7 곳의 선종 거찰을 중창한 스님은 현재 95세의 고령에도, 홍콩에서 정기적으로 법문하거나 선칠을 지도하는 등 중생교화를 쉬지 않고 있다.

13회 연속 禪七 · 경전 20권 20만자 血書로 사경
300km를 3보1배…65일만에 오대산 성지 참배

로 칭송받게 되었다. 스님은 91일간의 '생사 선칠'을 마친 이후에도 염불, 좌선과 함께 〈화엄경〉 〈능엄경〉 등 내전은 물론 4서와 5경 등 외전을 열독해 불법 및 세간법의 교의를 통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초범입진(超凡入眞)의 경계를 나타냈다고 한다. 동시에 스님은 율학을 깊이 연구하고 엄격히 지켜 사표가 되었으며 래과 노화상의 인가를 받은 후, 40은 나이에 고민사의 유나(維那 : 사찰 안의 사무적인 일을 총괄하여 맡아보는 직책)를 맡게 됐다.

1937년 1월, 30세에 스님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할 것을 발원했다. 양주에서부터 무한을 거쳐 기차를 타고 하북성 정현에 이르렀다. 정현에서 오대산에 이르는 300㎞를 그는 3보1배로 나아가 65일만인 3월 3일, 오대산 성지를 참배하게 됐다. 계속해서 3보1배로 오대산의 5개 정상을 참배했을 때는 무릎에 종기가 나고, 무릎이 닳아 상처가 덧났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희열로 충만했다. 삼보일배의 고행은 '그 마음을 항복받는(降伏其心)' 의미가 있었다. '항복기심'이란 우리의 고통과 번뇌, 무명(無明), 교만, 질시, 시비 등 일체의 그릇된 생각을 항복시키자는 것.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것은 일체의 번뇌망상을 제거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의 자성을 찾는 공부이기 때문이다.

42년 10월에서부터 45년 7월까지, 본환 스님은 서현사(棲賢寺)에서 3년동안 폐관(閉關)하며 경전을 열람했다. 또 항일전쟁으로 사망한 1천여 망자를 위해 천도재를 봉행했으며, 혈서로 〈화엄경〉 〈지장경〉 등 20권, 20여 만자를 혈서(血書)로 옮겼다.

이런 '자혈사경(刺血寫經)'의 원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스님의 원력은 부처님 은혜, 중생의 은혜, 무시이래의 일체 부모님들의 은혜에 보답해 억겁동안 지은 5역10악의 죄악을 소멸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다. 동시에 본환 스님이 정진시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강조하는 '방하착(放下着 ; 집착을 버리는)' 공부와도 연관이 있었다. 목숨마저 버릴 정도의 '방하착'이 아니고서는 깨달음이 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스님은 경전의 말씀을 들어 거듭 몸과 마음의 '방하착'을 당부하신다.

"이런 공안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제자가 아름다운 꽃을 부처님께 공양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꽃을 버리라고 명하시자, 제자가 바로 꽃을 버렸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다시 몸(色身)을 버리라고 하셨지만, 제자는 어떻게 버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부처님께서 또다시 마음을 버리라고 하시자, 제자는 마침내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음의 집착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다면, 어찌 제자가 깨달음을 얻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공부를 함에 있어, 반드시 몸과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48년 7월, 본환 스님은 근대의 고승 허운 노화상의 요청으로 광동 남화사로 갔다. 남화사는 육조혜능 스님이 남종(南宗) 선법을 일으킨 도량으로, 뒤에 임제(臨濟), 조동(曹洞), 운문(雲門), 법안(法眼) 등 5종을 형성해 선종의 '조정(祖庭)'으로 불린다.

11년전부터 허운 대사의 가르침을 받은 본환 스님은, 이 해 11월 허운 노화상의 법을 이어 임제종 제 44대 전인(傳人)이 됐다. 다음 해 4월 초파일, 본환 스님은 남화사 방장에 취임했다.

> "'광폭한 시기' 감옥없었다면 20년간 홍법이생 불사 불가"

남화사 방장으로서 선풍을 드날리던 본환 스님은 51세때인 58년 7월부터 1980년 명예회복을 이룰 때까지 22년 동안이나 옥고(獄苦)를 치르게 됐다. 문화혁명기간(1966~76), 노화상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은 한 사람의 소중한 일생이 옥중에서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옥중의 시간들은 본환 스님에겐 더없이 좋은 수행기간이었다. 출가인에게는 처처(處處)가 도량이니, 그곳 역시 최고의 수행처였던 셈이다.

출옥후 1980년 3월, 스님은 73세의 고령으로 광동성 인화현정부의 요청으로 단하산 별전선사(別傳禪寺)의 복원을 책임지게 됐다. 이후 스님은 광효사, 홍법사, 보은사, 정각선사, 연개사, 대웅사 등 모두 7개의 선종 거찰을 중흥시켰는데, 건축면적이 무려 6만여 평방미터에 달했다. 본환 스님은 현재 95세의 고령에도, 홍콩에서 정기적으로 강경을 하는 등 중생교화를 쉬지 않고 있다. 중국 선종을 대표하는 임제종의 대종사로서의 본환 스님의 삶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위한 철저한 실천행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스님의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일생은 말없는 법문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께서 설한 경율론 삼장(三藏) 12부(部)의 법문의 기저에는 '행(行)' 자가 깔려있습니다. 우리가 범부로부터 성인에 이르는 것도 행이요, 성인으로부터 쿠처가 되는 것도 행입니다. 실천이 없다면 어떤 일도 이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제자는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그것은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교화시켜 국토를 장엄하는 데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일미스님



"중이 글공부하면 신세 망치는 줄 알아라"

"중이 산속에 들어가 공부해야지 무슨 세속공부?"…

학문하는 스님치고 주위에서 이런 말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불가에서는 학문하는 자체를 달갑게 여기지 않거니와 승려가 학교에 적을 둔다는 것은 세속으로 나아가는 지름길로 치부돼 왔다. 요즘은 불교학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스님들이 학문하는 것에 대해 이해도가 커졌지만, 아직도 곱지 않은 시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색즉시공(色卽是空), 생사 즉 열반, 번뇌 즉 보리 등 세속과 불계의 이분법적 태도를 배제해야 하는 불이법(不二法)을 내세우면서도 이론만큼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선(禪)과 교(敎)를 병립하는 것이 완전한 수행이라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불립문자(不立文字)를 표방하다 보니 자연히 선객들은 문자를 멀리하고, 학문하는 스님들은 도시생활 속에서 포교까지 겸하다보니 선교의 병립이 원만하지 못하다. '불립문자'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손바닥 위에 펴 보일 수도, 문자로 설명할 수도 없음을 말한다. 이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달의 대변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손가락이라는 매개체(방편)가 필요하다. 이 방편에 대한 체계를 이룩하는 일이 불교학이고 선학이다. 즉 이론은 현상을 통해 나타날 수 있듯, 부처님의 마음은 문자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미국인 현각스님이 쓴 〈만행〉이라는 책의 부제가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이다. 한국사회가 학벌 지향주의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제목을 붙인 것 같아 조금 씁쓸하기도 하다. 어쨌든 세계 일류석학들만이 모인다는 미국 하버드, 그 하버드대에서 공부하는 스님이 바로 비구 일미스님이다. 스님은 현재 하버드 대학원에서 비교종교학 분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다음 학기부터 박사과정에 들어간다.

요 근래 서양에서도 불교신자가 점점 늘고 있고, 참선수행을 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여러 나라의 불교수행이 유입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교 서적 발간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서구인들의 관심에 부응하여 일미스님은 앞으로 "불교를 주축으로 타종교와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뉴욕에 불교학연구소를 세워 수행전문기관인 젠(Zen)센터를 병행하고자 하는 서원을 세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스님은 최근 띄운 메일에서 "그간 너무 고생해서 머리 한가운데로 중부고속도로보다 더 큰 미끌미끌한 아스팔트 도로가 생겼고, 조금 있으면 해안도로가 생길지도… 스님들!!! 제발 비무장지대의 풀처럼 저에게도 풍성한 산림(山林)이 자리잡기를 각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도 올려 주십시오. 각인 법사님처럼 사막에 풀 나듯한 머리는 싫거든요"했다. 상상이 갈 것이다. 30대 중반밖에 안된 스님 머리가 벌써 허허벌판이 되었다니… 웃어 넘길 말이지만, 일미스님의 공부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학부 3학년 때, 나는 스님과 일본어 책자로 매일 2~3 페이지씩 스터디를 한 적이 있다. 매일 하다보니 쉽지는 않았다. 스님은 전날, 공부한 문장전체를 완전히 외웠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는 능력이 감당이 안되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일미스님의 끊임없는 노력탓인지 일본 용곡대학 교환학생으로

하바드大서 비교종교학 공부
불교 발전에 이바지할 재목

발탁되기도 하였고, 하버드에 입학하기 전, 토플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또한 하버드에서 요하는 제2 외국어 연수를 위해 독일에서도 1년간 공부한 이력도 있으니 범어를 비롯 스님은 6~7개 국의 언어실력을 갖추었다.

불교학자로서 외국어의 능숙한 구사는 외국인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불교학도 그 인접학문이나 응용불교 차원에서 외국어에 대한 소용가치는 절실히 필요하다. 한문권의 연구를 뛰어넘어 범어나 팔리어에 대한 불학연구 차원에서도 외국어는 절대적인데 수 개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일미스님에게 불교학자로서 능력과 노력을 갖추었다고 여길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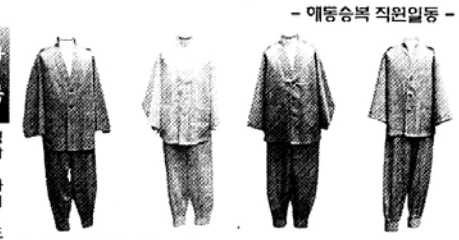
공부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스님은 동대 스님들 모임인 석림회 부회장 소임까지 맡아 할 정도로 승려로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분명히 찾아갈 줄 아는 책임감 있는 수행자다.

한국에서는 스님들뿐만 아니라 재가불자들도 불상 봉안이나 법당 건립 불사에는 적극적이다. 그러나 인재불사에는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미스님과 같은 불교학자를 제대로 키운다면 천불(千佛)을 봉안하고 대불(大佛)을 모신 만큼의 큰 불사가 이룩될 것이라 확신한다. 스님이 후에 이루어 낼 업적은 곧 불교의 발전을 의미하니까 말이다. ▩서울 니련선하원 한주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저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애동승복 직원일동 -



■ 구김없이 세탁이 용이한 재질 ₩130,000
■ 마 ₩150,000
■ 모달사 ₩150,000
■ 모직 ₩130,000
■ 순면(무늬있는 먹물) ₩130,000



■ 마 ₩130,000
■ 모달사 ₩140,000
■ 모직 ₩120,000

■ 마 ₩130,000
■ 모달사 ₩130,000
■ 모직 ₩110,000

₩50,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 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5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 금세기 세계최초 공개 전세계 비만인 고민 끝!

비만완전탈출!! 전수생 한정 모집

질병으로 변형된 DNA를 정상적인 DNA로 복원시키는 체계화된 학문교육

대 상
◆ 해외이민 희망자
◆ 先見之明의 지혜를 가지신 남·여
◆ 인기폭발 비만 및 피부미용샵 운영 예정자

강좌개설 속성반(부산교육장에서만)

교육과정
◆ 부작용, 요요현상도 없다(음식을 가릴필요가 없다)
◆ 체계화된 학문으로 약이나 氣등의 도움이 없다
◆ 6일간의 속효조정법 최고의 고등본능 방법술 전수
◆ 십이종 지능과 십이종 의식 구조학의 고난도핵융합방법 전수

본 학문을 전수 받고 난 후 당신은 아래와 같은 능력자가 된다!

1. 배운대로 하면 된다! (살찌게 하는 DNA를 교정)
2. 피부가 더욱 아름다워진다!
3. 하루 1~2시간 6일을 조정해주면 된다!
4. 6일이후부터 비만당사자는 자율적으로 자기본래의 표준 골격을 되찾기 위하여 불필요한 체지방을 몸밖으로 자동배출하게된다. 보통비만은 물론, 제아무리 거구의 비만인이라 하더라도 옛날에 입었던 옷을 꺼내입게 된다. (기적같은 현실이며 배워두면 성공한다.)
5. 부작용, 요요현상 없다.

※ 종교와는 무관하며 이법을 세상에 보급할 때가 되었으므로 희망하는 분 한정 접수함. 해외 이민 희망자는 이법을 전수 받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인연 닿는 분은 필히 배워두시 길)

문 의 처 부산시 진구 전포 2동 608-1
051) 808-1315 019-831-8351

高次元治癒에너지 人體適用硏究學會

萬里四柱특강

- 변만리 선생 직강 및 약력
日刊 社會日報 주필, 月刊 陰陽과 韓方 社長
社會團體 韓國陰陽硏究會長
현대 삼성 대우 롯데 선경 두산 동부 삼미 등
국내외 은행 및 400여처에서 동양철학과 건강관리 강좌

만리사주의 좋은점

시중의 중국사주는 10년을 공부해도 미완성이고, 어렵기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주의 기본인 오행과 상생 상극을 글자대로 풀이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사주의 오행과 상생 상극, 격국과 신살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진리와 상생 위주로 사주와 운세를 종횡 무진으로 분석 판단하였습니다.

사주 공부가 어려우십니까? 만리사주를 배워보십시오.
40년 강의 경력과 노하우를 초보자도 알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학문입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배워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중요 목차 및 내용

- 육신 - 인물, 인격, 환경, 운명을 판단한다
- 왕쇠강약
- 부귀빈천의 사주
- 육친관계 보는법
- 궁합 보는 법
- 택일 하는 법
- 적성 직업 보는 법
- 인생의 대항로 대운 보는 법
- 12운성과 성격 보는 법
- 일년신수를 척척 보는 법
- 운명의 격동기 보는 법
- 당면문제 감정법 - 주택문제, 진학과 고시문제, 기억문제, 재판과 형사문제, 결혼과 이혼문제 외 다수

교재(5권) + 강의 테이프(종 60개) = 85만원
스님 및 포교사 할인판매 (만세력 프로그램 50% 할인 판매 함)
문 의 : 016-460-2378 (담당자 직통)
상세한 안내서와 견본테이프 무료 우송함
판매처 : 도서출판 한국음양연구원

海水觀世音菩薩像
인연있는 분을 찾습니다



海水觀音菩薩像 諸元

종 류	높이	(자)	가로	세로
해수관음보살石像	360	12		
TOTAL(1)		12		
2단 연화	63	2.1		
8각 연화좌대 발침석	26	0.8		
4각 발침석	49	1.6	180	180
TOTAL(1)		4		
GRAND TPTAL		16		
4각 지반 기초석	20		347	347

연락처 011)752-0324







◇이번 전시회에는 계명문화대 김용원 교수가 수집한 수련 50여종이 우리 전통 가옥을 무대삼아 선보인다.

수련, 절제된 아름다움의 극치

남양주 서울촬영소 '운당'서 세계전시회

토종 외 美·네덜란드 등서 들여온 외래종도 선뵈

하루 중에서도 햇살이 가득한 한낮에만 눈을 여는 꽃.

올 여름엔 수련(睡蓮)을 실컷 볼 수 있다. 지난 3일부터 25일까지 세계의 수련을 한 자리에 모은 '세계수련전'이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서울종합촬영소에 위치한 운당(雲堂)에서 열리고 있다. 조선시대 정통 사대부 가옥을 재현한 운당의 너른 뜰과 대청마루 가득 50여종의 각국 수련이 모여 그윽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계명문화대 김용원 교수가 최근 몇 년간 수집한 수련들을 내 놓은 이 전시회는 수련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공간. 연못이 없는 도심의 가옥 정원, 아파트 베란다 등에서도 쉽게 수련을 가꾸며 즐길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작게는 요강만한 것부터 크게는 어른 두 아름 크기 정도의 옹기에 물을 가득 담고 그 안에 수련이 담긴 화분을 담그면 바로 간이 연못이 된다. 비료주기나 물갈이에 대한 기본 상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가꿀 수 있다.

전시회를 마련한 김 교수는 "수련은 자기의 절개를 지키며 스스로 절제된 삶을 살 줄 아는 매우 아름다운 꽃"이라며 "조금만 더 연구하면 수련의 대량생산을 위한 육묘법을 상용화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수련을 가까이 두고 즐기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쯤까지 꽃을 열고 나머지 시간은 잠을 잔다. 그래서 수련(睡蓮)이다. 개화시기도 일반 연꽃이 한 달 가량인데 비해 4개월(5월~9월)에 이른다. 원래 우리나라의 토종 수련은 6종류 정도. 그나마 연못과 늪지대가 사라지면서 대부분이 멸종위기에까지 몰리고 있다. 각시수련의 경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만 자생하는 희귀식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강원도 고성에서도 자생하고 있음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어리연꽃이나 노랑어리연꽃, 남개연, 외개연, 개연 등은 전국 늪에서 흔히 보이던 것이지만 요즘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제주도에서만 자생하는 좀어리 연꽃도 마찬가지.

그래서일까. 운당에서 만나는 토종 수련들은 예쁘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갓난아기의 입술처럼 작고 앙팡진 모양새가 눈으로만 보기에 뭔가 부족함을 자아낼 정도다. 전시회에 나온 외래 수련들은 주로 미국,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등지에서 들여 온 것들이다.

30여점의 석창포도 만날 수 있는 이 전시회는 (사)우리문화가꾸기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와 경기도, 대한불교조계종이 후원 한다. 24일에는 '연꽃과 한국문화', 25일은 '연꽃 기르기' '연과 건강'을 주제로 한 강좌가 운당에서 열린다. (031)579-0640.

임연태 기자 ylim@buddhapia.com



◇우남 스님역의 박영규(사진 왼쪽)와 김 신부역의 차인표(사진 오른쪽)가 보리울 축구단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축구소재 화합·상생의 삶 담은 영화

'보리울의 여름' 제작 발표회

축구를 매개체로 화합과 상생의 삶을 그린 영화 '보리울의 여름' 제작 발표회가 10일 남산 하얏트 호텔 리젠시룸에서 열렸다.

'보리울의 여름'은 축구선수 출신의 김신부(차인표 分)가 이끄는 성당어린이팀과 우남 스님(박영규 分)의 우남사 어린이팀이 힘을 합해 도 대표급인 읍내 축구팀에 맞선다는 내용의 휴먼 코믹영화다. 이미 지난 5일 전북 김제에서 크랭크인해 오는 11월 개봉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용 감독과 원장수녀역의 장미희씨, 기술고문을 맡은 이용수 前 국가대표팀 기술위원장, 10여명의 아역배우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차인표씨와 함께 영화를 이끌어갈 한 축인 박영규씨는 "20년 전 무명시절 스님 역을 맡은 후 처음 맡은 스님역할이라 부담이 되지만 최선을 다해 연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진각종 불교문화강습회

불교음악·꽃꽂이 등 프로그램 다양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불교문화강습회가 열린다.

진각종은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6~31일, 9월 9일~14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봉리원과 대구 진각회관에서 각각 전통등 제작 강습회 및 서원가 강습회를 개최한다.

전통등 연구회에서 주관하게 될 강습회는 골조, 배접, 채색작업을 통한 수박등, 전통등, 창작등 제작 강습으로 진행된다. 국악관현악단 '오느름'이 주관하는 서원가 강습회는 '불교음악여행'이란 주제로 불교음악사 이론과 서양, 국악 발성법, 오대서원 등 서원가 배우기 등과 작은 음악회로 진행된다.

이번 강습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진각종은 내년부터 강습회 개최지역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꽃꽂이, 다도, 사진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전주서 세계소리축제

국내외 156팀 참가 … 24일~9월 1일



◇세계소리축제 종교합창 부분에 나서는 전북불교대학 바라밀합창단.

세계 각국의 종족음악을 통해 인간의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음색을 찾아볼 수 있는 '2002 전주세계소리축제'가 24일~9월 1일 열린다.

국내외 1백56개 팀이 참가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지난해에 이어 '소리사랑 온누리에'이다. 문화의 장벽을 넘어 목소리의 원초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다.

국내외 합창단이 참가하는 '합창', 몽골 에콰도르 캐나다 등 11개국 민속음악을 소개하는 '미지의 소리를 찾아서', 신인부터 명창까지 두루 출연하는 '집중기획 판소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별초청프로그램으로는 중국 최고의 공연단인 돈황예술극원이 중국 당나라 시대의 음악과 춤을 화려한 의상과 정교한 무대로 복원한 '돈황악무', 티베트의 명상 음악가 나왕케촉과 대금 생황 단소 등의 협연이 관심을 모은다. 또한 판소리에 비길 수 있는 중국 인도 몽골 일본 등 아시아 4개국의 1인 구비서사요(口碑敍事謠)도 감상할 수 있으며, 창극 '비가비 명창 권삼득'(전북도립국악원), 작고한 최명희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음악극 '혼불'(전주시립예술단) 창작극도 무대에 오른다. 063)280-3324 www.jsf.or.kr

이은자 기자 ejee@buddhapi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말복의 마지막 더위와 씨름하며 선시를 읽는다. 앞뒤 설명을 다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내뱉은 선사들의 짧은 시구 속에는 일순간에 일상을 초탈케 하는 힘을 느낄 수 있다. 그 시들을 읽어가다 보면, 때로 딱 막히는 구절을 만난다. 바로 이럴 때가 선시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찬스이다.

누구나 나름대로 잘 벼려놓은 지성의 칼 한 자루를 가슴에 품고 산다. 그러다 책을 읽을 때, 그 칼을 꺼내어 문자의 정글을 베며 헤쳐나간다. 하지만 선시를 읽을 땐, 아무리 예리한 칼이라도 소용없는 철벽같은 장면과 맞닥트리는 것이 다반사다. 그럴 땐, 일순 당혹스럽지만 마치 수수께끼를 만난 것처럼 요모조모 헤아려보게 된다. 몰론 며칠이 지나도 풀리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는다. 선시란 원래 풀리지 않는 것이란 걸. 선시의 참 맛은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데 있다는 것을. 그동안 믿고 매달려온 알량한 세상 논리들을 일순간 탁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런 식의 문제는 해답이 있어 풀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숙해져야 풀린다는 것을.

오늘, 그동안 풀리지 않아 표시해 두었던 선시 한 수를 다시 음미해본다. 조선시대 선사인 소요태능(1562~1649의 〈종문곡(宗門曲)〉. 선가의 정맥을 읊는 노래라는 뜻이다.

소요태능의 宗門曲

물에 녹지않는 흙
불에 타지 않는 나무
용광로에 녹지않는 쇠
그것이 바로 '나'

"물위의 진흙소가 달빛을 밟고
구름 속의 나무말이 바람 타고 달리네
옛 부처님의 노래는 허공의 뼈다귀라
외로운 학의 울음소리 세상 밖으로 퍼지네"

모두 격외(格外)의 본분소식을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그 상징이 참으로 절묘하다.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이 드러내자니, '진흙소(泥牛)', '나무말(木馬)', '허공의 뼈다귀(虛空骨)', '세상 밖(天外)' 등으로 표현한 것이다. 흔히 그것들이 '불성(佛性)'이나 '본래면목'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초학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기발한 상징들이 가리키는 격외의 시원한 소식의 맛을 느껴보고, 다가가는 것이다.

선시의 특징이기도 하며, 여러 선사들의 시에 되풀이해서 등장하는 이런 표현들의 끌고를 튼 사람은 조주선사로서 그는 〈삼전어(三轉語)〉에서 이렇게 말했다. "금불은 용광로를 건너가지 못하고, 목불은 불을 건너가지 못하고, 토불은 물을 건너가지 못한다." 뒤에 벽암선사가 토를 달아 "진흙부처가 물을 건너가면 풀어지고, 나무부처가 불을 건너가면 타버리고, 쇠부처가 용광로를 건너가면 녹아버린다."고 해설했다. 그런데 위의 선시에서는, 진흙소가 물 속에 빠져서 풀어지지 않고, 오히려 물 위에서 유유자적 발을 갈고 있다. 목마도 버젓이 달리고 있는데, 구름 속보다는 차라리 불 속이라 하는 것이 더 나았을 성싶다. 몰에 녹지 않는 흙, 불에 타지 않는 나무, 용광로에 녹지 않는 쇠,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한다. 세상 밖을 향해 부르는 노래, 선시는 '인간자존'의 선언이다.

■문학평론가

미얀마 아우미따지 대학원

제2회 명예 (박사) 학위 취득 연수

세계불교 중심지이며 불교의 극락이라 불리는 미얀마 아무미따지 대학원에서 제1회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의 요청에 의해 다시 한번 연수교육을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과목 – 백침술(100%확실하게 살배는 속효 법)
정통사주학, 관상학, 독성법,
비방단침술, 특수기공도통법
❖ 지원자격 – 학력, 나이 관계없음(선착순 25명)
❖ 제출서류 – 등본2통, 사진5장, 여권, 비자, 지원서1통
❖ 접수기간 – 양력 7월 15일 ~ 8월 26일까지.
(일정은 앞당겨 질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 양력 9월 1일 ~ 6일 까지 (5박6일)



전화 031)867-4131 , 011-214-4135 , 018-370-4133

MYANMAR, YANGON

yangon office : 5b 3b floor, kamayut, townshlp 2ayarthlrl rd,

아우미따지 불교성도대학 한국분원 사무국

기도처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기도처 자광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양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여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타 실버타운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편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표1)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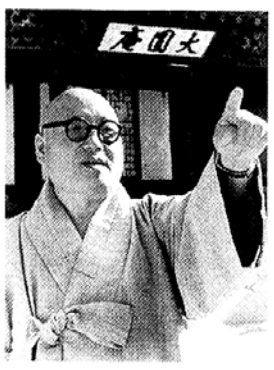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5평) 24실
(각실 인토폰 설치)
→ 오락실, 체련실, 제1물리치료실,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 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법당, 식당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다시듣는 탄허스님 육성강의

동양사상 특강 탄허문도회 펴냄



장의 CD에 담은 것이다. 교재에는 강의의 주된 내용을 풀어쓴 '삼교평심론' '이혹론' '원정론' 등을 담았다.

탄허 스님은 강의를 통해 불교의 선사상과 화엄경을 비롯해 유교·도교·기독교 등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을 넘나들며 스님 특유의 우주관과 인생관 등을 설파한다. 전국 강원의 중강 이상의 스님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 강의에는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정대 스님과 교육원장 무비 스님 등도 참가했다.

스님은 〈신화엄경합론〉 47권을 비롯해 20여종의 번역서를 내놓았을 뿐 대중들을 위한 법어집은 직접 저술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스님이 평소에 즐겨 말씀했던 "다언(多言)은 사자(士子)의 병이 되고 번문(煩文)은 도가(道家)의 해가 된다"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분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 코너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화엄합론 등 CD 18장에 담아

탄허 스님의 육성 강의를 담은 CD 〈동양사상특강〉(교림)이 나왔다. 그동안 스님의 법문과 강연, 인터뷰 등을 정리한 법어집 〈부처님이 계신다면〉(교림) 등이 선보였지만 스님의 육성 강의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양사상특강〉은 탄허 스님이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 동안 하루 8시간씩 화엄합론과 사미과·사집과·사교과 등을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



1913년 1월 15일 전북 김제 만경에서 태어난 탄허 스님은 19세부터 3년간 한암 스님과 우주와 인생의 근본이치에 대한 서신문답을 했으며 21세에 한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평소 승려 교육에 힘 쏟은 탄허 스님은 화엄경을 비롯해 육조단경, 보조법어, 사교, 사집 등 많은 불전을 번역했다. 월정사 조실, 조계종 중앙역경 연수원장, 화엄학 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1983년 6월 5일 향년 71세로 입적했다. 입적 뒤 종교인으로서는 최초로 국가가 추서하는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값 12만6천원. (02)733-3334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불교용어 기초지식

수야홍원 지음
석원연 옮김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는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다. 따라서 인간의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깨달음의 도를 성취할 수 있도록 불타의 가르침을 전해 주고 실천을 도와주는 종교라 할 수 있다"

'살아 있는 팔만대장경'이라 평가받는 일본 불교학자 수야홍원(水野弘元)의 책 〈불교용어 기초지식〉(석원연 옮김, 들꽃누리)이 번역되어 나왔다.

1928년 동경제국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불교학을 연구해 온 지은이는 〈원시불교〉(관음출판사), 〈불교의 기초지식〉(홍법원), 〈불교의 원점〉(경서원) 등 일반인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펴내왔다. 이번에 나온 〈불교용어 기초지식〉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불교용어를 세밀한 해석과 도표 등을 이용해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세밀한 해석·도표 곁들여 이해 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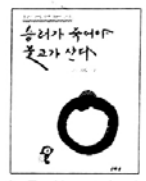
불교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불교의 분류, 3보와 3과, 3법인·4법인, 연기설, 4제설, 수도론, 번뇌론에 이르기까지 8장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값 9천9백원.

능엄경 정해 각성 엮음

해인사와 통도사 등의 불교전문 강원 강주를 지낸 각성 스님이 〈능엄경 정해〉 하권을 펴냈다. 올해 초 1권부터 5권까지의 내용을 담은 상권을 펴낸 데 이어 하권에서는 6권부터 10권까지의 본문과 번역은 물론 상세한 해설까지 담아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

'능엄경'은 밀교부에 수록되어 있으며 인도 바깥으로 유통되지 못하게 하라는 왕의 엄명이 있어 당나라 이전까지는 중국에 전해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 경의 주된 내용은 아난다가 마등가 여인의 주술에 의해 마귀도에 떨어지려는 것을 부처가 신통력으로 구해냈으며, 이후 선정의 힘과 백산개다라니의 공덕으로 모든 마귀장을 물리치고 선정에 전념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어 생사의 고뇌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값 8만원.

새로나온 책



▲승려가 죽어야 불교가 산다(소암 지음, 도서출판 백암)= 불교신문 주필 및 85년 민주화운동 불교 대표 등을 역임한 소암 스님(동아시아불교문화연구소 소장)의 네 번째 평론집. '불교계의 심각한 인재빈곤', '박노자, 오강남 교수의 세상 바로보기', '시민운동과 제3당의 출현' 등의 칼럼을 통해 불교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있다. 값 1만원.



▲틱낫한의 평화로움(틱낫한, 류시화 옮김, 열림원)= 평화운동가이자 명상가인 틱낫한 스님의 대표적 저서로, 출간 이후 15년 동안 전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책이다. 그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좋은 씨앗에 물주기'이다. 우리의 '마음 밭'에는 사랑과 미움, 자비와 폭력 등 좋고 나쁜 씨앗이 섞여 있으며, 늘 긍정적인 씨앗에 물을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불교의 지혜가 스님 특유의 부드럽고 따뜻한 말 속에 녹아 있어 삶에 대한 성찰과 생활 속에서의 짧은 명상을 통한 긴 자유를 가르쳐주고 있다. 값 9천원.



▲천년 사랑의 바다에서(황다연 시조시집, 다층)= '제 아픔 제가 다스리는 지혜가 재산이란 것/어느새 납득당한체 감정의 사치 떠내려 보낸다/화두도 몸도 하나로 녹은 마음속의 「나」를 본다'(우리들의 심우도 中)

1975년 시조문학으로 등단한 시인 황다연의 시조시집으로 '빈집에 대한 명상', '사바에서 쓴 편지', '가을 스크린1' 등 시조시 80여 편이 수록되어 있다. 값 5천원.



▲청향당의 봄(청정심 지음, 신우미디어)= 수필가 반숙자 씨가 '돈독한 불심에서 싹튼 구도자의 열정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이타행'을 장점으로 꼽은 청정심의 수필집. 살아가는 모습이 소박하게 드러난 수필 '수를 놓으며'로 〈월간문학〉 신인상에 당선됐다.

'수를 놓으며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색실도 마음과 같아 순간순간 도망도 가고 엉키고 산란하여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킨다. 마음도 실 다스리듯이 인내가 없으면 구제의 길이 없다'(수를 놓으며 中). 값 8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Anger)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달라이라마	김 영 사
3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 화 동	은행나무
4	관심	법 상	무 한
5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임 근 동	솔 바 람
6	영가현도	우 룡	효 림
7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류 시 화	김 영 사
8	꽃은 져도 향기는 그대로일세	명 정	예 문
9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김 용 옥	통 나 무
10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	달라이라마	문 이 당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특별기고

도올의 '초기불교' 이해 정확한가?

김용옥 저 '달라이 라마와 도올의 만남'을 읽고



마성스님
팔리문헌 연구소장

도올 김용옥 선생이 초기불교를 접하고 인도로 가서 달라이라마를 만난 뒤, 그의 불교관은 어떻게 변했을까를 기대하면서, 나는 그의 책 3권을 하루만에 다 읽었다. 그리고 몇가지 고언을 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그의 배움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달라이 라마와 나눈 진지한 대화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낸다.

나는 개인적으로 도올 선생이 초기불교에 눈을 돌렸다는 점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비로소 그는 불교의 정문에 들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불교학은 아함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미로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올 스스로 "선종은 대승의 종국이자, 거대한 불교사상사의 말류이다. 우리는 말류를 가지고서 원류를 함부로 추측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된다."(1권, p.100)라고 토로하고 있다. 그의 저서 3권에서는 산만할 정도로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나는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의 초기불교 이해에 관한 부분 중에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그는 아직 팔리삼장과 한역 아함의 조직 체계와 그 대응 관계는 물론 팔리율장의 편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테면 제1권 註4에서 "이 4부4아함과 5니까야의 양전(兩傳)을 대조 연구함으로써"(1권, p.231.)라고 했다. 그런데 랄리경장은 다섯 니까야(Nikāya), 즉 5부이고, 이에 대응하는 한역은 4아함이다. 따라서 위 문장은 "4아함과 5니까야의 양전을 대조 연구함으로써"라고 표기해야 한다. 그리고 팔리성전협회(Pali Text Society: PTS)에서 발행된 로마자 팔리삼장을 PTA本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둘째, 도올의 초기불교 이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다. 나는 그의 책에서 초기불교에 관한 새로운 학설이나 특기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미 선행 연구자들이 밝혀 놓은 것을 이제서야 접하고 스스로 감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단적인 예로 그는 마치 자신이 최초로 중도(中道)의 참뜻을 파악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불교에 관한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중도는 고(苦)와 낙(樂)의 중간이 아니라 고행주의와 쾌락주의를 벗어난 새로운 길(그가 말한 New Way)임을 알 수 있다.

'연기설'만 붓다 핵심사상 단정은 잘못

붓다의 자취 '전설'서 찾은 건 자의적

셋째, '붓다가 깨달은 것은 연기(緣起)였다'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이미 교과서에 나오는 진부한 이야기이다. 그가 연기설로서 붓다의 전체 교설을 이해했다는 점은 수긍이 간다. 하지만 문제는 연기야말로 진짜 붓다의 가르침이고, 다른 교설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남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붓다의 모든 교설은 시설(施設)한 목적이 있고 상호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교설만이 붓다의 핵심사상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또 다른 도그마에 빠지는 것이며, 붓다 그 분의 뜻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만일 그가 "나는 붓다의 핵심교설이 연기라고 이해했다"라고 했다면, 그는 더욱 빛이 났을 것이다.

넷째, 그는 인도여행을 통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간 붓다의 모습을 찾으려고 시도했다. 그가 인도 청년의 얼굴에서 붓다도 우리와 똑같이 숨쉬고 살았던 한 인간이었다는 점을 언급한 대목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그가 '인간 붓다'의 발자취를 추적하면서 신화와 전설에서 그 근거를 찾음으로 인해 그 본래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그가 주로 인용한 〈수행본기경〉과 〈방광대장엄경〉 등은 후대의 불전 작가들에 의해 씌어진 픽션임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픽션과 논픽션을 필요에 따라 짜 맞추어 도올식 자의적 해석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느낀 가장 아쉬웠던 점이다.



입산 출가 후 줄곧 참선 수행에 정진해온
한 납자의 구수하면서도 진솔한 수행이야기!!

토굴土窟이야기
선방 이야기
능인 스님 씀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수행, 가슴을 저미는 애틋한 사연, 세속을 떠난 여유,
피식 웃음을 자아내는 재미, 우리 삶을 일깨우는 작은 울림

맵고 짠맛에 길들여졌다가 양념 하나 안된 자연식을 맛보았을 때의 느낌이 이럴까. 복잡한 사회에서 숨돌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청량제가 될만한 책. 읽다보면 문득 '깨달음'에 한 걸음 다가선 듯한 느낌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대한매일신문

국판/230쪽/7,500원

원리를 알면 漢字를 쉽게 깨우칠 수 있다!

한자는 대부분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문자이거나 추상적인 지사문자, 그리고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나 글자의 어원을 이해하면 그것을 확장하여 다른 글자의 뜻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이제 나도 한자 전문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재미있게, 쉽게 익히도록 이야기식으로 꾸미고 있는데, 글자마다 그 글자가 본시 어떤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나 하는 어원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쓰이는 한자말을 응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1,800여 한자를 중심으로, 반복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원리를 이해하도록 해준다.

신용태 저/신국판/554쪽/17,000원

한 권으로 끝내는 한문 문법과 해석! 알기쉬운 한문 해석법
심재동 지음/신국판/383쪽/12,000원

티베트 밀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대수인법문〉에 대한 해설!

심요 법문이란 마음 수행의 길에서 항상 수지하면서 수행의 지남으로 삼을 수 있는 짤막한 몇 구절의 요약된 법문을 말한다.
〈대수인법문〉은 대승의 교의를 통달하여 증과에 이르는 길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심요 법문이다.
이 원문을 자주 독송하고 심요로 삼아 호지한다면 흐트러지기 쉬운 일상생활에서 흔들림 없고 굳건한 수행심과 신앙심을 지니게 될 것이다.

박건주 역해/국판양장/205쪽/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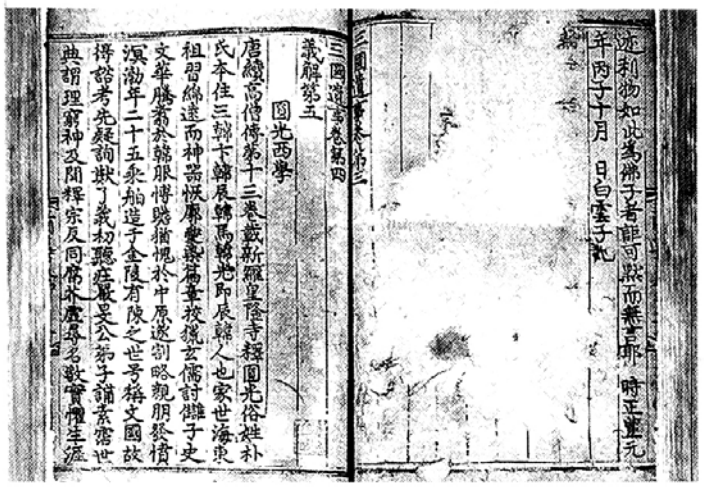
티베트 밀교 무상 심요법문 【無上心要法門】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타운힐 빌딩 3층
전화 02)3672-7181~5 (출판부) 926-8361

"삼국유사 조선초 첫 판각"

<태조 3년>

천혜봉 前 성대교수 일연학술대회서 주장



◇현존하는 가장 오래 된 '삼국유사' 판본들인 조선초기 판본들이 최초의 '삼국유사' 판각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가장 오래 된 조선 초기 판본 중 하나인 '삼국유사 권3~5'(보물 419호).



고려말까진 '삼국유사' 인용 희소

"각주의 '古本' 의미 정밀 해석 필요"

김상현 교수

최근 〈삼국사기〉와 더불어 우리 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문헌자료인 〈삼국유사〉의 판본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돼 지정 예고된 가운데, 〈삼국유사〉의 찬술과 판각 시기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재조명해 보는 학술 대회가 열렸다.

경북 군위 인각사(주지 상인)와 일연학연구원(이사장 법타)은 14일 '〈삼국유사〉의 찬술과 판각'이란 주제로 제2회 일연 보각국사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삼국유사〉 판각의 시기와 장소' 주제 발표를 맡았던 천혜봉(사진) 전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조선 초기에 판각한 〈삼국유사 권 3~5〉(보물 419호, 개인 소장)와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 범어사 소장본은 판각용 필서본을 마련해 최초로 개판한 초각판의 성격과 특징이 뚜렷하다"며 "〈삼국유사〉가 최초로 판각된 시기는 조선 초기이며 조선 태조 3년(1392)"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삼국유사〉의 최초 판각 시기에 대해서는 육당 최남선이 일연 생존시 판각설을 주장한 이래 일연의 제자 무극 생존시 판각설 등의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어느 주장이나 현존하는 최고(最古) 판본인 조선 초기 판본은 고려시대 초각본을 바탕으로 중각(重刻)한 것이거나 3각(三刻)한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최초 판각 시기를 고려시대로 잡고 있다.

하지만 조선 초기 판본인 이들 세 판본에 판각된 글자체와 새긴 기법을 고려 이래의 전통적 판각기법에 기초해 살펴본 천 교수는 이들 판본이 고려시대 판각본을 다시 번각한 것이 아니라 새로 최초로 간행한 초각판임을 밝혀냈다.

번각판이라면 조선 중종때 판각된 정덕본처럼 글자획이 굵었다 가늘었다 가지런하지 못하고, 글자획을 잘못 새겨 끊기거나 부분적으로 잃은 것이 나타나거나 글자체가 일그러진 것이 자주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조선 초기 판각본은 글자 모양이 바르고 새김이 정교해 글자획이 가지런하고, 마치 필사한 것처럼 필력이 예리하여 초각 판본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선 초기 판본이 중각본이라면 3번째 판각본에 해당하는 중종 때 판본에는 고려시대 초각본과 중각본, 3각본의 특징이 함께 섞여 있어야 하는데, 조선 초기 판본과 중종 때 판본의 특징만 나타나 있다는 것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천 교수는 "현존하는 〈삼국유사〉 조선초기 판본은, 고려 후기까지 필사본 형태로 유통되던 것을 〈삼국사기〉를 다시 판각한 조선 태조 3년(1394년) 4월을 전후한 무렵 경주부에서 판각한 초각판이며 그것이 중종 때 판본의 바탕이 된 원각판이다"는 결론을 내렸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조선 초기 이후에 인용된 예에 비해 고려 후기 전적에 〈삼국유사〉가 인용된 예가 매우 희소하다는 점도 조선 초기 판각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면서도 "각주에 보이는 '고본(古本)' '일본(一本)' '별본(別本)' 등의 용어를 필사본으로 해석하느냐 판본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최초 판각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각주에 대해서도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인간과 자연은 하나다"

특별기고



김 재 일

두레생태기행 대표

한국생태학회는 국제생태학회와 공동으로 12일부터 8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제8회 서울 세계생태학대회'를 열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의 생태학(Ecology in a Changing World)'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에는 환경과학자와 행정가, 시민운동가 등 50개국 2천여 명의 생태환경 전문가들이 참여, '지구환경 변화와 환경정보 및 기술' '생태계의 복원' '경관생태' '생태도시계획' 등 23개 분야, 70여 개의 심포지엄을 통해 13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시민공개 강연회도 함께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불교계에서는 김재일 두레생태기행 대표가 16일 '한국 풍속에 깃든 생태적인 삶'을 주제로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김 대표의 발표문을 요약, 정리했다.

■한국인의 생명공동체 인식

한국인은, 지구의 주인은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이며 인간도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생의 존재로 인식했다. 차례를 지내고 난 뒤 약간의 음식을 마당이나 집밖에 내놓는 것이나, 대보름날에 밥을 강이나 바다에 던져 넣는 '어부슴(漁夫心)' 같은 풍속은 공생관의 발로였다. 들에 나가 식사할 때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조금 떼어서 '고수레!'를 외치며 멀리 던지는 것은 모든 공덕을 자연생명들에게 돌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 겨울에 나무할 때 '나뭇짐을 지고 개울을 건너지 말라'고 한 것은 개울 건너 다른 마을의 산에서 땔감을 해오지 말라는 뜻이며, 이는 생명(숲) 공동체를 위한 약속들이다.

■한국인의 생명관

한국인은 살생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산소에 벌초하는 일을 '풀 내린다'고 했다. 풀도 생명이므로, 살생적인 느낌을 주는 '벤다'는 말 대신 '내린다'는 말을 생각해 냈다. 한국인은 해충이라도 잡아죽이는 것보다는 멀리 내쫓는 일에 더 익숙했다. 모깃불을 피워서 모기를 밖으로 쫓아내고, '속거천리(速去千里)'라는 글씨를 써 붙여서 노래기를 쫓아내고, 장독에 흰 창호지로 버선본 만들어 붙여 창호지의 반사광을 이용해 해충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생은 한국불교에만 남아 있는 불교 풍속으로, 죽음의 위기에 닥친 생명을 살려주는 실천덕목이다.

■한국인의 생명세대주의

한국인은 생물의 멸종을 가장 두려워 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에 대해서조차 종자를 말리는 법이 없었다. '봄에 민들레꽃을 꺾으면 어머니 젖이 준다'는 속담은 1년에 한번 밖에 피지 않는 민들레 꽃(씨앗)을 지켜주기 위해서이다. 감나무에 '까치 밥'을 남겨두는 것은 감나무 종자를 소중히 남겨두려는 뜻이 깃들어 있다. 감을 죄다 따버리면 감나무가 노여워해서 다음 해에는 감을 많이 매달지 않는다는 속설도 감나무의 생명세대주의를 말해준다.

■한국인의 자연관과 풍수

한국인은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어깨너머로 풍수를 배우고,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풍수에 대해 체험적인 안목이나 정보를 주고받았다. 풍수적으로 허한 곳에 숲을 조성하거나 가산(인공산)을 만들었다. 습기를 좋아하는 물봉숭아 피어있는 곳에는 집터나 묘터를 잡지 않았다. 또 산을 거대한 생명체로 인식했기 때문에 '오른다(登山)' 하지 않고 '든다(入山)'라고 했다.

■한국인의 물에 대한 인식

한국인은 물을 생명의 정령(精靈)이며, 하늘에 바치는 지상 최고의 선물이며, 가장 순수한 정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기에 수질 보전과 물 아끼기에 관한 풍속이 많다. '흐르는 물에 오줌을 누면 아이를 못 낳는다' '우물가에서 밥알을 떠내려보내면 3대가 빌어먹는다'는 등의 속담도 수질오염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세시풍속 계승발전 중요

자연교육이나 환경운동은 결국 파괴된 자연을 과거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생태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옛 사람들의 자연과 환경 존중의 정서가 깃들여진 세시풍속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곧 자연환경을 지키는 길이다.

한국인들 살생 부정적 … 해충 죽이기보다 쫓아

수질오염행위 경계 · 물 절약 속담들 많이 간직

'법화삼매' 현대인에 알맞는 수행법

이기운 강사 책 출간



"'법화삼매'는 현대인에게 알맞은 수행법이다. 참선뿐 아니라 독송과 참회 등 여러 가지 수행법이 통합적으로 들어 있어 자신의 근기에 맞춰 수행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기 운(동국대 강사 · 사진) 씨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새로 고쳐 〈법화삼매의 전승과 수행〉(성불사)이란 책으로 엮었다.

'법화삼매'는 〈법화경〉에 기초를 둔 천태종의 근본 수행법으로, 중국의 남악혜사가 처음 깨친 이래 천태지의, 백제의 현광(생몰년 미상) 등이 법화삼매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 나라에는 혜사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백제의 현광이 귀국함으로써 전해졌는데, 조선초기까지도 계승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혜사의 〈법화경 안락행의〉와 천태의 〈법화삼매참의〉에 수행법이 자세히 나와 있다.

모두 5부로 구성된 책은 법화삼매를 경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시작으로 혜사, 지의, 혜광이 펼친 법화삼매를 살펴본다. 천태의 〈법화삼매참의〉를 번역해 부록으로 실어놓았다. "고려후기 백련 결사에서 정식 수행법으로 채택될 만큼 중요시되던 수행법인 '법화삼매'를 되살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이 씨는 설명했다.

21일간 주야 6시로 나눠

독송 등 근기에 맞게 수행

이 씨는 "법화삼매는 3 · 7일 동안 주야 육시로 나눠 수행하게 되어 현대인들이 수행하기에도 적절하다"고 말했다. 값 2만원.

금강반야바라밀경 등 3건

문화재 지정번호 · 이름 통일

문화재청은 최근 전남 장흥 보림사에 소장돼 있는 '보물 1251호 〈금강반야바라밀경(권 제1)〉'(사진)의 지정번호와 이름을 '보물 722-3호 〈금강경삼가해-권1〉'로 바꿨다. 또 이 경전과 동일한 판본이지만 지정번호와 이름이 달랐던 3건의 지정번호와 이름을 통일했다.

이에 따라 보물 772호 〈금강반야바라밀경(권1,5)〉, 보물 773호 〈금강반야바라밀경(권2~5)〉, 보물 772-4호 〈금강경삼가해-권1,5〉, 보물 772-2호 〈금강경삼가해-권2~5〉, 보물 772-4호 〈금강경삼가해-권2〉로 변경됐다.



'天台수행론' 학술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 동국대서

보조사상연구원은 24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천태의 수행론'을 주제로 제47차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천태불교가 중국과 한국의 불교 흐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비해 관련 연구가 미흡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종두(동국대 강사)씨가 '천태의 사종삼매에 관한 고찰'을, 오지연(동국대 강사)씨가 '천태의 수행론에서 부정지관의 위상에 관하여'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정희(이화여대 강사)씨와 최동순(동국대 강사)씨가 각각 나설 예정이다. (02)733-5315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7시~일요일 아침7시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교육 (저녁7시~9시)
숨차지 않고 헐덕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립고 다리,무릎,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흡흡호 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3천배정진 :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차량운행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
조계사앞 출발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출구 한국전력 앞(5시) 경유하여 법왕정사 도착
차량 예약 문의 : 양 현 숙 011)222-3329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 중심 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 요

목초수액시트 가격인하

잠자는 동안 발바닥에 붙어 온몸을 상쾌하게!!
발바닥에 붙여 몸속 노폐물을 빼내는 화제의 상품 목초 수액시트!!!
효도선물 용최적
골드 150매 판매중



발은 제2의 심장
전신의 급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44,000원 → 30,000원 / 30매 (선물) : 일반 85,000원 → 60,000원 / 60매
50,000원 → 40,000원 / 30매 (골드) 160,000원 / 150매
50,000원 → 45,000원 / 30매 (일본산) 99,000원 → 85,000원 / 60매

※ 이런 분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온몸이 차거나 저리거나 팔 다리가 쑤시는 불편하신 부모님
•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수험생,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
• 산후조리 및 자고나면 손발이 붓는 분
• 수술 및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분
• 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
• 이유 없이 항상 피곤하신 분

자매품 : 일반목초액 500cc 20,000원, 식용 목초액 900cc 120,000원
목초비누 3개 30,000원

www.GAJA.TV 송금후 1~3일 택배로 배달

판매원 : 가자라이프
상담 (02) 5454-010
농협 : 063-02-124288
국민 : 010-01-0617-701
예금주 : 이수일

학점은행제 시행교육기관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 2002학년도 가을학기 불교교육과정 수강생 모집안내 】

모집과정

과정명	세부과정명	과목(반)명	교강사명	교육기간	주/야구분
교양불교	불교란 무엇인가?	Ⅰ	차차석	1학기	주 간
		Ⅱ	권기종	1학기	주 간
	참선수행	Ⅰ(참선법의 이해와 실제)	인환스님	1학기	주 간
		Ⅱ(참성공안의 참구와 실참)	인환스님	1학기	주 간
불교연구	경전연구	원각경	권기종	2학기	주 간
	불교한문	육조단경	심재동	2학기	주 간
	한문해석법	격몽요결	심재동	2학기	주 간
	논어강독		이증찬	2학기	주 간
불교전문	불교전문교육	반야사상	박인성	5학기	주 간
		기신론사상	권탄준		
		천태사상	지창규		
		불교교리발달사	최홍수		
박물관교육과정	불교박물관대학		문명대	2학기	주 간
문화 · 예술	불교전통꽃꽂이		정진희	2학기	주 간
	전통사경(寫經)		김경호	2학기	주 간

지원자격 일반성인으로 자격제한 없음(불교전문교육과정은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에 한함)

원서교부
■ 기간 2002년 8월 1일(목) ~ 8월 30일(금)
■ 접수 사회교육원 교학과(90주년 학술관 1층)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및 사진 2매
■ 불교전문교육과정 주민등록등본과 고졸이상의 학력증명서 각 1부 추가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

TEL : (02) 2260-3728~9 / FAX : (02) 2260-3730
홈페이지 : http://dgucc.dongguk.edu/~soedu

당뇨 · 고혈압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입부는 닿이고 입부는 뷰아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입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제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불편이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거전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꼽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른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점차 없어집니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개월분 ₩150,000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 인 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

칠석, 칠성은 불성을 만나는 인연

여러분은 칠석날하면 견우와 직녀를 많이들 상상하시죠. 속담의 말뿐만 아니라 이치가 없는 말은 없을 겁니다, 아마. 옛날에 말씀하시기를 까치는 산 사람들을 위해서 인연을 이어 전달을 해주고, 까마귀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전달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인연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게 알아둘 것은 전체가 인연 아닌 것이 없지만 칠석이라고 해 놓은 자체는 우리가 태어남을 뜻합니다. 모두가 태어나는 길을 말합니다.

북두칠성도 북두칠성이라고만 이름 해 놓은 게 아닙니다. 불성은 다 평등하게 똑같으니까 베풀어서 내려주는 이치가 있답니다. 생명의 근본을 배출해 줄 때에 우리는 또 그것을 세 분의, 즉 말하자면 삼신이라고 하죠. 세 분의 신이 받아서 우리들한테 베푸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말로 말한다면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라고 해도 되고, 그러한 분들을 한데 모아서 삼신이라고 합니다. 판결을 내리되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장부정리해서 검사한테 맡기면 검사가 또 보고 다 작성해서 판사한테 올려서 결정을 내리는 문제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나는데 그릇에 따라서 주어지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했는가를 봐서 차원에 따라서 주어지죠, 모두. 그래서 우리가 탄생하는 날을 기해서 칠성이라고 하는데 칠성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다 떼버리고 불성이라고 하죠. 불성을 만나는 인연이라고요.

그래서 정자 난자가 만나서 불성이 둘 아니게 인연이 되는 소치를 말하는 거죠. 그럼 산 사람들을 위해서 촛불을 켜는 거나 똑같죠. 백종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고 산 사람들을 위해서는 칠성을, 칠석이라고도 하는데 본래 근본은 칠성입니다. 그러나 칠석이라고 하는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말을 하자면 본래 현세에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한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같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 낳기를 원하면 아이가 생기기 이전부터 관하라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삼신한테 관하라 이러죠. 삼신은 자성삼보라고 말해도 됩니다. 자성삼보에 연결이 돼있는, 즉 말하자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삼신, 삼신이라고 해서 아이만 받는 소임을 갖는 게 아니고 사람을 차원끼리 인연을 맺어주는 그런 차원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혼을 주라고 관하죠. 관해서 아이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태교로 백일이 지날 때까지는 보살피거든요. 배 안에서도 삼신이 보살피구요. 그렇기 때문에 배 안에 있을 때에 태교로 잘 이끌어간다면 그대로 알아듣게 되고, 그대로 실행하게 되고, 전자에 어떠한 업적이나 유전성, 업보성, 인과성, 세균성, 영계성 이런 것들이 다 겹쳤다고 하더라도 태교를 잘 하게 되면 그런 것이 다 말끔게 없어지고 나서 이 세상에 나와야지 않느냐고 자꾸 그럴 때에 그것이 하나하나 무너지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태교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업보가 묻혀있는 게 아니라 마음들에 의해서 쌓이고 쌓인 거죠. 그거를 벗어버리고 나오게 해야 업보성과 인과성이 없어져서 큰 병도 안 앓고 또 인연에 따라서 악의 인연을 갖지도 않고 선으로서 인연을 갖게 되고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효도라고 할 거는 없지만 귀찮게 하지 않고 악한 일 생기지 않게 하면 효도죠, 뭐. 그렇게 해서 잘 되면 그게 효도예요.

살면서 좋은 싹 틔우도록 용도대로 관하며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태교를 낳기 이전에도 생각하지 않으니 어떻게 노력 없이 좋은 자식을 보려고 그러고 좋은 딸을 보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 안하고 어떻게 추수를 해 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하는 반면에 추수를 해 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름도 줘야 하고 벌레도 잡아줘서 추수를 해 드리듯이 자식을 낳기만 하면 자식이 아니라 자식을 낳는 데도 하나하나, 바로 그런 역할이 들어가야만이 소중한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소중한 딸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이란 뜻은, 우리가 명이 짧으면 칠성부처가 돕는다 이런 말을 하죠. 또 죽어서 좋은 데로 못 갈 때는 지장이 돌봐준다 이러죠. 그게 맡은 소임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인연을 줘도, 예를 들어서 까치든 까치가 아니든 집안에 서 있는 나무도 그 낌새를 알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나무가 드르르 떨면서 말을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뭐. 못 알아들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감각이나 지각이나 청각, 촉각, 시각, 미각이, 짐승들은 단순히 갖기 때문에 잘 보고 피하지만 우리 인간은 몽땅 다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옳을지 그거를 듣고 보지 않으면 납득을 못 하죠. 그런 걸 가졌기 때문에 육근과 육진 육식을 다 가졌다. 그런 걸 포함했다 하는 거죠.

이런 걸 포함해서 불성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칠성이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에 불성인 주인공 뿌리가 있으면, 그거와 포함하면 칠성이 되지만 그거를 포함치 않는다면 불성이 되죠. 길게 부르고 할 게 없죠. 불성이라고 하면 영원한 거고, 육신은 영원치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영원치 못한 옷을 벗고서 요 다음에 탄생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남한테 좋은 인연을 갖게 하면서 모든 걸 벗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촛불을 켜는 것도, 만 명 중에 한 명이 촛불 하나를 켠다고 하더라도 진실로만 마음의 촛불을 켠다면 촛불 삼만 개 아니, 한 사람 앞에 삼만 개를 켠 것보다 더 값비싸게 촛불을 밝힌 뜻이 나온다는 얘기죠, 마음의 촛불이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대로 실행하면서 육체와 정신이 둘 아니게 수레가 돌아가듯 초월해서 돌아가는 원리를 우리는 반듯하게 알아야 믿음도 진실하게 가질 수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끔 됩니다.

좋은 아이 낳기를 원하면 생기기 이전부터 관해야

진짜로 믿는 자는 죽든지 살든지 그런 거 겁나지 않습니다. 또 잘못되고 잘되고를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뿌리가 자기 싹을 넣기 때문에 항상 보살핌에는 틀림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그만큼 믿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믿는다면 잘 된다고 해야 할까요? 죽는 것도 살릴 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말하는 게 이리 왈저리 왈 해서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했어도 지금 현실이 문제니까 현실에 마음의 촛불을 켜시면서 며느리가 되든 시어머니가 되든 좋은 씨앗으로서 좋은 싹을 내게끔 관하시는 거, 용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어린애가 있어야 할 집은 그렇게 하고, 또 딴 문제가 있는 집은 그 용도대로 관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점을 알아서 관하라 이겁니다.

관하는 데는 그만큼 믿음이 소중하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다면 몸이 방황하죠. 그래서 어느 분이 이혼할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길래, 그랬어요. 이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다 거기다 놓고 그저 자기 탓으로 돌리고 관하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가서 안 들어온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오게 되면 몸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몸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이긴 한데 동시에 같이,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돌아간다, 악수를 하되 마음이 가니깐 손이 저절로 따라간다고 할 때 둘 아니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칠석날 인간의 미를 거두고 좋은 인연을 거두고, 좋은 사랑을 거두고, 좋은 밝음을 거두고 하서 여러분이 앞날을 장담할 수 있는 거죠. 앞날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가는 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본을 진짜로 믿는다면 죽든지 살든지 겁내지 않아

지금 현실에 내가 고통을 받고 사는 것으로 과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괴롭다고 하고 두뇌가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밝히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늦지 않았으니깐,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다가올 때 내가 잘하면 위로는 조상이요, 아래로는 자식들도 거기에 미친다 이겁니다. 오늘은 설법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하고 칠성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태어나고 멸하고 하는 원리가 그렇게 돼있다는 거,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를 내가 해봤자 절실하게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알고는 있어야 되겠기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라는 거, 지구의, 세계적인 생활이라는 거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이치가 너무도 많고 이름 붙여놓은 그 자체를 말하려면, 우리는 그냥 아무 데서나 뚝 떨어진 생명체가 아닙니다. 말로 이름을 붙이자면 북두칠성에서 평등한 불성을 배출한다. 그러면 세 신이 그걸 받아서 판단을 해서 그릇대로 나누어준다. 그럴 때 우리는 관해서 그 영령이 들게끔 하느라고 정성을 지극하게 하면 바로 좋은 영가를 받을 수도 있다. 저렇게 지극하니깐 조금 괜찮은 영가를 내주면, 차원이 좀 높은 영가를 주면 높은 대로, 탤런트들이 배역을 잘 받으면 좋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영령도 잘 못 받으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지극하게 해서 받아서 산다면, 공자님이나 노자, 맹자 이런 분들도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했답니다. 좋은 영령을 주시라고 몇 년씩 관해서 낳은 분들이랍니다. 그러니 중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이름이 남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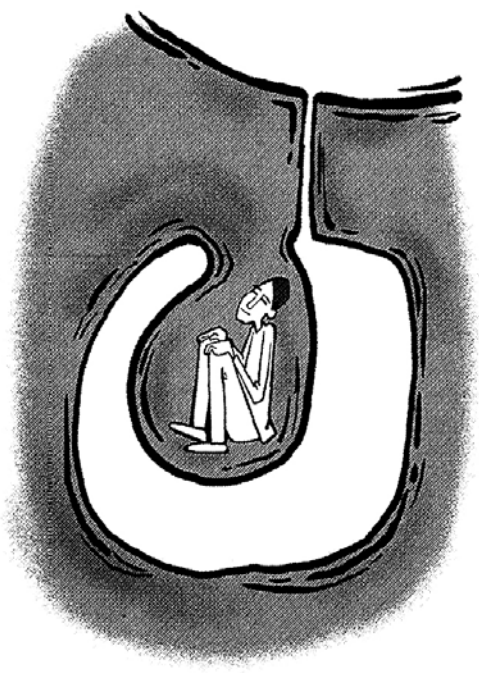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관할 때 믿음 없으면 몸이 방황

그래서 어떠한 거든지 모두 여러분의 탓이에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기 이전에 그런 생각을 좀더 해봤으면 어떻겠습니까? 또 뱃속에 들은 뒤에도 그냥 먹고사는 데만 급급해서 싸우고 온통 야단들을 했지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는지 모르죠. 오히려 쌈하는 것만 들려주지 않았어도 좀 나았을 텐데. 그냥 별의 별 소리 다하고 욕을 퍼붓고 이러는 수도 많거든요. 그러면 뱃속에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자기의 업보를 다 쓰고 나오기 때문에 엄마가 태교를 해서 다 벗겨줘야 할 텐데 더 그냥 집어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 나와 가지고는, 뱃속에서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거니 어떡합니까. 집 바깥에 나와서도 여차하면 그냥 들고 패고, 여차하면 욕을 퍼붓고 여차하면 싸우고 말다툼하기 때문에 그냥 찌푸리고, 속상해서 불이 난다고 하니 그거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뿐입니까? 요새 가만히 보면요, 애들은 내던져 두고 벌어먹느라고 이리저리 뛰다보면 애들은 갖은 거 다 보고, 갖은 거 다 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 뱃속에서부터 보고 배운 거란 말입니다, 그게 다.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탄하지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안 것만 해도 어디냐 하고 그 도리를 아셔야 돼요. 나도 불성이 있고 자식들도 불성이 있으니, 즉 말하자면 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성은 뿌리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자불(自佛)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는데, 자식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내 죄라고 하지 말고, 죄라고 그러지 마세요. 전등은 이쪽 방에 켜놓든 저쪽 방에 켜놓든 다 똑같습니다. 전력이 들어오는 것도 다 똑같구요. 내 마음의 스위치를 누를 때는 반드시 그쪽하고 이쪽하고 둘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너도 불이 들어올 수 있으니 그걸 버릴 수 있어.' 하는 거죠. '너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어. 내 주인공과 네 주인공이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게 될 수 있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불 일어나듯이 하는 거를 꺼줄 수 있다면 좋고 또 켜서 좋은 일이라면 켜주기도 하고, 꺼주어야 할 땐 꺼주기도 하면서 자유스럽게 해나갈 수 있는 지극한 마음이라면 뭐든지 안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이에요, 아무리 관해도 안된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만큼 모자라기 때문이죠. 그러고는 거죽으로 아무리 주인공을 불러도 안되더라 하곤 방방방 뛰죠. 그렇게 뛰는 걸 보면 벌써 알아요. 이름만 부르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남이 주인공을 부르면 된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하는 거요. 저 나무들이 딴 나무를 보고 믿고 삽니까? 자기 뿌리에 의지하고 살지. 쪼그만 나무 한 이파리도 뿌리에 다 붙어있으니깐 뿌리에다가 다 놓으면 될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거름이 다 골고루 먹여져서 푸르게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온 세계가 또는 온 우주가 같이 동일하게 초월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더불어 우리가 한생각 하는 데 세계와 나라를 살릴 수도 있는 계기가 있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의 촛불' 하나 어떤 것보다 가치있어

그런데 모두 마음들이 말입니다. 지금 정신계는 무시하고 물질계만 가지고 그냥 야단법석하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네가 더 갖느니 내가 더 가져야 하느니 하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면서 뒤범벅이 되니 뭐가 온전합니까. 보세요. 일체 만물 만생들이 한 세계로만 쳐도 말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물을 정화시키느라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뒤범벅이 돼서 전 세계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생기는 오물이 바로 독성이 되고 그 독성이 물밑으로 가라앉고 그러면 태양은 물 밑에까지 가지 않고, 정화를 시켜야 전 세계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반면에 우리는 장마가 든다 하면 미리미리 조심해야 할 문제들을 살피고 그래야만이 삼분의 일로 줄이죠. 사람 죽는 거라든가 망가지는 거라든가 사태가 난다든가 다리가 끊어진다든가 둑이 무너지는 거를 미리미리 살펴서 소임을 맡은 자들이 미리미리 대치를 한다면 손해도 덜 날 거 아닙니까. 그냥 비가 쏟아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체들을 살리기 위한 뜻이죠. 만약에 물밑에 오물이 세계적으로 있다면, 오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오래 장마가 들고 적으면 적은 대로 적게 장마가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러우면 물이 더 들어가서 정화를 해야 하고, 수십 번씩 정화를 해야하니 말입니다.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장마가 드는지.

우린 지수화풍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고 지수화풍을 가지고 지수화풍을 먹고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화풍이 깨끗하지 않아서 독성이 돼서 풍긴다면, 산에 나무들도 그렇고 들에서 사는 사람도, 들에서 사는 생명, 물에서 사는 생명들도 그렇고 다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생명체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전에는 똥으로 거름을 주기 때문에 그 야채를 먹으면 똥을 되먹는 게 되었죠? 그래 아주 좋았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핵폭탄이다 뭐다 하고 전 세계에서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세계적으로 언짢은 일입니까. 그 언저리만 나빠지는 게 아니죠. 땅으로 스미고 물로 스미고 해서 오물과 독성이 합쳐지고 전부 섞여서 독성이 되면 모두 죽는 줄 모르고 병드는 줄 모르게 병이 들고, 결국에는 다 죽게 되는 이치가 생기니까 일년에 한 번씩 정화를 하는데 그게 소중한 문제죠.

우리도 수돗물 나쁘다고 정화를 해서 먹죠? 그럼 자연의 법칙에서 정화를 해주는데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해야할 일, 소임 맡은 자들이 장마지기 전에 잘 봐서 대처해야 해요. 둑에 요만큼만 구멍이 뚫려도 무너지니까요. 큰길의 하수도든지 동네 하수도든지 집의 하수도든지 막히지나 않나 잘 살피고, 동네 담당을 시켜서 그런 걸 보살펴야 미리미리, 죽고 무너지고 난 뒤에 돈을 많이 거둬서 줘봤던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일년에 한 번씩 장마가 드니깐 동네마다 살펴서 한 집마다 천원씩을 거둬서래도 하면 아, 그게 너끈히 되잖아요. 사람 죽지 않고, 그런데 남의 돈을 받아먹으려고만 생각했지 내가 받아먹는 그 대가로 보살피고 그걸 해야되는데 귀찮거든요, 다. 그러니까 받아먹기만 하고 말은 바 소임을 다 안하니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 생명같이 생각하고 자기 아픔같이 생각한다면 그걸 어찌 보살피지 않겠습니까, 하다 못해 하수도도 그렇고 모든 게 말입니다. 오물을 내보내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밑에서 사는 생명들도 죽게 되고 그런데다가 며군다나 지금 태양이 물밑까지 들어갈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 모두를 살리는 편으로 한다면 자연의 법칙으로 정화를 시켜서 우리들을 살리는데 그 뒤에서 그래도 움죽거리는 사람들이니까 살펴서 그걸 해결했으면 우리가 100% 편리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가정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데나 돈 적고 편리한 대로만 가게를 얻어도 얻어요. 그런데 물이 잔뜩 들으니깐 망해서 다 폐지시켰단 말입니다. 그거 그리로 얻지 말고 좀 저쪽으로 얻으라고 그렇게 했건만, 말 안 들어요. 어차피 계약을 해놓은 걸요, 이렇게 하기만 하고, 그럼 계약해놓은 거 취소하고 말을 들었으면 그게 다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없고 머리가 없는 거죠.

업보 묻혀 있는 게 아니라 마음따라 쌓이고 쌓인 것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산 밑에다 집 짓지 말고 산 아래 너무 얕은 데다가 집 짓지 마라. 장마가 들면 산사태가 나서 집을 덮고 아래로 물이 나면 모두 죽는다.' 하고 말입니다. 가게를 얻는 것도 그렇고요. 지혜가 충분하면 자기가 파는 물건의 용도가 어떠하니 어떤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세 가지 여건은 봐야죠. 물건의 용도에 따라서 장소도 필요한 거죠. 덮어놓고 그냥 가게 한다 그러

☞ 18면으로 계속

☞ 17면에서 계속

고 아무 데나 얻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구 또 한 가지는 가게를 하면서 집을 잡혀서 해요. 그리고 또 남의 돈을 얻어다가 하구요. 집을 살 때도 자기 살던 집을 팔겠다는 계약도 안하고 집이 좋은 거 났다고 그냥 계약을 해요. 그런데 살던 집이 안 팔리면 그 계약금 또 떼이죠. 이렇게들 살림들을 해요. 내가 남의 참견을 할 거는 아니지만 어차피 도반들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잘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러고 먼저 쓸 거는 안 쓰고 집어넣고는 급하게 되면 거선을 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요. 그러니깐 그렇게 안 살아도 될 집도 동동거리고 살게 되요. 남의 집으로 빌리러 가지 않을 것도 빌리러 가게 되구요. 그렇게 해서 돈을 다 없애니깐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을 위해서 천도재를 하더라도 빚을 내서 가져오진 마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우니까. 돈이 마련되면 해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만 가륵하게 가지고 있어도 조상님들이 다 알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조상들에게 누가 되게 만들죠. 그러다가 빚을 갚지 못하면 조상들에게 누가 되는 거죠. 만날 그걸로 인해서 단련을 받고 싸우고 그래 보세요. 부모를 위한답시고 한 상 차려주고선 그 한 상 차려준 돈 때문에 만날 싸우고 그래 보세요, 좋다고 그러나. 그걸 누가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중심을 굳건히 두고, 말하자면 자기 주장자며 주인공이에요. 수 없는 과거를 진화시키고 형성시켜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참 보배죠. 그 보배의 뿌리를 진짜로 믿고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어떤 게 닥쳐오더라도 '네가 나를 형성시켰으니깐 너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믿고 맡긴다면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껄껄 웃을 거예요. '인생살이는 이런 거지, 뭐.'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감응이 돼서 마음들이 다 한마음으로 돌봐주게 되는 거죠. 보살들이 응신이 돼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감응하게 되면 딱 받아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그냥 방방 뛰고 여기 가서 집적, 저기 가서 집적거리죠. 그러면 벌써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뢰를 갖지 못하고, 신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되는 게 없죠. 그걸 누구 탓을 합니까? 그러고 나한테 사정하기를, 주인공을 자꾸 불러도 안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는요, 물끄러미 쳐다보고 그냥 있어요, 답답해서. 세상에 그렇게 죽는 게 아까우냐. 나 내버리면 다 될 거를. 나 팽개쳐버리면, 죽는 거 사는 거 다 팽개치고 다 편안할 것을 왜 저렇게 아둥바둥하고 사나. 어차피 지금 살다가도 아주 죽는 게 아니라 옷만 벗고 가서 다시 올 것을. 배우들이 오늘 영화 했다고 내일 안합니까? 영화에서는 결혼도 몇 번씩 합디다. 하하하.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그러던데, 그런 걸 보더라도 내 몸이 죽는다 산다를 팽개친다 하면 아무 것도 욕심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고 마음이 탁 가라앉고, 먹고살고 죽는 것에도 의욕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솟아 나오는 그런 게 현실로 실천이 옮겨지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나 조금 못살까 봐 걱정, 나 죽을까 봐 걱정, 애들 죽을까 봐 걱정, 어른 죽을까 봐 걱정, 그렇게 걱정하니까 걱정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꼬리가 꼬리를 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활하게, 그러니깐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든지 머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 요량있게 잘 하고 버릴 땐 버리고, 가질 땐 갖고, 쓸 때는 쓰고 쓰지 않을 때는 쓰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한다는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네 집의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우리도 전력을 끌어쓰는데 용도에 따라서 전력을 끌어쓰지 덮어놓고 전력을 끌어씁니까? 밥 할 때는 밥통 하나의 전력이 나오지 더 나옵니까. 모터를 돌린다면 모터를 돌린 만큼만 전력이 나오죠. 그렇게 요량있게 써야죠. 우리 머리가 총만하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탱하고 정말 손 없는 손으로 발 없는 발로 걸을 수 있다면, 허공 길을 오고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다면, 모든 생명의 인연들을 전부 지어서 내가 이리로 가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저리로 가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산에 가면 산의 산천초목이 다 도와주고, 또 물에 가면 주해신이 다 도와주니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길 가도 도와주고 저길 가도 도와주고 한 발짝 떼어놓으면 응신들이 다 응하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 맛나게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날 기복으로만 믿으니, 우리가 지금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진리 속에 종교라는 것은 이름이지 이름이 진리가 아니죠. 그 진리 속에 들어 있는 종교의 이름이죠. 고행상을 걸어놓고 어떻고 어떻고, 또 신부님한테 가서 "내가 이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사해주소서."해도 그게 사해지나요, 자기가 다 해놓은 길, 자기가 뿌려놓은 거 자기가 거둬야지 어디 가서 누구더러 해달랍니까. 누구든지 대신 밥 먹어주고 대신 똥눠주고 대신 잠자주고 대신 아파주고 대신 죽어주고 대신 깨닫게 해주는 사람 있다면 손들어 보세요.

이 세상엔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홀로 우뚝 섰다는 건 자기 혼자 우뚝 섰다는 게 아니에요. 각자를 말한 거죠, 각자. 모두 홀로 우뚝 섰다. 깨달으면 홀로 우뚝 선 도리를 아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모두 각자 혼자 살면서 집단을 다섯 개든지 네 개든지 세 개든지 열 개든지 한데 쓰러질 까봐 모아서 매놓고 한 식구라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면서. 바람마개죠, 그게. 그러다 한 사람만 쑥 빠지면 그냥 다 쓰러지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러니깐 홀로 나와서 홀로 지금 걸어가고 있고, 또 홀로 갔다가 홀로 캠핑 와서 친구들 만나서 같은 식구라고 또 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사느냐,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느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나고 저렇게 잘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나고 못살까, 이런 한탄하고 살지 마세요. 잘난 것도 한 찰나요, 잘사는 것도 한 찰나고 한 철이에요. 매미가 한 철 나와서 울다가 들어가듯이 그런 격이에요, 우리도.

그러니 제발 마음 편안치 않게 살지 마시고 오늘 칠석날 칠성이 즉, 불성이 밝으면 다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다 밝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따가 죽는다 하더라도 개의치 마세요. 꿈을 잘못 꾸었으니 죽었다 이러고선 헐레벌떡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꿈이 잘못돼서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정히 걸린다면 "스님, 이런 꿈을 꿨는데 제 마음이 아주 불안합니다."하고 한 마디하고 마음으로 쓱 돌려놓으면 되는 거를, 또 그렇더라도 그냥 놓고, 죽이는 것도 너 살리는 것도 너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꿈을 꾸게 한 것도 너니깐 하고선 고만 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만 갖는다면 그게 훌렁 뒤집어지죠, 다.

그런데 거기까지 미처 넘길 수 없이 미약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채 넘길 수가 없겠죠. 하니깐 여러분! 얼른 잘 배우셔서 증득하세요. 그래서 요 다음 생에는 남을 도와주고 다니는 응신으로서 활약을 하세요. 절대로 밥 먹고 똥싸고 잠자는 이런 중세계의 중생이 되지 마시고요. 상세계의 선신이 되셔서 이 중세계의 여러분을 자기처럼, 과거의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다시 선신이 되셔서 지금 현재를 본다면 과거죠, 과거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건져서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되나 못되나 말을 해봤습니다마는 나는 책을 봐서 말을 매끄럽고 재미있게 해줄 수도 없고 그냥 나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지금 현실에 돌아가는 대로 얘기했을 뿐이니 그거를 잘 매끄럽게 못한다고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깊이 생각하셔서 못났든 잘났든 '이것이 진실이구나' 하고 정말 여러분이 한생각을 돌리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하십시오.

오늘은 설법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들 갑자기 모였지? 참! 재주들 용하네 정말. (대중웃음) 오늘은 법회 안 한다고 그랬는데 , 마음 아프지 않게 삽시다.

대중일동: 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8년 8월 28일 칠석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잘난 것도 한 찰나, 잘사는 것도 한 철

한탄 말고 마음 편안하게 사세요

"
'네가 나를 형성시켰으니깐' 하고
그냥 믿고 맡긴다면
죽는다 하더라도 웃을 수 있어
"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 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남을 꾸짖을 마음으로 나를 꾸짖고 나를 용서하듯 남을 용서하라



꽃은 져도 향기는 그대로일세

경봉 큰스님, 70여 년간의 성찰과 깨달음의 일기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경봉 큰스님의 일기. 화두, 시와 어울린 아름다운 사진은 숱한 번민, 부질없는 욕심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안겨준다.

스님의 일기에는 제방(諸方)의 눈푸른 납자(衲子), 선지식들과 주고받은 법담과 감회들이 격외(格外)의 시로써 장마다 빛을 발하고 있다
_법정

조문객이 10만이 넘고 장례행렬이 2km나 이어진 불교계의 전설 경봉 스님의 일기는 수행자답게 스스로에게 던지는 다짐이 많다.
_조선일보

80여 편의 시, 20여 개의 화두, 주고받은 법담, 자연친화적인 90여 컷의 사진과 함께 빛을 발하는 명구들……
내밀하고 그윽한 목소리를 들려준다._스포츠서울



경봉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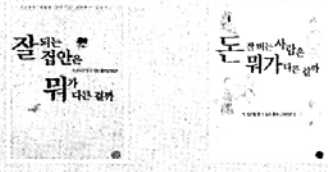
15세에 출가 평생 통도사에서 선풍(禪風)을 드날렸다. 1953년부터 극락암에 조실(祖室)로 주석하면서 이곳은 전국의 선승(禪僧)들이 동경하는 수행장소로 미국땄다. 1973년 1월 여든을 넘긴 나이에 매월 첫 번째 일요일 정기법회를 시작했고 매번 수천의 불자(佛子)들이 그의 사자후(獅子吼)에 귀를 기울였다. 올해로 입적 20주년을 맞이하였다.

화분 하나, 액자 하나로 가족의 운명을바꿀 수 있다?

잘 되는 집안은 뭐가 다른 걸까

남자의 성공을 부르는 기 인테리어
신혼을 위한 기 인테리어
질병을 물리치는 기 인테리어
아름답고 날씬해지는 기 인테리어

이성준 지음 | 올컬러 | 12,000원



돈이 모이는 집,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뭐가 다른 걸까

금전운이 좋아하는 집은 이런 집
이런 옷처럼이 부자로 만들어준다
이런 장식소품이 금전운을 부른다
이런 가구배치가 돈을 부른다

이성준 지음 | 올컬러 | 13,000원

TEL 953-0304 FAX 953-0306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산에서 기도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011) 696-8500

구 직
60대 초반 나이로 술과 담배를 절대로 하지 않는 독신남자로서 사찰에서 운전 기시로 처사겸 일할곳을 찾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 대형면허이며 지방사찰도 좋습니다. 저렴한 보시로 불심을 갖고 봉사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031)826-1152
011)9753-4152
박창제 합장

인 재 초 빙
불심이 있고 사회생활에서 성실한 분을 모십니다.
공무원, 은행원, 회사원 출신으로 정년퇴임하신 분이면 됩니다.
(연령 50대 중반)
- 임무수행(携帶)에 따라 후대함 -
보현도량 · 도솔산 도피안사
연락처 : 031)676-8700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0~60세 상운사
033)482-3382~4

비구니 부전스님 구합니다
02)353-3004
02)359-7766

배우자 구함
가축인공수정소를 운영하고 있는 41세 미혼남성입니다
평생을 불심으로 함께 할 미혼여성을 원함
018)415-0086

심야전기온돌난방
▶ 축열식 심야전기 히트온돌난방(M.I CABLE)
▶ 축열식 전기 온수기, 온풍기, 보일러
▶ 온수 바로바로 히팅케이블 보급 시공
스노우엘팅 주차장, 출입구, 언덕, 안전도로
동파방지 및 히팅케이블 냉온수배관, 송유관, 유체라인 등의 보호
한전승인업체
남 강 기 전 02)338-0400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 택 : 031)563-8733
031)563-8771
H · P : 011)255-3286

대원사 7기 불교기본교육
불교입문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 정성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이번 교육과정에 관심있는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내용 : 사찰예절, 불교일반상식 기본교리, 신행방법 등
✦ 개강 : 8월 20일 화요일(주, 야간반)
✦ 위치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
✦ 문의 : 대원사 02-404-1374

산세 수려한 도량에 복 지으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545-237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877-7514

가족처럼 지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0대이상
017)708-0635

가족처럼 함께 지낼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사무원(25세이상) 구합니다
▷경기도 이천, 숙식제공
www.wonkyungsa.com
031)641-6311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윤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청운역학원 02)723-7449 / 011)9638-822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소재
● 건물 : 법당, 산신각, 요사채, 부속암자 등이 있음
기도처, 포교처로 최적, 용천수가 있는 자연청정지역
● 특징 : 주변 산세와 경관이 빼어나기가 금강산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경관을 갖추었으며, 사람 사람마다 탄성이 절로 나며 오는 이들의 발길을 멎게 하며, 풍수가들의 지변을 차지하는 명당 중의 명당이며, 화가들의 화폭에 사계절을 장식하는 빼어난 주변 경관을 갖추었음
● 가액 : 9억(절충가능 함) 지방사찰도 교환 가능
02)998-1818 주지합장

49재 천도재 시다림 봉불 점안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 수 스님 입니다
상주할 인연 사찰을 찾습니다.
016)857-4500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작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산세수려한 조용한 사찰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지낼 보살님 처사님들은 연락 바랍니다.
052)254-2427
052)254-5125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 부평구청 전철역 5분거리
4층 건물 중(3층) 34평
● 법당, 주방, 주지실, 화장실별도
● 3존불, 지장보살, 신중탱화 영단, 앰프시설 불기 일체
● 전세 2000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 1200만원 답사후절충가능
031)511-4974

역학풍수지리강좌
■ 역학 : 사주초급, 중급, 고급반 대운과 용신법
■ 양택 : 풍수 인테리어, 음양오행, 길흉화복법
■ 음택 : 패철법, 실전감정법, 명당답사
본협회의 서적과 패철 교보문고, 영풍문고 절찬 판매 중
자격증, 회원증 발부 오전, 오후반 수시 모집 中
각 시 · 도 지부모집 http://www.ps21c.com
사단법인한국자연지리협회
☎ (02)929-1188, 922-1553
지하철 1호선 제기역 1번 출구 바로 앞 금성빌딩 2층 203

사 찰 안 내 - 포교당 -
• 위치 : 경남 밀양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부지 : 20,000평
• 가액 : 2억
• 위치 : 충남서산
• 법당 : 28평
• 요사 : 60평
• 부지 : 900평
• 가액 : 3억2천 (교환가)
• 위치 : 인천지역
• 법당 : 50평
• 요사 : 70평
완벽한 최고의 시설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억4천/150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급)안내
●위치 : 광주광역시 울산 1동
●전체 평수 약 330평
●전통 유치원
●시내 중심가
●덕림산이 주위에 있음
●가액 : 7억 전세가능 : 2억
011)603-8450

포교당 안내
● 위치 : 광안지하철역 1번출구 3층건물 중 3층
● 건평 : 65평
● 보증금 : 30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 4,000만원(조절가능)
011)677-8742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 평수 : 3층, 52평
● 법당, 주방, 방 2개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3,0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1)686-6614
051)582-8505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영도 체유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경 좋은곳
● 평수 : 2600평(공식시가 9~10억) (대지 300평)
● 법당 40평 ● 요사 25평
● 산신각 3평 화장실 욕실 1동
● 가액 15억
051)757-4851
011)9326-8389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 화엄경 (80권) - 1,6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21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해인사 055) 932-7252 김창본
신부락 011) 545-7252 처 사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서울시내 소재 지하철 5분 거리
● 법당 : 40평
● 보증금 : 1,000평, 월 75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역사깊은 도심 포교당 입
● 위치 : 전북 익산 소재
● 대지 : 140평
● 법당 : 35평(2층)
● 요사 : 40평(1층)
● 양도가 : 2억 3천
● 역사깊은 도량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동작구 상도 2동 201-60호 백운사
●대지 : 66평
●건평 : 1층 28평 2층 21평 지하 5평 합 : 56평
●부처님 네분 모셔져있고 후불탱화, 영단 부처님 단청 깔추어져 있음
●가액 : 5억 7천만원
011)722-0302
02)815-0302

토굴 안내
● 위치 : 안동시 시청에서 5분거리
● 평수 : 20평, 방 3개
● 주방, 거실, 욕실 (기와집)
● 특징 : 수행처 및 절집 가능
● 깁앞 주차 가능면적 120평
● 텃밭 150평(일년 도지 5만원)
● 가액 : 전세 600만원(시설비약간)
054)855-0109

사찰(터)안내
● 위치 : 전북
● 평수 : 3000평, 종교용지 600평
● 법당 40평, 요사 20평
● 부속건물 30평
● 가액 : 답사 후 결정
031)529-2108
011)671-0987

암자용도전원주택안내
●위치 경북 영천근교, 대구서 50분 ~ 1시간
●부지 밭 600평 중심에 대지 150평 + 세곡부지
●건물 신축한옥 30평 큰방 2 작은방 2 큰마루 부엌 화장실 외 창고 12평
●특징 산세수려하고 마당앞엔 사철 흐르는 청정계곡이 있고 마당까지 큰차진입
●가액 7800만원 (실제공사비)
054)337-5156
011)9857-5156

易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듣기만 해도 암기 됨, 감명비법공개
✦ 주야, 주말반 : 초보에서 전문까지
✦ 특강반 (법당 · 포교원운영 · 스님 · 법사)
✦ 사주로 영가찾는 법 등
✦ 개운법, 영가 · 조상천도 상담환영
☎ 02)2236-2284 (2,6호선 신당역)

귀대창불교건축 귀대창목재
● 사찰대웅전 건축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공장 054) 781-4989
H P 016)768-4324
011) 246-2210
● 태백산 (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춘양목
▲ 연목 : 12자 ~ 24자까지 5치 ~ 8치
▲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 보감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창종합개발 이중봉 합장

포교당 안내
● 위치: 안양시내 2층
● 평수 : 53평
● 법당, 주방, 방 각 1개
● 보증금 1700 월 60만원
시설비 : 내방 후 절충
011)9135-8229

포교당 안내
●위치 : 경북 영천(영천 톨게이트 부근) 교통편리
●대지 : 약 100평, 건물 50평 단층한옥 (새로 수리함), 입법당 (즉시법회가능) 방 3개, 창고 1
●특징 : 마을 끝집에 야산을 끼고 있어 토굴을 겸해 포교당으로써 적절함
●가액 : 3500만원
054)337-9916
011)9727-9935

사찰 안내
수백년 묵은 느티나무가 옆에있고 앞에는 큰 냇물이 사철 흐르는 유원지
●대지 : 200평 ●전 : 700평
●방 2개, 창고 1개
●가액 : 7200만원
054)262-6673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평수 : 땅 대지 200평 법당(콘크리트 기와) 28평 산신각 2층 5평, 요사채 30평 공양간 5평, 대지 공양간 5평
●즉시 법회 가능
●가액 : 1억 5천만원
052)294-7025
016)9294-7025

연꽃 그림에 부처님 말씀을 담아드립니다.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 · 중 · 대 ·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 선물용 · 봉안식용
전화주문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착수 등기 송달
● 입금계좌 : 우체국 703496-02-083632
● 견본참조 : www.jeongpung.co.kr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면적 : 59평
● 법당 : 25평, 요사 : 35평 (도심속의 작은 사찰)
● 가액 : 1억 6천
● 위치 : 사량도(남해)
● 면적 : 3,000평(종교부지 1,000평)
● 법당 : 10평, 요사 : 15평 (불사 중 중단된 사찰 임)
● 가액 : 3억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사찰부지안내
● 서울 관악산 10,000평
● 용도 : 사찰 및 복지시설
● 평당 : 25만원
● 경기도 이천 땅 5천평
● 평당 2만원
011)241-0408

사 찰 안 내
● 위치 : 포천
● 대웅전 : 28평
● 요사 : 35평
● 산신각 : 10평
● 대지 : 600평
● 가액 : 2억 6천
011)240-8880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길안면
● 법당 1개(20평)
● 요사채 1개(20평)
● 대지 : 689평
● 심야보일러 심야온수
● 가액 : 7천 500만원
011)423-6453

사찰안내
●위치 : 전주
●대지 : 130평, 법당 : 30평
●산신각 : 5평 요사채 : 60평
●가액 : 2억 3천만원
063)291-7532
017)336-7523

사 찰 양 도 안 내
• 부지(종교용지) : 2013坪 • 法堂 : 13평
• 요사채 : 20坪 • 매가 : 8억 5천만원 • 위치 : 서해안
• 특징 : 1. 1400년된 전통사찰(사지)
2. 마이여래불(지방문화재로 지정 조성연대 고려말로 추정)
3. 암반약수(수량풍부) 4. 자동차 진입 가능
5. 천혜의 자연 경관과 우람한 바위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좌청용 우백호가 뚜렷한 대찰터임
6. 지방 문화재 보전 사업비 지원 사찰임
사찰정보센터 : 금강기획 02)736-3578~9 011)789-2255

탈 중 공 고
● 사찰명 : 수도사 ● 주 지 : 원각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탕정면 동산 2구 286번지
백 합 사 영 명 수 량 사 운 학
신 광 사 청 표 봉 연 사 도 진
지 장 사 효 산 종 명 사 도 명
천 왕 사 도 운 덕 운 사 법성화
천 복 사 도 안 관음정사 지 원
금 계 사 도 정 용 암 사 천 동
호 암 사 지 성 명 성 사 명성화
통일미륵사 도 선 개 운 사 일 월
일 월 정 사 도 성
연 화 정 사 도 성
이상 18곳 사찰은 충남에 위치함
위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 할 수 없어 탈종함을 공고함
서기 2002년 8월 12일
일붕 선교종(신영동)총무원장 귀하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면적 : 실 면적 약 34평 방2개, 사무실1개, 주방1개, 법당1개
● 보증금500만원 월70만원 시설비 추후 협의
017)217-2219

사찰안내
●위치 : 계룡신도시 아파트 3만세대 밀집지역
●대지 : 150평
●건평 : 99평(법당, 요사, 식당) 3층건물
●특징 : 현재법당 불사 중 심야보일러
●가액 : 3억 1천만원
011)436-752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이천시 터미널에서 3분거리 서울까지 1시간 소요
● 면적 : 20평 2층건물 중 2층으로 옥상사용가능
● 특징 :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가액 : 전세 250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9)9756-1316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백두대간, 산세좋고 전망좋은
● 밭 1991평, 터정리 완료 (불사가능)
● 토굴은 블럭으로 조성
● 방 1, 부엌 1(재래식)
● 가액 : 5천만원
011)9542-2537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 • 대 지 : 18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40평
• 산신각 : 15평 • 가 액 : 6억
※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양수 하실 분 전화상담 환영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용도 마음수련원, 별장, 토굴, 기타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내, 대구에서 50분 ~ 1시간
● 부지 : 600평 ● 건물 3동
● 건물 1동 통나무집 1층50평, 2층30평 3층30평 심야보일러) 건물 2동 벽돌집 25평 방 4, 거실, 주방 욕실 (심야보일러) 건물 3동 육각정
암자 또는 토굴로 사용할 경우 2층은 법당으로 사용가능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마당에는 흐르는 생수 연못과 정자가 있고, 잔디와 소나무 조경이 잘되어 있음
정원 앞에는 마르지 않는 계곡이 있어 항상 시원한 물소리를 즐길 수 있음
채소밭 텃밭이 있고, 과일나무가 있음
마당까지 래미본 등 대형차 진입
● 양도가 : 3억 3천
011)509-0124

사찰 안내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부지 : 약 320평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10대
●가액 : 2억 5천만원
011)9756-4845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시 덕천로타리 5분거리 (구포시장 내)
●평수 : 60평, 방 4개 삼존불, 지장보살, 지장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보증금 : 1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3000만원
055)386-7463/016)355-4264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사찰 안내
●위치 : 남원시 소재
●대지 : 120평(실사용 200평 이상)
●법당 : 약 30평, 요사채 (스님전용방 3칸, 욕실 1칸, 신도방 3칸) 공양실 1동 (공양주 방 1칸)
아담한 사찰 (비구 · 비구니스님 적합함)
●주차장 완비 ●가액 : 7천5백만원
016)850-8778

포교당암자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2개월 된 포교당 임
● 사정상 (급) 안내
● 삼존불, 삼좌, 개금, 부처님
● 불기입절, 탱화 4자~6자, 후불 1폭
● 삼단 A급 조성되었음
● 물건만 양도합니다.
● 조성가 : 6백만원
● 양도가 : 2백만원
011)9762-2286

음악 들으며 명상한다

티베트 · 인도 · 국악 등 명상음악축제 한마당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여름이 시들어가는 때, 음악을 통해 내면의 고요와 성숙을 체험할 수 있는 명상음악축제 한마당이 열린다. 정신세계원이 마련한 '맑은 정신 밝은 세계, 2002 명상축제'가 바로 그것. 이번 행사에는 세계적인 티베트 명상 음악가 나왕케촉을 비롯해 인도음악가, 국악인 등이 초청돼 일반인들에게 명상음악을 선사한다.



◇인도 명상음악 전문그룹 '반디쉬'의 리드싱어 '판쉬카르'



◇티베트의 명상음악가 '나왕케촉'

인도 음악그룹 · 국악인들 특별이벤트 31일 양수리

명창 박종순 씨 시조소리 익히기 지도 9월 7~8일 남이섬

3일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경기도 양수리 '두물워크샵'에서는 인도음악 그룹과 국악 명상음악가 백인영, 가야금 실내악단 '예랑'이 함께 꾸미는 명상음악 특별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인도 전통음악과 자연 친화력의 관계'에 대한 강의와 함께 인도음악그룹 '반디쉬'의 시범 연주가 곁들여진다. 또 인도 전통요리로 짜여진 저녁식사를 마친 뒤에는 촛불과 향의 조명만으로 꾸며진 무대에서 펼쳐지는 '키르탄(신에게 드리는 음악회)'을 감상한다. 특히 3장의 독집 음반을 낸 라가 싱어 '아파르나나 판쉬카르'와 백인영 씨는 인도의 '라가'와 우리의 산조를 함께 연주해 국악과 인도음악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감동의 무대를 꾸밀 것으로 기대된다.

9월 7~8일 경기도 가평 남이섬에서는 '흙피리의 대가와 시조창 명인이 이끄는 맑은 기운속으로의 명상여행'이 열린다. 흙피리(오카리나) 신동 한태주가 백두산 천지의 상서로운 기운을 오카리나의 선율에 담은 감미로운 곡들을 들려준다. 또 명창 남계 박종순 선생은 참가자들에게 '시조소리 한 수 익히기'와 '시조기공 익히기' 등을 지도한다.

정신세계원 이달희 기획실장은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악기, 어느 나라 악기인지 몰라도 충분히 음악의 맛을 느낄 수 있다"며 "특히 일상의 삶 속에서 분주하고 시끄러운 소리만을 들어온 현대인들이 음악과 명상의 조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7 18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 남이섬과 약속의 섬에서는 티베트 명상음악가 나왕케촉이 티베트 정신세계와 티베트 불교 명상법' 특강, 명상수련 지도에 이어 '나왕케촉 의 작은 음악회'를 열어 참가자들에게 열띤 호응을 얻었다.(02)747-7033

레저 담당=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늦더위 식힐 '반딧불이 축제'

23~27일까지 전북 무주에서 열려

천연기념물 322호 … 오염되지 않은 자연 상징 곤충

마당극 · 자연학교 등 행사 다양, 기간중 관광열차 운행

전북 무주군 설천면 일대에서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6회 반딧불이 축제'는 국내의 대표적인 환경축제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중에서 곤충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딱 두 종(種)이다. 나머지 하나는 장수하늘소.

발광생물인 반딧불이는 무척추동물, 절지동물문, 곤충강중 유시아강, 딱정벌레벌레목중 초시목, 반딧불이과로 분류되는 곤충으로 생물학상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형설(螢雪)의 공(功), 즉 진(晋)나라 차윤(車胤)이 반딧불이 밑에서, 또 손상(孫康)이 눈빛으로 글을 읽고 출세했다는 고사(故事) 등으로 청소년의 교육상 큰 가치가 있으며, 어른들에게는 유년시절 반딧불이를 가지고 놀던 잊지못할 추억을 일깨워주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곤충이다.

청정한 생태의 지표종이기도 한 반딧불이의 환경적 중요성은 일찍이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전북 무주군 설천면 남대천 일원의 서식지와 반딧불이를 아울러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했다.

1997년부터 시작된 '반딧불이 축제'에 참가하면 매일 저녁 셔틀버스를 타고 야생반딧불이를 찾아가는 '반딧불이 신비탐험'과 반딧불이의 생태계를 엿볼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눈여겨 볼만하다. 이외에도 주요 행사로는 반딧불이 마당극과 백일장, 반딧골 청소년 어울마당, 반딧불이 자연학교, 반딧불이 생태관 운영, 반딧불이 관화 체험, 민속음악공연 등이 펼쳐진다. 특히 축제기간 동안 철도청에서는 '반딧불이 축제 관광열차'를 운행한다. 또 인근에 있는 한풍루 지남공원에는 각종 민속용구와 놀이를 재현한 전통민속 체험동산을 마련한다.(063)320-2546~8

△개최장소: 전북 무주군 일원(한풍루, 공설운동장, 남대천변, 자연학교, 반딧불 서식지)

△교통편: 1)기차:서울역에서 영동역하차(2시간 4분소요)-영동역에서 무주까지 버스이용(30 분소요)

2)고속버스:서울 강남터미널에서 대전행버스를 탄다-대전에서 무주행 버스로 갈아탄다(2시간30분 소요). 또는 서울에서 영동까지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영동에서 무주까지 시외버스로 갈아탄다.(3시간소요)

3)자가용: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 대전분기점-대전통영고속도로로 갈아타고 무주 IC로 나오면 된다.

△주요특산물: 머루주, 한과, 엿기름, 오미자, 표고버섯, 양봉, 고추.

△인근 주요관광지: 무주리조트, 장도바위, 구천동계곡, 덕유산, 백련사.



◇친환경적인 축제로 6번째를 맞이한 '반딧불이' 축제는 마당극, 음악회, 백일장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사진은 제2회 '반딧불이 축제 음악회' 모습.

이렇게 극복하자

휴가 후유증

1~2주간 술자리 피하고 점심후 잠시 수면도 방법

"일손이 잡히지 않고 온몸에서 맥이 쭉 빠진다." 휴가를 다녀온지 1주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이 많다.

▶생체리듬 파괴가 주원인

여름 휴가 뒤 수면장애나 피로를 호소하는 것은 바로 생체리듬이 깨졌기 때문이다.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호르몬은 멜라토닌과 코티손으로,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한다. 밤에는 멜라토닌이 수면과 휴식을 유도하고, 낮에는 코티손이 활동력을 높이는데 휴가기간 동안 밤새 즐기다가 낮에 잠을 자는 '올빼미' 생활을 하다 보면 피로와 무기력증에 빠져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다.

▶흔한 휴가 후유증상

가장 흔한 휴가 후유증 중 하나는 급성 장염과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인한 설사다. 설사가 발생하면 멎을 때까지 우유 같은 유제품을 삼가고 이온음료 등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지나친 일광욕으로 피부가 화상을 입어 피부가 붉고 따가운 경우에는 찬 물수건이나 얼음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야 한다. 오이를 갈아 피부에 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후유증 극복법

휴가 후에도 1~2 주 동안은 일과 후 술자리나 회식 자리를 피하고 일찍 귀가해 휴식을 취한다. 잠도 하루 7~8시간씩 충분히 자야 좋다. 낮 동안 심한 피로가 느껴지면 점심 시간을 이용해 잠깐 동안 숙면을 취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땀을 많이 흘려 건조해진 피부를 위해서는 하루 7~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셔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준다.

新 동의보감 (6)



김 승 수

한의학 박사 · 송암한의원 원장

여름철 보약

개개인의 체질 · 증상 · 계절따라 처방 달라

참 보약은 규칙적 생활습관 · 적당한 운동

브약이란 인체의 기능 활동을 좋게 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약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보약은 단지 허약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며, 넓은 의미의 보약은 과잉 항진된 기능을 조절해 결국 인체의 생명활동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약을 통틀어 말한다.

한의학에서는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병(病)이라고 보며, 정기(正氣)가 허(虛)하면 단지 약할 뿐만 아니라 질병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므로 미리 허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치료이자 예방법이다. 보약 역시 개개인의 체질이나, 증상, 계절에 따라 처방해야 한다.

△기운이 허한 경우(氣虛): 몸이 나른하고, 움직이기조차 귀찮게 여기며, 심하면 말할 기운도 없어진다. 숨이 미약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많이 흘린다. 인삼, 황기 등을 활용하며, 처방으로는 사군자탕과 보중익기탕을 사용한다.

△피가 모자라는 경우(血虛): 안색이 누렇고 말랐으며, 입술이 창백하고 어지럼을 자주 호소하며, 귀에서 소리가 난다. 또 여성은 월경량이 줄어든다. 당귀(當歸), 천궁(川芎) 등을 활용하며, 처방은 사물탕, 쌍화탕 등을 사용한다.

△양 기운이 모자라는 경우(陽虛): 허리 아래 부분이 차(冷)고 허리와 무릎이 약해 걸음걸이가 시원치 않고 자주 설사를 하거나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경향도 보이는데 팔미환류의 처방을 하면 좋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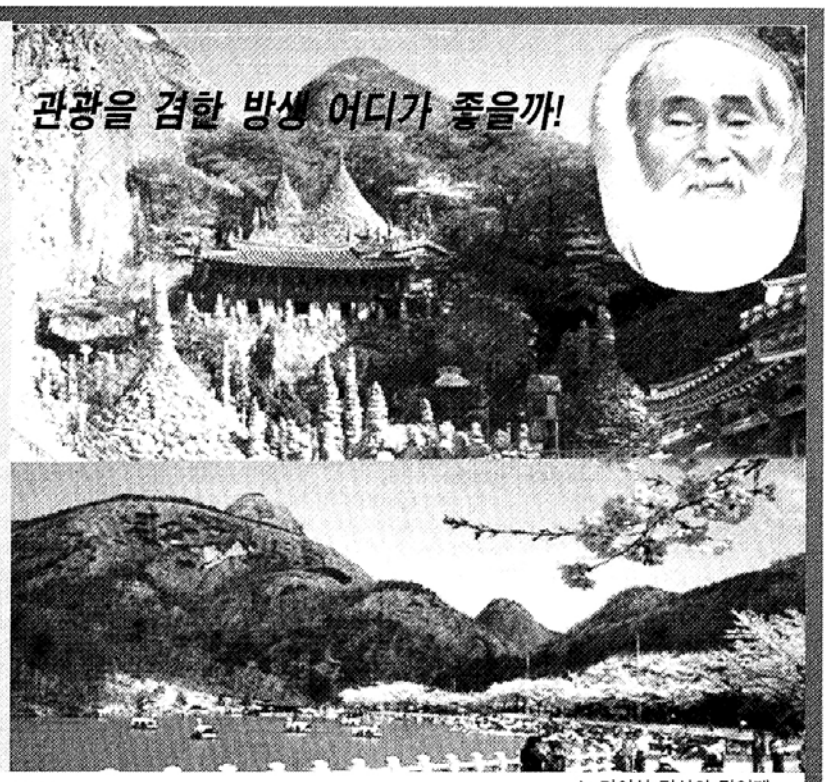
△음 기운이 모자라는 경우(陰虛): 잘 놀래고 나대며 잠을 잘 못 자고, 몸이 마르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며 피부가 몹시 건조하고, 잘 때 땀을 많이 흘리거나 기침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육미지황탕류를 처방한다.

동의보감의 기문(氣門)에는 남녀를 구별해 설명했는데, "남자는 양(陽)에 속해 기가 흩어지기가 쉽고, 여자는 음(陰)이여서 많이 울체(鬱滯)한다. 그래서 남자는 기병(氣病)이 항상 적고, 여자는 기병이 항상 많은 법이다."라고 했다.

진정한 보약의 의미는 인체의 생명활동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굳이 약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식사 그리고 땀흘리는 운동을 통해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보약이며, 건강법이다. (02)530-8200, www.songamclinic.co.kr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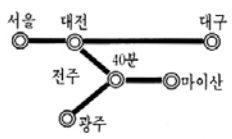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 063)433-2900,0303
432-0652,0072

영가천도「책자 무료보급」
인간의 길흉회복을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인간의 고통중에서 절반이상이 영가의 장애로부터 온다!
집안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가정불화, 사업부진, 자녀문제, 불의의 사고나 재난,
이중에 절반 이상이 영가의 영향으로부터 온다.
"100% 영가천도 영험도량"

책 자 내 용

제1장 영가의 실체.
1. 영가천도에 대하여
2. 영가(고혼) 천도의 의미
3. 영가란 무엇인가?
4. 착신현상이란 무엇인가?
5. 영가의 장애와 천도의 필요성

제2장 천도재에 대하여...
1. 영가천도와 업장소멸.
2. 영가천도의 공덕.
3. 천도재와 위령제의 차이.
4. 수자령영가에 대하여.
5. 효행중의 효행.
6. 지장보살의 시대.
7. 천도재 법문.

제3장 영가천도로 안락한 삶을 영위하다.
● 영가가 천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례.
● 영가가 착신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 천도재를 지낸 분들의 체험수기.

그밖에 여러 사례들 - 영가천도 책자 참조 -

100%의 확실한 영가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
천도재가 위령제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영가천도를 했는데도 영가의 장애라고 느끼거나 삶의 변화는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는 불자가 늘고 있다. 전국에 조상령 혹은 수자령 영가가 천도가 안되어 이로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이들이 상당 수에 이른다.
「미륵이 출세할때까지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리라!」
- 지장경 중에서 -

매월 합동 천도재 봉행, 천도재상담 전화 및 무료책자 신청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도량 성 거 사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283번지(독립기념관 IC)
041)567-6820, 041)567-6822

실버타운 입주안내

1. 입주자격 및 절차
◆ 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분 및 60세 미만 부부
◆ 소정의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분
◆ 보증인(자녀)과 노인동행으로 직접 내원 상담 후 결정

2. 구비서류
◆ 건강진단서,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 1부, 증명사진 3장

3. 시설안내
◆ 3동(96실) ◆ 숙실평형 : 9.5평

4. 부대시설
회의실, 강의실, 진료실, 간호실, 재활치료실, 약국, 사우나, 식당, 세탁실, 강당, 상담실, 휴게실, 수영장, 체련실, 바둑 게이트볼, 삼림욕장, 탁구장, 독서실, 공작실, 서예실, 노래방, 채소재배단지, 온천탕(시공중), 산책로

5. 입주비용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입주금 중 보증금은 퇴실시나 사후 돌려드립니다.

6. 연 락 처
02)743-0294,011)9781-7301 Fax 02)747-4866

※ 공양주, 행자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실버타운

불교 이래서 좋다

강신재 이화여대 국문과 4년

"이젠 나의 삶으로 자리"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교는 나의 '종교' 였으며 생각만 해도 마음이 숙연해지는 숭고 그 자체였다.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부처님을 찾았으며, 우연이라도 절 앞을 지나게 되는 날이면 무거운 의무감을 내치지 못하고, 어김없이 법당에 들어가 삼배를 올리곤 하였다.

물론 지금도 그와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그때와 지금을 똑같이 볼 수 없다. 지금에서야 느끼는 것이지만, 과거의 나는 종교적인 당위에 집착했던 것 같다. 그 종교적 당위는 '꼭 불교를 믿어야 한다' 는 것보다, '불교를 믿기 때문에 불자 노릇을 해야 한다' 는 것이었다. 애초에 선택한 종교가 기독교였다면 나는 누구보다 충실히 교회에 나갔을지 모른다.

그 의미 없는 당위가 내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 언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소년이 성인식을 거쳐서 성년이 되듯, 나는 스물 하나의 언저리를 밟으며 불교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불교동아리 친구들과 사찰기행을 시작하면서 예불의 귀한 맛을 알게 되는 것은 물론, 불법의 진리를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특별히 미(美)와 성(聖)과의 결합체인 불교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여러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를 통해 내 안의 많은 것을 발견하는 동시에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경험들을 자족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다. 학교로 돌아온 사찰기행을 떠올리며 소설을 썼고, 그 해 겨울 그 글로 문학상에 당선되는 행운을 얻었다. 모자라는 글에 넘치는 평을 받아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더욱 더 정진하라는 뜻으로 여겨 지금은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불교문학' 에 전념하고 있다.

이제는 내 삶이 되어버린 불교. 그 설레는 인연을 지켜가면서 앞으로 무엇을 만나고 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그 자체로 행복하다.

담배를 끊읍시다

흡연 피해 줄이기

①첫모금은 그대로 내뱉어라.

담배는 가볍게 흡입하고 삼키지 말아야 한다. 이 경우, 흡입된 니코틴의 4~5%만이 체내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연기와 함께 몸 밖으로 나간다. 또한 일산화탄소 흡입량도 3%이내. 반대로 연기를 폐까지 흡연 니코틴의 90%이상, 일산화탄소는 50%이상 체내로 흡수된다.

②술이나 커피와는 함께 흡연하지 말라.

알코올이 담배연기 중에 포함된 유해성 물질을 녹여 체내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③비타민 C · E섭취를 늘려라.

흡연자는 항산화제의 소모가 많아 세포 노화가 빠르고 동맥경화와 골다공증 발생위험이 높다. 따라서 대표적인 항상화제인 비타민 C E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매일 색이 다른 3가지 이상의 야채와 2가지 종류의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 이밖에 담배 유해독소 제거에 좋은 식품으로는 녹차, 복숭아, 레몬, 시금치, 해조류, 등푸른 생선 등을 들 수 있다.

④하루 10분 기관지 강화 체조.

흡연자는 대개 가래가 많고, 목안이 까글까글한 경우가 많다. 이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기관지 강화 체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기 삼키지 말고 비타민 C · E 섭취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실험해보는 '잔상(殘像) 개비' 만들기 프로그램. 청각장애인 김무화 군이 자신이 만든 작품을 들어 보인다.

내가 만드는 애니메이션

부산 양정청소년관 강습회 장애청소년 등 65명 참가

조 편성 … 시나리오 · 촬영 · 편집 등 직접 작업

'손짓' 과 '말', 그리고 교과서는 필요가 없었다.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어도 청소년들에게는 둔제되지 않았다. '애니메이션', 이들의 또 다른 '언어' 였다. 지난 12일,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마련한 '제2회 내가 만드는 애니메이션 세상' 을 들여다보았다.

13일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 소강당. '이런 원리였구나!' 감탄사가 이어졌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잔상(殘像)' 현상. 바로 이것이 애니메이션의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된 청소년들은 신기함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

청각장애청소년 8명을 비롯한 대안학교청소년 등 총 65명은 전날 처음 만났다. 초등생 꼬마부터 고등학생까지, 심지어 대학생도 눈에 띈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6명씩 나눠 조를 나눴던 청소년들. '제로', '오남매', '無', '하오펑요우(好朋友)',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아행행' 까지 조 이름이 제각기다. 다양한 만큼 이들이 발산할 '끼' 가 일찌감치 느껴진다.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하고, 편집까지 해 제 손을 거치다보면 뭔가 해냈다는 보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 매력 있잖아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참가한 이슬비 양(17 · 부산예고1). 말하는 구석이 당차다. 당차기로 따진다면 이 친구만 있을까? 재작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남들 다 가는 중학교를 안 가고, 대안학교에 들어간 이나라 양(15 · 부산 도시속의 작은학교)과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김무화 군(19 부산 배화학교 고등부). 이 양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좋고,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좋다' 며 말했고, 김 군은 '들지도 말하지도 못하지만, 내 안의 세계를 표현하고 싶다' 며 글로 써서 속내를 내보인다. 둘 다 꿈이 '만화가' 다. 청각장애와 비장애, '애니메이션' 하나만으로 편견과 선입견이 날아가 버린다.

앞으로 애니메이션 탐험은 24일까지 진행된다. 조별토론을 통한 작품구상, 시나리오 콘티 작업, 촬영, 캐릭터 개발, 배경 작업, 편집까지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51)868-0750

청소년 담당=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불우아동 · 청소년 그룹홈 '선재동산' 9월말 문 열어

우리는 선우 목2동에, 수용보다 생활중심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박광서 남지심)는 불우아동 · 청소년 그룹홈 '선재동산(준비위원장 이혜숙,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을 9월말에 문을 연다.

그룹홈은 복지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용중심' 이 아닌 '생활중심' 의 소규모 복지형태.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면서 낙인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응력을 높일 수 있어 대안복지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선재동산은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된 청소년 △가정폭력 등에 의해 가정에서 이탈한 청소년 △중장기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부모의 질병, 가난 등에 의해 대리가정에서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등 4-8명을 양천구, 강서구 등 일대 중 · 고등학교 상담 및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운영한다. 이들의 둥지는 서울 양천구 목2동에 마련, 지역시설이나 전문 사회복지사의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는선우 류동호 기획과장은 "선재동산은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대규모시설이 아닌 10명 내로 꾸려지는 그룹홈"이라며 "가정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리가정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는선우는 수용 아동 · 청소년과 함께 할 보육사도 모집한다. (02)2278-8672

박봉영 기자

청소년 단신

가을맞이 청소년 특강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가을맞이 청소년 특강' 이 열린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가 마련해,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4층 법당에서 5주간 열리는 이번 특강에는 25일 등 아일보 이권효 기자의 '뉴스와 논술', 9월 8일 능인중학교 김영진 교사의 '빠르고 쉬운 학습법', 9월 15일 대구 하나병원 성춘희 간호원장의 '성, 바르게 알아야 한다' 와 김샘학원 민광기 원장의 '알고 보니 수학도 쉬워요' 등이 각각 강의된다. (053)474-8228

선심리 치료사과정 모집 참나찾기 청소년지도자協

(사)참나찾기청소년지도자협회에서 선심리치료사 양성 및 심화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불교문화와 선, 선심리치료학, 통찰심리치료 등 다양한 교과과정이 마련된다. 교육시간은 오전 10시~12시까지며, 양성 과정은 목요일, 심화 과정은 금요일이다. 수강신청은 9월 12일까지. 개강은 9월 26일이다. (02)738-1275

네티즌 불교동아리 순례

새내기 불교동아리

▽풍경소리(http://www.cyworld.com/club/main/club_main.asp?club_id=50143740)-8월 2일 개설. 불법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에 관한 고민들을 화두로 삼아 진정 올바르고 청정한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찾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好好 인연성취(http://www.freechal.com/mandala)-8월 12일 개설. 우리를 윤회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만다라의 세계를 조명하는 모임.

▽구도회 불연(佛緣),http://www.cyworld.com/club/main/club_main.asp?club_id=50145294)-8월 12일 개설. 한국불교연구원 구도회 청년부 모임.

▽아름다운 青年-法友(cafe.daum.net/CoreaGwangpo21)-8월 10일 개설. 21C포교에 앞장서는 일련정종 청년법우들의 모임.

▽誠心寺(http://www.freechal.com/sungsimsa)-8월 7일 개설. 성심사 관련 글과 일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커뮤니티.

▽★★★불교사랑방★★★담소의장소(cafe.daum.net/dhamso)-8월 6일 개설. 불교 교리 및 예절, 영상시와 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를 화두로 정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 첫 화면.

▽대한불교청년회(http://www.freechal.com/neokyba)-8월 5일 개설. 대한불교청년회 발전을 위한 논의공간으로 꾸며진 곳.

모음, 음악실 등 다양한 코너 운영. 불자들을 위한 담소방.

▽천태종 해장사 친구들(cafe.daum.net/hajangsa)-8월 6일 개설. 해장사에 다니는 어린 부처님들을 위한 까페.

▽2546법주사여름수련회(cafe.daum.net/pubjusa)-8월 6일 개설. 2546(2002)년 8월1일~4일간 법주사 여름수련회를 함께한 좋은 인연을 이어가기 위한 곳.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현대불교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기사제보 · 구독 · 광고 문의 및 신청

충북지사
043-258-3282 / 011-459-3282
부산지사
051-463-5331 / 011-737-5481
대구지사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지사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063-255-2274 / 011-9644-4579
인천지사
032-937-5679 / 019-688-8151
밀양지국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054-634-3429 / 011-9373-3778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왕시켜 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하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게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란백액, 매실, 머위 등)

■ 현대해상책임보험 1억 가입
■ 특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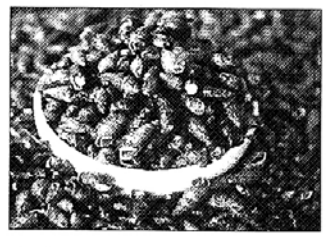
◐ 상담문의 ☎ (02)3437-8282 ◑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回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回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태고종 신협 부실대출로 파산 위기

무리한 주식투자 등 10억원 손실·영업정지로 금감위 관리

"예금공사 실사후 임직원 민·형사 책임 물을수도"

불교계 신협의 선두주자로 1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태고종 신용협동조합(이사장 인곡, 이하 신협)이 지난 5일자로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신협은 2003년 2월 4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돼, 예탁금 및 적금을 포함한 조합의 모든 채무의 지급 및 이사장을 포함한 전임직원의 직무가 정지됐다.

영업정지는 신협 중앙회의 자체감사에서 부실대출과 불법주식투자 부분이 적발됨으로써 야기됐다. 즉 IMF 이후 회원들에게 대출해 준 금액이 회수가 잘 안돼, 99년부터 회원들에게 이익금 배당이 전무한 것을 비롯, 부실대출과 관련 4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런 경영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기자본(40억)비율의 30% 이상 주식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2000년 8월부터 코스닥에 무리한 주식투자를 하는 등, 총 1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신협의 방만한 경영과, 경영 미숙, 최근 금융권의 대형화 등이 영업정지의 주된 이유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의 한 관계자는 "사견이지만 현재로서는 신협 자체의 경영정상화나 인수·합병 등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실사가 끝나는 대로 최종 파산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정상화가 불가능 할 경우 영업정지일로부터 최소한 3개월 뒤,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회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현재 5천만원이상 출자한 회원은 2명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으로 회원들이 큰 피해는 입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 한 관계자는 "9월 초까지 예금보험공사의 실사가 끝나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인곡 스님과 실무자였던 백우 스님 등, 임원진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뒤따를 수도 있다"고 말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 소재한 태고종 신용협동조합 사무실.

태고종 신협은 1986년 종도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출범, 현재 970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불교와 인류의 미래' 주제

31일 濠불교협회장 강연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백원기)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호주불교협회 회장이며, WFB(세계 불교도총회) 집행위원인 그래암 라일(Mr. Graeme Lyall) 경을 초청, '불교와 인류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불교에 대한 서구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 불교의 현황과 전망을 조명해 보고, 차후 국제포교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불교를 서구사회에 접근시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뉴 사우스 웨일즈주와 퀸즈랜드주의 불교협회 회장 등을 겸하고 있는 라일씨는 오는 28일 조선대에서도 강연할 예정. 지난 90년 세계불교도우의회 제17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바 있는 라일씨는 25일 입국해 31일 출국한다. (02)722-2206

김재경 기자

직지사앞 음식점 건축허가 취소

김천시, 문제토지 사들여 문화공간 조성

경북 김천시가 직지사 산문앞에 내줬던 음식점 신축 허가를 다시 취소했다.

김천시는 건축주 곽 모 씨가 직지사 산문앞에 짓고 있는 음식점 용도의 2층 건물에 대해 전통사찰 보전과 시민휴식공간 차원에서 허가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천시는 지난 98년 이 건물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가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관련 법조항이 삭제돼면서 다음해에 결국 허가를 내줬다. 이에따라 직지사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김천시는 문제의 토지를 강제로 사들여 주변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직지사는 그동안 산문앞 음식점 건축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호국불교의 정신을 멍들게 하는 훼불행위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재경 기자

23일 우란분절…불교 '孝의 날'

사찰들 다채로운 행사

오는 23일(음력 7월15일)은 불교의 '효'의 날인 우란분절이다. 부처님오신날, 출가일, 열반일, 성도일과 함께 불교 5대명절 가운데 하나인 이날, 전국 각 사찰에서는 스님들의 수행력으로 조상 및 부모의 극락왕생과 불보살의 가피를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한다.

특히 봉선사, 봉은사, 삼광사는 부산 삼광사는 우란분절을 맞아 서화 전시회와 연극공연을 선보인다. 21일~23일 지관전 금강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열리는 제2회 서화전시회에는 정관스님 종학스님 정여스님 등 스님들의 서화와 부산 경남 중견 서예가들의 작품 40여점이 선보인다. 또한 21일, 22일 지관전 불교문화회관에서 공연되는

봉선사 신도회 사중스님들에 사은회

삼광사 서화전시·연극 '목련존자' 공연

봉은사 생명해방 대축제·문화행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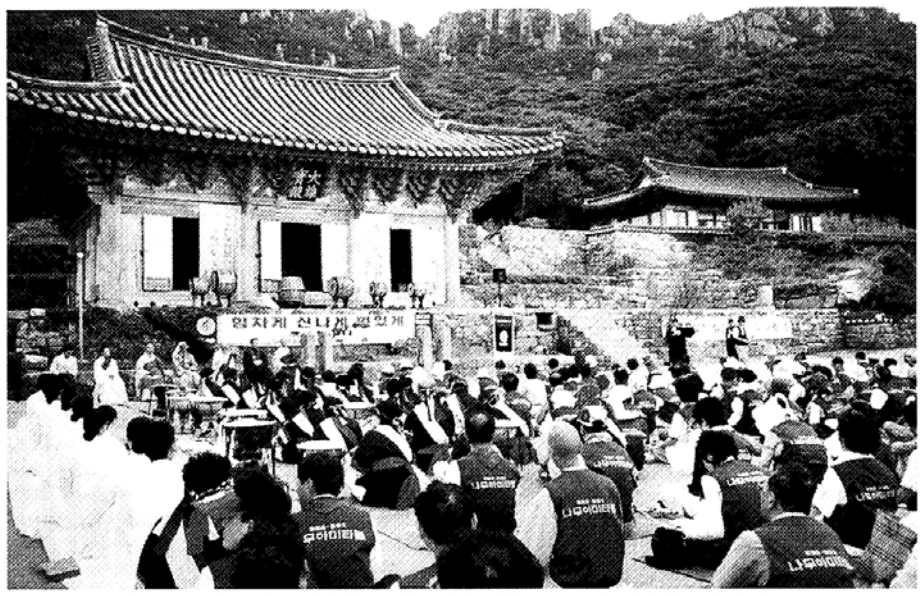
당일 의미있는 행사를 마련, 생명해방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는 법회를 준비중이다.

남양주 봉선사신도회는 스님들의 가르침에 보답하기 위해 신도단체 대표와 신도들이 사중 스님들에게 삼배를 올리고 공양물을 올리는 사은회(謝恩會)를 연다. 이후 영가천도 법회를 봉행, 우란분절 본래의 의미를 부각시킬 예정이다. (031)527-5974

극단 연희단거리패의 '목련존자'는 새롭게 각색된 목련존자의 구모(救母)이야기를 통해 부모의 은혜와 우란분절의 본뜻을 되새기는 무대로 꾸며진다. (051)808-7111

서울 봉은사는 제5회 '생명 해방 대축제'를 봉행한다. 축제에서는 영산재를 비롯해 진혼무, 경기민요, 육법공양 등 각종 문화행사를 펼친다. (02)545-1448

김재경·천미희 기자



◇염불만일회 5차년도 성지대회가 5~7일 해남 미황사에서 400여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

미황사서 염불만일대회

아미타춤공양등 행사도

하루 1만 번의 '나무아미타불' 염송. 남북통일과 국태민안을 염원하는 염불만일회가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남 미황사에서 5차년도 성지대회를 가졌다.

전국염불만일회(회장 김재일) 주관으로 열린 염불만일 결사에서는 동산불교대학 우리춤학과 재학생들의 아미타춤 공양을 비롯해 호마천도의식 시현, 아미타춤 대동제, 한글의식을 통한 저녁장엄예불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특히, '염불만일 다짐대회'에서 전남 곡성 성륜사 조실 청화 스님은 "염불과 선은 하나임"을 강조하고 "자기본성이 바로 아미타불인 실상염불"이라고 설법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51호 박동매 씨는 진도만가 등을 공연했다.

1만일(27년 5개월) 동안 열리는 제6차 염불만일회는 지난 1998년 8월 6일, 1230년 전 제1차 결사가 열렸던 건봉사에서 이미 입재식을 가졌고, 회향식은 2025년 12월 21일에 봉행된다.

김철우 기자

서해교전희생자 49재

조계종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는 16일 해군2함대 호국해웅사에서 서해교전 희생자들의 49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와 함께 해군 군법당에서만 진행해 온 위령추모제를 전국 군법당으로 확대 실시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49재 회향법회에서는 유가족들에게 전국 군법당에서 모금된 위문금을 전달했다.

박봉영 기자

印파견 자원봉사자 결핵전문교육

JTS, 대한결핵협회 협조얻어 3주간

대한결핵협회 산하 결핵연구원(원장 배길한)은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에 걸쳐 결핵진단을 위한 전문교육을 인도로 파견될 JTS(이사장 법륜스님)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시하고 있다.

인도 JTS는 불가촉천민 집단거주지인 '둥게스와리' 지역에 지바카병원을 설립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외래진료 외에 특별사업으로써 '결핵퇴치사업을 벌여왔다.

JTS가 결핵퇴치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확보하고자 대한결핵협회로 교육협조 요청을 했고, 대한결핵협회 산하 결핵연구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원활동가들을 위한 새로운 결핵전문 교육과정이 개설됐다.

대한결핵협회는 JTS의 인도 현지 결핵프로그램이 시작된 초기단계에서부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건교육, 현지 보건교육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지원을 해왔으며, 금번에 파견 예정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문교육을 시킴으로써 결핵환자 발견 및 치유에 관한 기술력을 제고시켜 치료율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인도 보드가야=김동훈 통신원

천태종 수해성금 전달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3일, 최근 큰 비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한 성금으로 KBS에 1500만원, MBC 1500만원씩 각각 전달했다. 천태종은 이후에도 각 말사별로 수재의연금을 모금,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천태종은 10일에도 서해교전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로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경숙 기자

첫 '오방헌공다례' 봉행

서울 봉은사가 15일 '제1회 연화차 오방헌공다례'를 봉행했다.

칠월칠석과 8.15 광복절을 맞아 일체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다도협회가 참여해 오방헌공다례를 직접 시연했다. 봉은사는 또 이번 다례를 계기로 다도문화 활성화를 위해 9월7일부터 '봉은 다도반' 개설 운영한다.

한명우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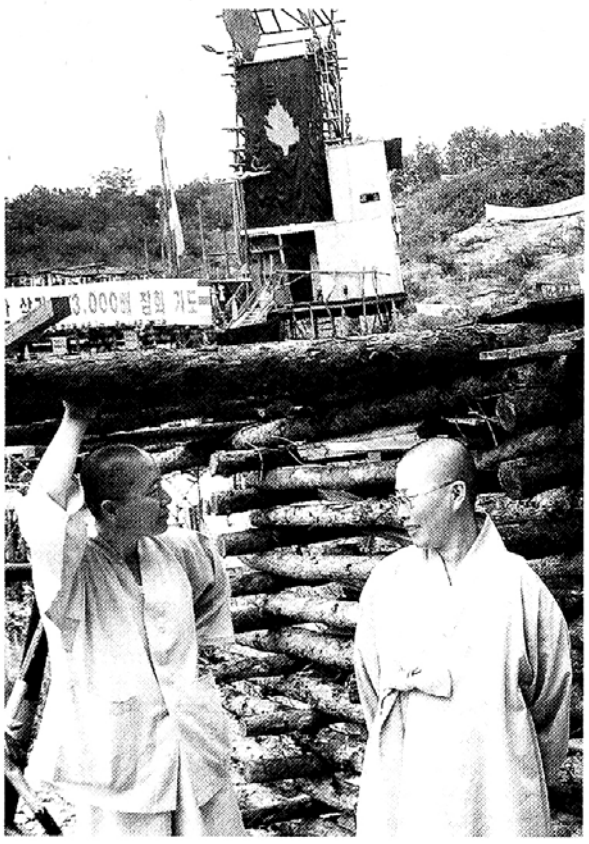
최면 수련생 모집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면-전생을 통하여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전생(前生)의 문을 열면 당신의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
① 타인최면유도 ② 최면으로 하는 제령(除靈) ③ 원격최면 ④ 전생퇴행최면 ⑤ 파동(波動)요법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면-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 강의시간 : 주 3시간, 3개월 과정
◈ 문 의 처 : 051)806-8500, 051)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법운 선생님 약력
■ 동래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 '97년 PSB 아침 특종뉴스 출연 (운명학)
■ '98년 PSB 출발새아침 출연 (관상학)
■ 대한 초능력협회 회원
■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 세계아미포 기공협회 회장
■ 현 '삼경그룹' 고문으로 재직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동 방 최 면 전 생 연 구 소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가시오가피 일반오가피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북한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북한산 관통도로와 관련 불교계와 서울고속도로(주), 한국도로공사측이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다음날인 15일 광복절, 철마선원 가는 길은 휴일을 맞아 행락객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철마선원을 철통같이 지키던 강원연합 스님들도 떠나 선원에는 적막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북한산 살리기와 사찰환경 수호에 누구보다 역할이 컸던 스님이 철마선원장 수경스님이다. 수경스님 못잖게 혜주·성견·향산·석민·종호·성타·성엽·묘수·법안·법현·성효·지황 등 비구니 스님 들도 북한산 살리기에 불철주야애를 써 왔다.

인터뷰 : 철마선원 지켜온 종호·성타스님



◇선원이 난입 당하면 함께 다비식을 치르기로 약속했다는 성타(오른쪽)·종호 스님. 다비식에 쓸 나무더미 앞에서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특히 종호스님은 내원사스님으로 회룡사선원에 등안거를 지내기 위해 왔다가 북한산지키기에 뛰어들었고, 회룡사 총무스님인 성타스님은 자신의 수행처가 파괴되는 것에 분노를 느껴 사찰수행환경 지키기에 적극 나섰다.

"북한산 구간만 공사 중지 합의를 이끌어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공사중지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요. 하지만 발등의 불은 껐으니 수락산·불암산 구간 공사 중지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겠지요."

두 스님은 같은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 구간인 수락산·불암산에 대한

시민단체와 연대 '공사 백지화'에 전력
비구니들도 역량결집 대사회운동 펼쳐야

걱정부터 꺼내놓았다. 또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노선검토 기간인 4개월 동안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킬 것입니다."

스님들은,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삶에서 사회적인 삶, 즉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삶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제까지는 나만을 위한 정진을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눈을 돌리겠습니다."

폭행 사건과 관련 자신의 내부에 잠재돼 있는 폭력성을 발견하고 '20년 수행 결과가 이정도인가'라는 생각에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종호스님은 "탐진치 삼독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뭇 생명에 대해서도 참회했다"고 밝혔다.

자신을 폭행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 성타 스님은 "분노와 증오심은 잠시뿐 이제는 북한산만 살리면 된다는 생각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두 스님은 이번 사건과 관련, 불교계와 비구니계에 대한 질타도 빼놓지 않았다.

"이제 불교계에서 환경문제는 계속 불거질 것이고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종단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비구니 스님들도 이제는 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결집된 역량으로 대 사회 운동을 펼쳐야할 것입니다."

지난 2월 18일 LG건설 측의 폭행으로 목뼈를 다쳐 아직도 새끼손가락이 부자유스럽다는 종호 스님과 같은 날 허리를 다쳐 여전히 허리를 제대로 못 쓰는 성타 스님. 공사철회가 완전히 결정 나지 않은 지금, 벌겋게 파헤쳐진 북한산을 바라보며 두 스님은 다시 수행환경 보존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월정사 8각9층석탑 곳곳 균열

문화재청 조사, 지붕돌도 박리현상…과학적 보존처리 시급

국보 48호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의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박리 현상이 심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16일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가졌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정각, 문화부장)이 팔각구층석탑 주변 발굴조사를 한 결과 탑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지조사에 참여한 문화재위원들은 "탑의 구조적 안정성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탑 몸체 부분의 균열 현상과 지붕돌의 박리현상이 심해 과학적 보존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팔각구층석탑은 1층 북쪽 몸체(탑신) 부분의 균열 현상과 2층, 5층 몸체의 균열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다. 또한 3층 몸체의 지붕돌(옥개석)과 5층 지붕돌은 박리현상이 심해 그대로 방치할 경우 떨어져 나갈 위험성까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건조물분과 문화재위원인 정영호 교수(한국교원대)는 "균열부분에 물이 들어갈 경우 겨울에 동파 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균열부분에 대한 정밀 조사와 과학적 보존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교수(동국대)도 "특히 1층 몸체와 5층 몸체의 균열, 3층 지붕돌의 박리 현상이 심해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적분과 문화재위원인 장경호 기전문화재연구원장은 "당장 탑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기울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자원봉사 활동 나온 미스코리아들이 김순덕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나눔의 집' 자원봉사
올 미스코리아들 구슬땀

8월 13일, 올해의 미스코리아들이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안식처 나눔의 집'이라는 영상물 시청을 시작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친 이들은 식사보조, 청소 등 허드렛일을 하면서 구슬땀을 흘렸다.

불교계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줄 몰랐었다는 미스 한국일보 김연수 양(22·동덕여대 스포츠학과)은 "할머니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밝기 생활하시고 계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든다"며 자칭 '나눔의 집 화가' 김순덕 할머니(79)의 어깨를 주무르며 미소 지었다.

독실한 불교신자라는 미스코리아 진 금나나 양(20·경북대 의예과)은 "할머니들이 각종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어, 의료 봉사하러 오겠다"고 말해 할머니들의 귀염을 받기도 했다.

4시간 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한 이들은 잊혀질뻔 했던 역사적 진실을 몸소 깨닫는 소중한 시간 이었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LG제품 불매운동에 동참

천리안불교동호회 폐쇄 선언

'인터넷 부처님 터 천불동(회장 이승훈, www.buddhasite.net)'이 LG제품 불매운동에 동참. 전신인 PC통신 모임인 천리안불교동호회(go bud)의 폐쇄를 선언했다. 인터넷 천불동은 12일부터 16일까지 회원들의 투표를 진행한 결과 LG 데이콤과의 결별을 결정했다.

이로써 1991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이버 신행단체로 등장했던 천리안 불교동호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천리안불교동호회 회원들은 인터넷 천불동으로 자리를 옮겨 활동을 이어간다.

이번 폐쇄 결정은 LG측이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과 관련해 비구니스님 폭행, 철마선원 난입 등 폭력 행사를 배후 조종한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뤄졌다. 또 천리안을 운영했던 데이콤의 경영권이 LG로 넘어간 이후 비싼 요금과 질낮은 서비스 등으로 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져 별도의 '인터넷 부처님터 천불동' 터전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인터넷 천불동 이승훈 회장은 "인터넷 천불동으로 자리를 옮겨 신행활동과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안전공사 기원제 봉행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정대)는 13일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신축현장에서 무사고 안전공사를 위한 안전기원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집행위원장 영담, 총무부장 원택 스님을 비롯한 3원의 부,국장스님과 시공사인 동부건설 임직원등 20여명이 참석, 신축공사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정근 및 축원을 비롯한 의식을 진행했다.

김원우 기자

스님 대상 컴퓨터 무료교육

불교정보문화원, 11월 8일까지 12주 48시간

한국불교정보문화원(원장 증관)이 스님들을 대상으로 매킨토시 컴퓨터 활용 및 웹사이트 구축 실무 강좌를 무료로 개최한다.

8월 23일 부터 11월 8일까지 총 12주 48시간의 강의로 마련되는 불교정보화 교육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충무로3가 애플(Apple)센터 2층에서 열린다.

교육과정은 △ 인터넷 기초 및 웹사이트 전략 △ 불교·사찰 정보화 기본전략 △ 웹사이트 구축 실무-html, 포토샵 △ DB구축 실무 △ 게시판, 방명록, 메일 프로그램 구축 실무 △ 사찰운영관련 프로그램 교육-출판, 홍보용 CD 제작 △ 사찰운영관련 프로그램 설계 및 제작 실무-신도관리, 회계관리 프로그램 등이다. (02) 2268-8686

강지연 기자

미얀마·캄보디아 선수단
삼광사, 필요물품등 지원

삼광사(주지 도원)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서 불교국가인 미얀마와 캄보디아 선수단을 후원하게 된다.

삼광사는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16일간 캄보디아와 미얀마 선수단의 원활한 선수촌 생활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물품지원 등의 후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도원스님은 "스포츠를 통한 교류가 자연스럽게 양국 불교 교류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구청 사찰강제철거 물의
천불사, 보상현실화 요구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의 천불사가 철거보상비 문제를 놓고 동작구청과 갈등을 겪고 있다.

천불사에 따르면 동작구청은 양녕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천불사에 철거를 통보하고 건물보상비와 이주비를 포함해 5천만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천불사는 구청이 제시한 보상비로는 사찰을 옮겨 새로 짓는데 턱없이 모자라는 만큼 보상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철거를 거부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모시는 사찰마다 신비스러운 영험이 일어나고 있는"

사천왕 병풍의신비(神秘)한위신력!



규 격 (2폭)높이 : 153cm 폭 : 120cm 무게 : 30kg

◘ 보급가 : ₩2,500,000 → ₩2,000,000

※ 현재 본회에서는 전국사찰을 계속적으로 순회하고 있기 때문에 스님들께서 부담느끼지 마시고 연락만주시면 날짜를 정하여 직접 찾아뵙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다로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조성방법

먼저 훼손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병풍 전체를 고급무늬목재와 황동판을 사용해서 색채도 화려하고 장엄하게 조성 하였습니다.
직접보시면 환희심이 저절로 일어나실 정도이며 일치로 이번에 300폭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병풍 뒷면에는 법기(法氣)와 생기(生氣)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는 본회의 비법(秘法)인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황동판 팔괘불탑다라니를 4폭 모두 부착시켰습니다. 그 결과 사천왕 병풍 자체에서 나오는 법기와 합일(合一)되어 사찰 내 사방 50m 이내에는 강한법기와 법력으로 충만되어 주위의 사악한 기운이 소멸되어지고 있으며, 사찰 내를 신령스러운 법력이 항상 감싸고 있게 되므로서 사천왕 병풍을 모시는 사찰마다 신비스러운 위신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신비한 위신력의 현상

(1) 매 법회때 마다 신도들이 50여명 정도 밖에 안나오는 사찰의 경우에서 사천왕 병풍을 모시고 난뒤부터 신기하게도 동참하는 신도들이 점점 늘어나 지금은 법회에 80여명 이상의 신도가 나오고 있고 어느 때는 100여명 이상씩의 신도들이 동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2) 뜻하지 않은 큰 금액의 보시금을 내는 신도가 생기는가 하면 불전함의 보시금도 배로 늘어나 사찰의 어려운 형편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스님들께서 볼사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우연이 마련되어지고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순순이 풀려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상기 사례는 그동안 사천왕 병풍을 모신 사찰의 스님들과 대화하는 중에서 알게 된 현상들을 종합해 본것 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현상들이 사천왕 병풍에서 나오는 신비스러운 위신력의 작용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며 이제 그 위력이 하나둘씩 알게 모르게 발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불자님들께서도 뜻을 모아 사천왕 병풍을 본인들이 다니시는 사찰에 시주(施主)하는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공덕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 입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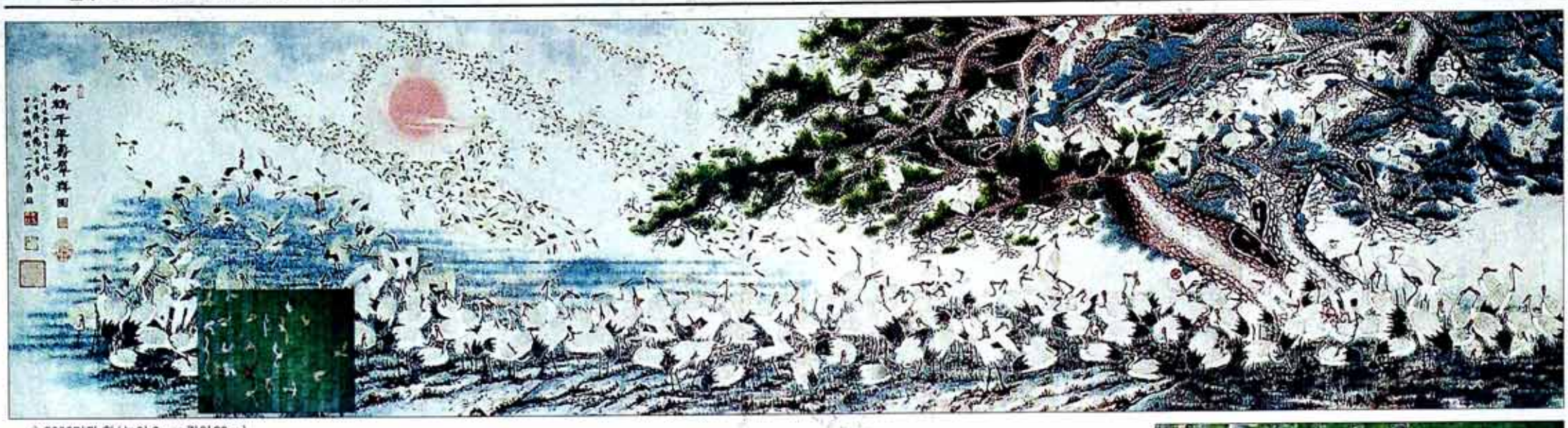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 2002마리 학 (높이 3m × 길이 20m)

동양화 37년…
佛畵로 예술혼 승화



◇ 학들의 축구장

자신만의 예술세계 추구
소산 이정현 화백

평생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묵묵히 추구하며 정진해온 이가 있다. 동양화가 소산 이정현씨가 바로 그 주인공. 이 화백과 불교와의 인연은 남달랐다. 어머니의 태몽 꿈부터 지중한 인연이 시작됐다. 경북 풍기에 고향을 두고 있었기에 어머니는 부석사와 인연이 되어 항상 기도를 드리러 다녔다. 경제 사정이 넉넉지 않은 시절이라 그리 풍족하지 않았지만 향, 초, 공양미 등을 정성껏 올려 부처님 시봉에 정성을 다하고 정진했다. 그러던 어느날 꿈속에서 부석사 스님이 나타나 좌측에 금불상, 우측에 동자상을 보시며 어느 쪽이 좋은지 물으셨다. 그러자 어머니가 스님을 바라보며 빙긋이 웃음짓자, 스님은 좌측 금불상을 잡고 던졌다. 이어 어머니가 깜짝 놀라 치마로 받고 깨어보니 꿈이라 하도 신기해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후 이정현씨가 5세 되던해 부석사 스님이 이씨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 동양화와의 첫 만남이었다. 오전에는 서예를 오후에는 사군자를 연습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사군자 10폭을 그리려면 많은 연습과 시간과 정열을 쏟아 부어도 힘들다고 했지만 이 화백은 힘차고 섬세한 필치로 한국최초 12폭 사군자를 그려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후 자신의 재능을 살려 서예학원을 운영하게 되었고, 각종 서예대전에서 입상하면서 이름이 알려져 물질적으로도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부에 대한 열망만은 항상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중 어느 날 전격적으로 서예학원을 그만 두기로 결정했다. 이 화백은 "그 당시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느낀 성취감 때문이었는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운영하던 서예학원이



월드컵 성공기원 학 2002마리
길이 20m의 대형 화폭에 담아

의 출가를 권유했으나 유난히 귀여워 하던 할머니의 완강한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당시 스님께서는 출가를 못시키면 부처님께 추수 공양미, 장삼 한 벌을 공양하라고 말씀하셔 어머니는 바로 마차에 공양미를 실어 부처님께 정성을 드렸다고 한다.

불교와의 처음 인연이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곳부터 시작되었으니 진정으로 부처님께 정성을 드리며 사는 것이 이 화백의 생활이었다. 안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밖으로는 오직 동양화 작품세계에 정진할 따름이었다.

"젊은시절 일찍 서울에 터를 잡고 생활하면서 너무 고생을 할 때면 조계사 법당에 108배 및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다잡아 가면서 힘든 것을 이겨내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 이것이 인생인가 되짚어 볼 때도 많았습니다."

이 화백이 동양화를 그리게 된 것은 30살 늦은 나이였다. 주경야독하는 서울생활속에서 우연한 기회에 서예학원과 인연을 맺었다. 이전에 펜글씨를 잘 쓴다는 칭찬 몇 마디는 들었지만 공부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서예학원에 다니면서 남달리 숙달하는 속도가 좋아 행서, 초서, 갑골문 등을 일찍 마치고 사군자





하다고 느낀 분야는 최고로 잘한다는 전문가들을 찾아가 크로키, 꽃, 화조, 동물, 새 등을 차례로 탐구했다. 동양화에 입문한 지 37년 동안 그림공부에만 전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화백의 예술에 대한 구도 열정은 대단했다. 특히 동양화 중에도 이 화백은 학을 소재로 한 작품을 즐겨 그려 왔다. 고희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최근에는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해 '2002마리 학'을 그리는 노익장을 과시하시도 했다. 길이 20m의 대형 닥종이 위에 펼쳐진 학의 춤사위를 보고 있노라면 절로 감탄사를 자아내게 된다. 이 화백의 학에 대한 애정이 지금껏 살아왔던 그의 인생행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절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올곧게 지금껏 살아왔구요. 학은 꿈이고, 하나의 희망입니다. 예로부터



달마선사 일대기 … 300점 남겨
경주남산 돌부처 그리는게 꿈

학은 신성시 돼왔고 특히 불교에서 길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남아 있는 학이 2천여마리 정도 밖에 안되는 희귀조인 만큼 월드컵 성공개최 기원과 더불어 지구상의 학을 다 담아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작품을 그렸다고 한다. 대개 명작에는 특별한 사연이 깃들여져 있듯이 '2002마리 학'도 어려운 과정속에서 탄생되었다. 화폭에 빠져 살다 보니 주머니사정이 나빠져 작품 제작비를 마련하느라 고초를 겪었다. 특히 '2002마리 학'은 대형작품이라 종이도 특수주문을 해야 하는 등 일반작품보다 제작비가 훨씬 더 필요했다. 고심끝에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 경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집을 내놓았지만 매매 가 이뤄지지 않아 경비마련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다. 결국 2002마리의 학 그림은 일장춘몽으로 끝나는가 하는 허탈한 마음도 일었다.

조계사서 기도 · 108배 정진
어려웠던 젊은 시절 극복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우연히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보현정사와 인연이 닿아 보현 주지스님께 자세한 말씀을 드렸더니 이 작품은 꼭 만드셔야 될것같다며 발원 기도를 올리자고 했다.

정성껏 기도를 올리던 어느날 이었다. 기도도중에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며 캄캄한 색이 눈 앞에 펼쳐지는 것을 느꼈다. 순간 '검정색은 나쁘고 불행하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다시는 작품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검정색이 옅은 회색으로 다시 연한 하늘색으로 변하면서 갑자기 허공에서 '왜 놓고 있어 하던일을 마저 해야지' 하시는 경책이 들려 갑짝 놀라 깨어보니 보현 스님께서는 아직도 옆에 앉아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 정성스런 기도의 가피 때문일까, 기도가 끝난 뒤 몇일 지나지 않아 집이 팔려 작품경비가 마련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리게 된 작품이니 만큼 온갖 정열을 기울여 '2002마리 학' 작품을 완성하게 됐다.

"작품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진정한 그림은 선경일여의 경지를 화폭에 담아내는 것이라는 강한 믿음때문이지요. 또한 부처님께 좋은 작품되기를 부탁도 드리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 화백은 불화와 함께 개인적으로 달마대사를 좋아해 달마도도 자주 그린다. 달마의 일대기를 장년에서 말년까지 300여개 형상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여 그렸고, 이중 12폭에 담은 좌선하는 달마는 모두 다른 시선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형상화 해 수작으로 꼽히고 있다. 더군다나 한번도 가보지 못한 중국 소림사 동굴에 있는 달마의 원형과 너무나 흡사해 자신도 놀랐다고 한다.

이 화백에게는 생을 마치기전 소중한 꿈이 있다. 경주 신라인들이 불국토를 염원하며 세웠던 남산의 돌부처를 화폭에 담는 것이다. "실크로드, 돈황 등 세계에 수많은 부처님상이 있지만 규모는 클지 [illegible]도 경주 남산 본존불의 섬세함과 우아함, 자연스[illegible] 앞에 서는 아마 고개 숙일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 화백은 30년 동안 보관해 온 자신의 작품들이 예술과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고 싶다고 털어놨다. "그 동안은 작품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공수레 공수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작품이라고 몸 벗을 때 가져갈 수 없지요."

더욱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어 사찰 건립 서원도 세웠다는 이 화백은 오늘도 속세의 아단법석에는 아랑곳 않고 작품 삼매에 빠져 있다.

"보관작품들 예술 · 불교사랑하는 사람과 인연맺게 해줬으면…"



◇ 소산화실 02)334-4334